

도림천 생태, 문화적 조사 연구

2021.12.



목 차

I. 서장	11
1. 조사배경 및 조사목적	13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4
1) 조사대상	14
2) 조사방법 및 조사과정	16
3) 조사내용	18
II. 도림천 및 권역의 현황과 특징	21
1. 도림천 일반현황	23
1) 도시하천과 도림천	23
2) 도림천 기초현황	26
(1) 개요	26
(2) 도림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27
(3) 도림천의 건천화	28
2. 사업대상지 일반현황	29
1) 하천 내부	30
2) 고수부지	33
3) 도림천로 하부	35
4) 교량 하부	37
3. 도림천 인근 지역 현황	39
1) 행정구역 현황	39
2) 인구 현황	39

3) 사회문화 및 경제	40
4) 생태 관련 지표	41
4. 도림천 및 권역의 역사	42
1) 명칭의 유래	42
(1) 고유명이 없었던 무명천	42
(2) 옛 지도 등으로 본 천명(川名)	42
(3) 도림천 명칭의 등장	44
2) 도림천의 변화	44
3) 도림천 권역의 역사 및 변화	45
(1) 옛 지명을 통해 본 도림천변 마을 및 자연환경	45
(2) 대림동	46
(3) 도림동	50
(4) 문래동	51
4) 도림천변의 문화유산	58
(1) 도림천 인근의 서울미래유산	58
(2) 도림천 인근의 서울우수건축자산	60
5. 도림천 이용현황	61
1) 응답자 특성	61
2) 도림천 이용현황	62
(1) 도림천 방문목적	62
(2) 이동수단 및 체류시간	63
Ⅲ. 도림천의 생태 이야기	65
1. 도림천의 식물	67
2. 도림천의 동물	72
1) 조류	72

2) 곤충	73
3) 기타 동물	74
3. 도림천의 동식물과 시민의 기억	75
1) 도림천에 서식하는 동·식물 인지도	75
2) 도림천에서 보고 싶은 혹은 사라져버린 동·식물	77
3) 도림천 식물 이야기	78
(1) 도림천의 식물에 대한 시민의 추억	78
(2) 특별한 식물 이야기	78
4) 도림천 동물 이야기	86
(1) 도림천의 동물에 대한 시민의 기억	86
(2) 특별한 동물 이야기	87
4. 생태 복원을 위한 생물	92
1) 수질정화 수생식물	92
2) 생태계 교란 생물	92
5. 도림천 생태 복원의 의미	94
1) 시민참여 하천복원의 의미	94
2) 생태복원과 ‘그린쉘터’	94
IV. 도림천 생태극장에 대한 시민 의견	97
1. 도림천에 대한 인식	99
1) 도림천에서 연상되는 색상	99
2) 가장 좋아하는 도림천의 풍경과 기억	100
3) 도림천 이용 시 불편한 점	100
2. 도림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103
1) ‘도림천 생태극장’에 적합한 주제	103
2) 도림천에서 진행되기를 원하는 문화예술사업	104

3) 도립천에서 진행되길 원하는 야외전시	106
4) 도립천 이용자가 원하는 공공예술작품 유형	107
5) 도립천 이용자가 선호하는 공공예술 작품의 성격	108
6) 공공예술작품 설치에 적합한 위치	109
3. 도립천의 과거와 미래	110
1) 현재의 도립천과 가장 유사한 도립천의 과거 지명	110
2) 향후 도립천 개선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110
 V. 공공예술 ‘도립천 생태극장’을 위한 제언	 113
1. 공공예술 ‘도립천 생태극장’의 방향성	115
2. 주제별 제언	116
1) 전시 및 설치물	116
2) 공연	117
3) 체험 및 활동 프로그램	117
 참고문헌	 119
부록	123

표 제목

〈표 1〉 도림천 이용현황 및 시민 의견 조사항목	20
〈표 2〉 도림천 및 주요하천	29
〈표 3〉 도림천의 수질측정 정보	29
〈표 4〉 도림천 수생태계 생물측정 정보	30
〈표 5〉 영등포구 세대 및 인구 추이	42
〈표 6〉 사업대상지 인근지역 인구 현황(2019년)	42
〈표 7〉 영등포구 월별 기온 추이(2019년)	43
〈표 8〉 영등포구 월별 일기일수 및 합계강수량(2019년)	44
〈표 9〉 도림천 인근 서울미래유산 현황	61
〈표 10〉 도림천에 사는 식물 (자생식물)	70
〈표 11〉 도림천에 사는 식물 (외래식물)	73
〈표 12〉 도림천에 사는 식물 (재배식물)	74
〈표 13〉 도림천에 사는 조류	75
〈표 14〉 도림천에 사는 곤충	75
〈표 15〉 도림천에 사는 기타 동물	77
〈표 16〉 도림천에 서식하는 동·식물 인지도	78
〈표 17〉 시민이 도림천에서 보고싶은 동·식물	79
〈표 18〉 도림천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	95
〈표 19〉 하천복원의 유형과 원칙	97

그림 제목

〈그림 1〉 사업대상지 구역도	18
〈그림 2〉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19
〈그림 1〉 도림천 유역도 (정승권·김남일·이길성, 2006)	28
〈그림 2〉 대림역 하부 하천	32
〈그림 3〉 1구간(대림역-거리공원오거리) 내 하천	33
〈그림 4〉 1구간(대림역-거리공원오거리) 내 하천	33
〈그림 5〉 1구간(대림역-거리공원오거리) 내 하천	34
〈그림 6〉 2구간(거리공원오거리-대림동 646-1번지) 내 하천	34
〈그림 7〉 2구간(거리공원오거리-대림동 646-1번지) 내 하천	35
〈그림 8〉 1구간(대림역-거리공원오거리) 고수부지	36
〈그림 9〉 2구간(거리공원오거리-대림동 646-1번지) 고수부지	36
〈그림 10〉 2구간(거리공원오거리-대림동 646-1번지) 고수부지	37
〈그림 11〉 대림역 인근 벤치설치 구간 (2021.9. 현재 코로나19로 폐쇄)	38
〈그림 12〉 2구간(거리공원오거리-대림동 646-1번지) 도림천로 하부	38
〈그림 13〉 대림역 5번 출구 인근 교량 하부	39
〈그림 14〉 거리공원오거리 교량 하부	40
〈그림 15〉 거리공원오거리 교량 하부	40
〈그림 16〉 대림동 646-1 내 교량 하부	41
〈그림 17〉 『시흥군읍지(始興郡邑誌)』 지도	45
〈그림 18〉 ‘대경성부대관’ 구역별 부분도 중 영등포(서울역사박물관, 2015)	55
〈그림 19〉 응답자 성별(%)	63
〈그림 20〉 응답자 연령(%)	63
〈그림 21〉 응답자 거주지역(%)	64
〈그림 22〉 영등포구외 서울지역 거주 현황(명)	64
〈그림 23〉 도림천 방문 이유(%)	65
〈그림 24〉 이동 수단(%)	66

〈그림 25〉 체류 시간(%)	66
〈그림 26〉 대왕참나무	81
〈그림 27〉 왕버들	81
〈그림 28〉 뽕나무	82
〈그림 29〉 가죽나무	82
〈그림 30〉 양버즘나무	83
〈그림 31〉 비술나무	83
〈그림 32〉 갈대	84
〈그림 33〉 달뿌리풀(기느줄기 부분)	84
〈그림 34〉 여뀌	85
〈그림 35〉 머느리밀씻개	85
〈그림 36〉 고마리	85
〈그림 37〉 부들	86
〈그림 38〉 강아지풀	86
〈그림 39〉 수크령	86
〈그림 40〉 환삼덩굴	87
〈그림 41〉 개망초	87
〈그림 42〉 단풍잎돼지풀	88
〈그림 43〉 돼지풀	88
〈그림 44〉 왜가리	90
〈그림 45〉 중대백로	90
〈그림 46〉 쇠백로	90
〈그림 47〉 흰뺨검둥오리	91
〈그림 48〉 청둥오리	91
〈그림 49〉 소금쟁이	92
〈그림 50〉 방아깨비	92
〈그림 51〉 부전나비	93

〈그림 52〉 암떡부전나비	93
〈그림 53〉 작은주홍부전나비	93
〈그림 54〉 붕어	93
〈그림 55〉 잉어	93
〈그림 56〉 도립천에서 연상되는 색상 (%)	102
〈그림 57〉 도립천 이용시 불편한 점(%)	104
〈그림 58〉 ‘도립천 생태극장’에 적합한 주제(%)	107
〈그림 59〉 도립천에서 진행되기를 원하는 문화예술사업(%)	108
〈그림 60〉 도립천에서 진행되기를 원하는 야외 전시(%)	109
〈그림 61〉 도립천에 설치되기를 원하는 공공예술 작품 유형(%)	110
〈그림 62〉 도립천에 설치되기를 원하는 공공예술 작품 성격(%)	111
〈그림 63〉 공공예술작품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위치(%)	112
〈그림 64〉 현재 도립천의 인상과 가장 유사한 과거 지명(%)	113
〈그림 65〉 향후 도립천 개선시 중점을 뒤탈 부분(%)	114

서 장

1. 조사배경 및 조사목적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 조사배경 및 조사목적

- 영등포는 도림천, 안양천, 샛강, 한강 등으로 둘러싸인 물의 도시로 풍부한 수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서울에서 유일하게 산이 없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영등포 근린공원, 여의도 공원, 선유도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음.
- 하천과 수변 지역은 본래 도심의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하천 변 위를 지나는 복개도로가 많이 건설되면서 그늘이 조성되어 시민의 이용도가 낮아지고, 주변 생태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짐. 특히 도로와 다리 하부 지역은 어둡고 주변 환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안전문제가 자주 지적됨. 생태자원 등 풍부한 수변 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성, 지역성, 예술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태도시 환경 조성이 시급해짐. ‘장소특정적 공공예술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공동체를 위한 문화다양성의 감각을 경험하는 장소로의 변화가 필요함.
- 이에 영등포에서는 2021년 7월부터 ‘도림천 생태극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영등포구청과 영등포문화재단을 비롯해 예술가, 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예술 실행과정으로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문화, 생태, 교육, 경제, 사회적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됨.
- 도림천은 대림역 등 주요 지하철역을 잇는 구간으로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해 많은 시민들이 거쳐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고가도로와 교량으로 인해 천변 환경을 관리하고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도림천 생태극장’ 프로젝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교량 하부의 인포그래픽 설치, 수변생태자원 복원을 위한 그린쉘터 조성 등을 통해 도림천을 예술친화적, 생태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함.
- 본 조사는 도림천의 기초환경, 생태, 인근 지역문화, 도림천 및 공공예술에 대한 시민 의견 등을 조사하여 ‘도림천 생태극장’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음. 또한 도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과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도림천 이용에 대한 의견과 특별한 경험 등을 조사함.

- ‘도림천 생태극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지에 시행될 사업으로서, 본 용역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도림천의 생태, 문화, 역사 등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공공예술 사업의 중장기적 역할과 필요성, 방향성을 구축하고자 함.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 조사대상

- ‘도림천 생태극장’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될 본 조사 사업의 대상지는 대림역 5번 출구에서 대림동 646-1번지 하부까지로 약 1km 정도임. 사업대상지는 크게 대림역 5번 출구에서 거리공원오거리 교량 하부까지의 상류와 여기서 다시 대림동 646-1번지까지의 하류의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음.
- 사업대상지는 다시 특성에 따라 네 개의 공간 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우선 생태적 의미를 가지는 하천 내부에서 출발하여, 둘째로 고수부지 공간, 셋째로는 도림천로 도로 하부, 마지막으로 대림역, 거리공원오거리, 대림동 646-1번지 중 교차로에 위치한 교각의 하부를 들 수 있음.
- 모든 구간에는 하천에 인접한 고수부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도림천로 아래 공간을 활용하여 자전거길이 만들어져 있음. 대림역 5번 출구에서 거리공원오거리 교각 하부까지는 지하철 2호선이 하천 위로 지나기 때문에 하천 내부에 교각이 일정 간격으로 세워져 있으며, 상부에 철로가 놓인 다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천 부분에 빛 가림이 있음. 그에 반해 거리공원오거리에서 대림동 646-1번지 내 교량 직전까지는 지하철 2호선이 구로구 방면으로 비껴가기 때문에 하천 위로 탁 트인 풍경을 만날 수 있음.
- 사업대상지 내 하천은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매우 얇은 편이며, 때때로 바닥이 드러나는 구간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생태적 보존의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는 없음. 사업대상지 구역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생태가 도림천의 다른 구간과 분리하여 식생을 파악하기도 어려움. 다만 도심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친수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서식하는 동식물 특히 조류 등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있다는 점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음.

- 한편 사업대상지역 내 진출입로는 대림역 5번 출구 인근, 거리공원오거리 교량 인근, 대림동 646-1번지 내 교량 인근까지 세 곳에 설치되어 있음. 진출입로는 계단형 또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휠체어 등 접근은 어려움. 구간 내 징검다리는 3개로 파악되나 2021년 9월 현재 추가 설치 또는 공사 중임. 시민 휴게 공간으로는 대림역 인근 도림천 하부에 유일하게 벤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함. 사업대상지 내 기타 운동시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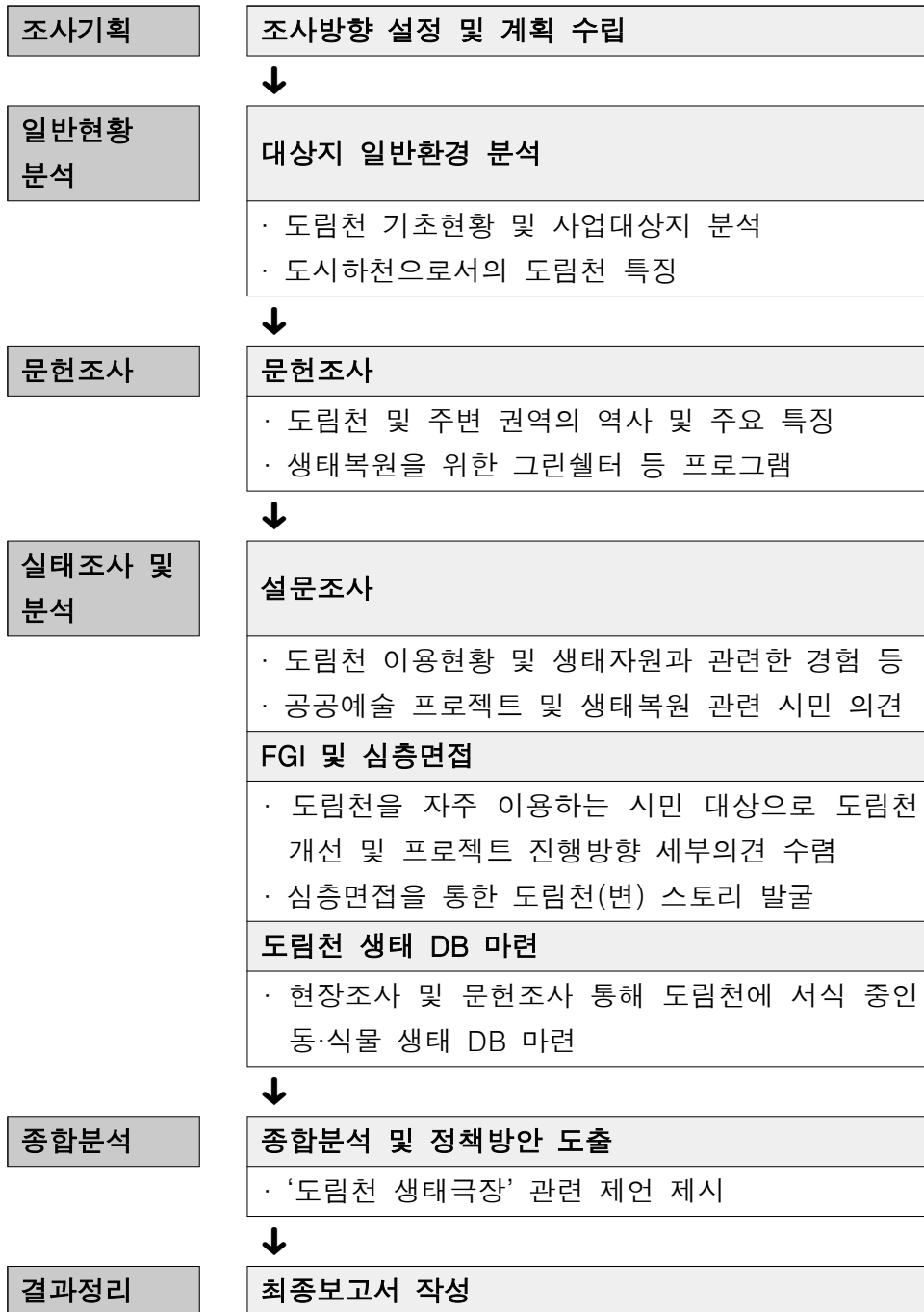
<그림 2> 사업대상지 구역도



2) 조사방법 및 조사과정

- 본 조사는 설문조사, FGI 및 심층면접,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조사과정은 아래 <그림 2>와 같음.

<그림 3>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 사업대상지인 대림역 5번 출구에서 대림동 646-1번지 하부까지 약 1km 정도의 도림천을 중심으로 일반현황을 파악함.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이 활용됨. 도림천의 기초현황, 도시하천으로서의 특징이 조사되었으며, 도림천 인근지역의 주요한 특성이 조사됨.
- 문헌조사를 통하여 도림천 및 인근지역의 역사와 사회문화환경도 함께 조사됨. 특히 도림천 인근의 대림동 차이나타운, 문래창작촌 등은 도림천을 비롯한 영등포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적인 권역으로서 함께 다뤄짐. 한편 도림천의 생태복원과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인 그린쉼터 등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사례를 문헌조사를 통하여 파악함.
- 도림천 이용현황, 도림천 공공예술 프로젝트 및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한 시민의견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됨.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함.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표 1>과 같음.

<표 1> 도림천 이용현황 및 시민 의견 조사항목

구분	조사내용
응답자 기본정보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도림천 이용현황	도림천 방문수단, 방문시 이용시간, 도림천 이용의 편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도림천 공공예술 프로젝트	‘도림천 생태극장’에 적합한 주제, 도림천에서 진행되기를 원하는 문화예술사업 및 야외전시, 도림천에 어울리는 공공예술작품, 공공예술작품 설치에 적합한 도림천 내 위치 등에 대한 시민의견
도림천의 생태	도림천에 서식하는 동·식물, 도림천에 복원되었으면 하는 동·식물, 도림천 생태자원과 관련한 개인적인 경험 등
도림천의 과거와 미래	도림천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색상, 현재 도림천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는 과거 지명, 향후 도림천 어떠한 곳으로 변화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시민 의견 등

- 도림천 이용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여 도림천 이용 및 생태자원 복원과 관련한 세부의견을 조사함. 도림천 이용시 불편한 점, 향후 수변환경 개선사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점, 도림천에 적합한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참여자 A: 문래창작촌에서 주로 활동, 참여자 B: 초등학교 때부터 영등포

에 거주, 참여자 C: 도림천을 이용해 출퇴근, 참여자 D: 아이들과 함께 자주 방문, 참여자 E: 양천구 주민이며 영등포 수변탐사대 도림천 담당, 참여자 F: 도림천에 자주 방문 및 산책, 참여자 G: 신정교 부근 거주, 참여자 H: 도림천로3길 거주, 참여자 I: 문래창작촌 작가)

- 또한 도림천 중에서도 사업대상지에 바로 접해있는 대림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도림천 수변 및 인근 지역의 기억과 문화를 조사하고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음. (면접대상자 J: 대림3동/50대 여성, 면접대상자 K: 대림2동/30대 남성, 면접대상자 L: 대림2동/60대 남성, 면접대상자 M: 대림3동/20대 남성, 면접대상자 N: 대림3동/50대 여성, 면접대상자 O: 신대방1동/30대 남성)
- 한편 생태 측면에 있어서 도림천은 신도림역을 기준으로 하류부 구간에는 제방, 고수부지 등지에 식생이 분포하나, 본 사업지가 포함되어 있는 상류부는 복개되거나 철교, 도로 등이 하천을 점유하며 자전거길 안 쪽의 제방부는 옹벽으로 되어 있어 생물상이 빈약함(이상돈·김석철, 2008).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은 도림천의 생태와 관련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자료를 수집,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생태 측면에 있어서는 사업대상지를 포함하는 인근 권역까지 확장하여 자료를 활용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음.

3) 조사내용

-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짐. 첫째, 도림천 일반현황 및 역사, 둘째, 도림천 생태자원 현황, 셋째, 도림천 이용에 관한 시민 의견과 인근 생활권 주민의 도림천 이용 경험 조사 등임.

✓ 도림천 일반현황 및 인근 지역사

- 첫째, 도림천 일반현황과 도림천의 역사에 대해 조사함. 도시하천으로서 도림천의 특징, 사업대상지의 권역별 특징(하천내부, 고수부지, 도림천로 하부, 교량하부) 등에 대해 조사함. 도림천 및 도림천 인근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도림천 명칭, 주변 도시변화 등 도림천 및 도림천 인근의 역사에 대해 파악함. 주변 권역으로 대림동, 도림동, 문래동 등이 포함됨.

✓ 도림천의 동·식물 생태자원 현황

- 둘째, 도림천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등 생태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도림천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도림천의 동·식물 중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종을 선별하여 콘텐츠를 정리함. 생태복원을 위한 그린쉘터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례를 조사함.

✓ 도림천에 대한 시민의 경험 및 의견

- 셋째, 도림천 이용현황, 도림천 공공예술 프로젝트 및 생태복원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 등을 조사함. 또한 도림천 인근 생활권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림천 이용경험, 도림천 생태자원과 연관된 특별한 경험 등에 대해 심층면접 등을 통해 조사함.

도림천 및 권역의 현황과 특징

1. 도림천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 일반현황
3. 도림천 인근 지역 현황
4. 도림천 및 권역의 역사
5. 도림천 이용현황

1. 도림천 일반현황

1) 도시하천과 도림천

(1) 하천의 개념

- 하천(河川)은 주변 산 등 유역내의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을 의미함. 물이 흘러가는 양이 많은 큰 물길을 의미하는 ‘하(河)’와 큰 물길의 지류와 같이 작은 물길을 의미하는 ‘천(川)’을 합성하여 하천이라 부름, 이러한 하천은 다시 그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하천은 강(江), 작은 하천은 천으로 부름. 즉 하천의 구분에서 중요한 것은 흐르는 물의 양, 즉 유량(流量)임. 물이 흘러가는 길은 유로(流路)라 하고, 하천에 흐르는 물의 근원이 되는 지역을 유역(流域)이라 함.
- 하천법에서는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함,

(2) 하천의 생태계

- 하천은 먹이사슬을 통하여 작은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보면 1차 생산자는 비생물요소로서 빛, 물, 흙이 있으며 이러한 비생물 요소는 생물이 살아 갈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됨.
- 1차 생산자로서의 생물은 습지식물, 남조류, 분해를 담당하는 미생물 등이 있음. 1차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1, 2차 소비자로는 어류, 곤충 등이 있으며 2, 3차 소비자로는 어류, 조류, 동물이 존재함. 하위 생태계의 생물들은 상위생물들의 먹이로 순환하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생태계는 개발 등의 명목으로 최상위 포식자는 사람에 의해 파괴되기도 하고 외래식물등 기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에 의해서 생태계가 훼손되기도 함.
- 하천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다양한 기능을 감안하면 하천의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하천 생태계의 파괴의 영향은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임.

(3) 하천의 기능

- 하천의 기능은 크게 자연적 기능과 인공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음.
 - 자연적 기능으로는 우선 물고기, 조류, 수생식물 등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고 생물이 이동하는 생태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하천은 물의 흐름에 따른 운반기능을 통하여 상류의 자갈에서 하류의 모래까지 여과작용을 하여 수질을 정화시킴. 물이 태양열을 흡수함으로써 생태계를 통한 수질 자정기능 또한 작동함.
 - 하천에 사는 수생식물들은 하천내 오염물질을 분해하여 흡수하는 동시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함. 천변의 나무나 풀도 광합성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함.
 - 인공적 기능으로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이용하도록 하는 점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제공하여 정서적으로 만족을 주는 심미적 효과를 들 수 있음. 또 물놀이나 낚시 등 여가활동 장소로의 인공적 기능도 있음.

(4) 도시하천의 특성

- 하천은 주변 토지이용이나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산지하천, 농촌하천, 도시하천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하천의 주요 기능이나 역할에서 차이를 보임. 이 중 도시하천은 명칭 그대로 도시 내에 있는 하천을 말함.
- 도시하천은 도시 내를 흐르는 하천으로 도시의 기능이나 개발 또는 발전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음.
- 도시하천의 형태는 대체로 일반하천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개발로 하천유역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폭을 줄이고 직강화하기 때문임. 이로 인해 하천의 저류기능이 약화되고 유속이 빨라져 평상시에는 건천화가 진행되어 수량이 줄고, 반대로 집중 호우시에는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또한 빗물을 흡수하던 유역 내의 지표면이 대부분 인공으로 포장됨에 따라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불투수층이 늘어나 평상시 적은 수량을 유지 할 수 밖에 없으며, 우천 시에는 종종 생활 오폐수가 유입되어 수질 악화,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서울에서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교통난을 해소하고 천변에 난립한 무허가 주택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청계천을 필두로 대부분의 하천이 복개 되기 시작하였음. 하천의 경우 대부분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용 시 토지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민간과의 별도 협의과정이 대폭 축소되어 공사기간 단축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임.
- 일부 복개된 하천 위로는 고가도로를 설치하거나, 하천을 완전히 복개하여 주로 도로나 주차장으로 활용 또는 복개 상가를 건설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해왔음. 그러나 하천의 복개로 인하여 하천은 하천 본래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고 생활하수나 오·폐수를 방류하는 도시의 하수구로 전락함.
-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질오염의 원인인 복개 하천을 개수 복원하여 하천의 생태계를 살리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었음.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서 하천을 재정비 하고, 다양한 수변문화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로 바꾸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2003년 청계고가도로 철거로부터 시작된 하천복원은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진행 중임. 도림천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복개천이 복원 또는 부분 복원되고 있으며, 천변으로는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등 새로운 하천은 시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 서울 안에 있는 하천은 모두 35개로 국가하천으로는 한강, 중랑천, 안양천 3개가 있고 지방1급하천으로는 청계천이 있음. 도림천을 포함한 나머지 31개의 하천은 모두 지방2급하천임.

(5) 도시하천의 일반적 구조

- 도시하천의 일반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평상시에도 물이 흐르는 복단면으로 정비된 하천의 하도를 저수로(低水路)라 하고, 저수로의 비탈면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제방을 저수호안(低水護岸)이라 함. 그 제방 안쪽으로 하도 양안에 상대적으로 높고 평탄한 충적지, 홍수터를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부르는 용어가 고수부지임.
- 현재 도림천 변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이 설치되어 친수공간으로 활용되는 구역이 바로 고수부지이며, 본래 저수로와 함께 물길의 일부로 설계된 곳임. 따라서 고수부지 공간을 활용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할 때에, 당초 물길로 설계된 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도림천 기초현황

(1) 개요

- 도림천은 관악산(삼성산)에서 발원하여 신정교 부근에서 한강의 제1지류인 안양천으로 합류하며 지방2급하천으로 분류·관리 되고 있음.
- 유역면적은 41.93km², 유로연장은 14.20km(영등포 내 유로연장 4.04km)인 안양천의 제1지류이자 한강의 제2지류임. 지방2급하천 규모로는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까지 총 4개 자치구에 걸쳐 흐르는 점이 독특한 하천임. 영등포구 내에서는 상류로부터 대림2동, 대림3동, 도림동, 문래동까지 총 4개 동을 거쳐 안양천과 합류함.
- 도림천은 관악구 신림동 지역을 통과하여 보라매 공원 부근 우안으로 봉천천(신림동에서 발원하여 신림동 통과, 유역면적 13.54km², 유로연장 14,20km)과 합류하며, 봉천천과 합류한 도림천은 남서쪽으로 굽어져 흐르다가 구로디지털단지지역 인근에서 다시 북서쪽으로 꺾어져 신도림교 부근에서 대방천(상도동에서 발원하여 신대방동, 대림동 통과, 유역면적 8.32km², 유로연장 6.71km)과 합류함. 대방천과 합류한 도림천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본류인 안양천 우안으로 합류함.

<그림 1> 도림천 유역도 (정승권·김남일·이길성, 2006)



<표 2> 도림천 및 주요하천

하천명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제3지류	하천 등급	기점	종점
도림천	한강	안양천	도림천		지방	신림 808-126번지선	문래 안양천 합류점
봉천천	한강	안양천	도림천	봉천천	지방	봉천 239-15번지	신림 도림천 합류점
대방천	한강	안양천	도림천	대방천	지방	상도 34-43번지	도림 도림천 합류점
안양천	한강	안양천			국가	경기 안양 경부본선철교	한강 합류점

출처: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https://www.river.go.kr>)

(2) 도림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 도림천의 수질은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에 기대어 보았을 때, 대체로 I b(좋음) 등급을 만족하나 2021년 1~10월 분원성대장균군 수의 평균이 10,780에 달하고 총대장균군 수의 평균은 20,370으로 등급 외 수준임. 도심 하천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유입되는 생활하수의 양이 많은 등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측정 지점이 사업대상지의 상류인 보라매공원 인근이기에 실제 사업대상지 내 환경은 측정치보다 열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표 3> 도림천의 수질측정 정보

연도	수온 (°C)	DO (mg/L)	BOD (mg/L)	COD (mg/L)	SS (mg/L)	TN (mg/L)	TP (mg/L)	TOC (mg/L)
2017	12.9	11.5	1.2	3.2	2.1	3.788	0.032	2.1
2018	13.9	10.4	1.6	3.0	2.1	3.388	0.059	2.2
2019	14.3	13.4	1.7	3.3	2.4	3.426	0.063	2.3
2020	13.9	12.2	1.0	2.7	2.3	3.112	0.039	1.8
2021	15.0	10.7	1.5	3.5	3.2	3.380	0.085	2.2

출처: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

- 한편 도림천 수생태계의 생물측정 결과는 <표4>와 같이 나타남(‘도림천’ 지점은 동작구 신대방동이며 ‘도림천1’ 지점은 구로구 신도림동). 부착돌말류의 경우 물 속에서 돌 등에 부착하여 사는 식물 플랑크톤으로 하천 생태계의 1차 생산자임. 2018년에 신도림동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는 1, 2차 모두 C등급(보통)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신대방동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는 1, 2차 각각 D등급(나쁨), E등급(매우 나쁨)으로 더 열악하였음.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은 주로 하천 바닥에 서식하는 생물

로 눈으로 식별 가능하며 척추가 없는 동물인 다슬기, 실지렁이 등으로 하천 생태계의 1~2차 소비자임. 2018년 신도림동 지점에서는 1, 2차 모두 E등급, 2019년 신대방동 지점에서는 1, 2차 각각 D등급, B등급(좋은)으로 측정되었음. 어류의 경우에는 2018년 신도림동 지점에서는 1, 2차 모두 E등급, 2019년 신대방동 지점에서는 1, 2차 모두 C등급으로 확인되었음.

- 수변에서 살아가는 식물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수변식생의 경우에는 2019년 신대방동 지점에서는 D등급, 신도림동 지점에서는 C등급으로 나타났음. 도림천에 사는 생물의 서식 및 수변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2018년 신도림동 지점, 2019년 신대방동 지점에서의 측정 결과가 모두 D등급으로 나타났음.
- <표 3>에서 도림천의 수질측정 정보가 2018년, 2019년과 2021년의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현재 도림천의 수생태계 생물 건강성은 양호한 편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 도림천 수생태계 생물측정 정보

연도	회차	지점	구분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서식 및 수변환경	수변식생
2018	1	도림천	C	E	E	D	-
	2	(신도림동)	C	E	E	-	-
2019	1	도림천	D	D	C	D	D
	1	(신대방동)	-	-	-	-	C
2019	2	도림천	E	B	C	-	-

출처: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

(3) 도림천의 건천화

- 도시하천은 상수도 사용량 증가, 하수 별도 처리로 인한 하천수 감소, 하천 직강화, 도로 및 둔치 포장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 등으로 인해 점차 건천화되고 있음. 역시 건천화가 진행되어 수질 저하, 악취 발생, 경관 저해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여름 장마철에는 홍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도림천은 과거 복개되었다 다시 복원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도로와 지하철2호선 교각으로 가려져 반복개 상태라 할 수 있음.

- 도림천의 건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나 생활하수 유입 등 악취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대 입구 부근에 6만 5천 톤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하여 하천의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동방1교 부근에서 지하수 3만 톤, 구로공단에 공급하던 공업용수관을 활용하여 한강 물 1만 6천 톤, 대림역 부근에서 지하용수 3천 톤을 방류하고 있음.

2. 사업대상지 일반현황

- ‘도림천 생태극장’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될 본 조사 사업의 대상지는 대림역 5번 출구에서 대림동 646-1번지 하부까지로 약 1km 정도임. 사업대상지는 크게 대림역 5번 출구에서 거리공원오거리 교량 하부까지의 1구간과 거리공원오거리 교량 하부에서 다시 대림동 646-1번지까지의 2구간까지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음.
- 사업대상지는 다시 특성에 따라 네 개의 공간 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우선 생태적 의미를 가지는 하천 내부에서 출발하여, 둘째로 고수부지 공간, 셋째로는 도림천로 도로 하부, 마지막으로 대림역, 거리공원오거리, 대림동 646-1번지 중 교차로에 위치한 교각의 하부를 들 수 있음.
- 모든 구간에는 하천에 인접한 고수부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도림천로 아래 공간을 활용하여 자전거길이 만들어져 있음. 1구간에서는 지하철 2호선이 하천 위로 지나기 때문에 하천 내부에 교각이 일정 간격으로 세워져 있으며, 상부에 철로가 놓인 다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천 부분에 빛 가림이 있음. 그에 반해 2구간에서는 지하철 2호선이 구로구 방면으로 비껴가기 때문에 하천 위로 탁 트인 풍경을 만날 수 있음.
- 사업대상지 내 하천은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매우 얇은 편이며, 때때로 바닥이 드러나는 구간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생태적 보존의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는 없음. 또한 구역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생태가 도림천의 다른 구간과 분리되기 어려움. 다만 도심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친수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서식하는 동식물 특히 조류 등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있다는 점이 조사를 통해 확인 되었음.
- 한편 사업대상지역 내 진출입로는 대림역 5번 출구 인근, 거리공원오거리 교량 인근, 대림동 646-1번지 내 교량 인근까지 세 곳에 설치되어 있음. 진출입로는 계단형 또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휠체어 등 접근은 어려움. 구간 내 징검다리는 3개

로 파악되나 2021년 9월 현재 추가 설치 또는 공사 중임. 시민 휴게 공간으로는 대림역 인근 도림천 하부에 유일하게 벤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함. 사업대상지 내에 기타 운동시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없음.

1) 하천 내부

- 사업대상지역 내 하천의 환경은 거리공원오거리 교량을 기준으로 대림역 방향을 상류, 신도림역 방향을 하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가장 큰 차이는 하천 중앙에 지하철 2호선 철교가 지나는가 여부로 상류의 경우에는 철교와 지하철 통행으로 인해 일조량, 소음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
- 그에 비해 하류 부분은 상부에 가려지는 구간이 없고 수심도 상류에 비해 깊어져 어류 등이 서식하기에 비교적 양호한 환경임. 다만 상류의 경우 철교를 지지하는 교각이 있어 오히려 조류 등 동물이 쉬거나 숨기에 용이한 부분이 있음. 차후 도림천 하천 내부에 수변깎리리, 그린쉘터가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 시 상류와 하류 구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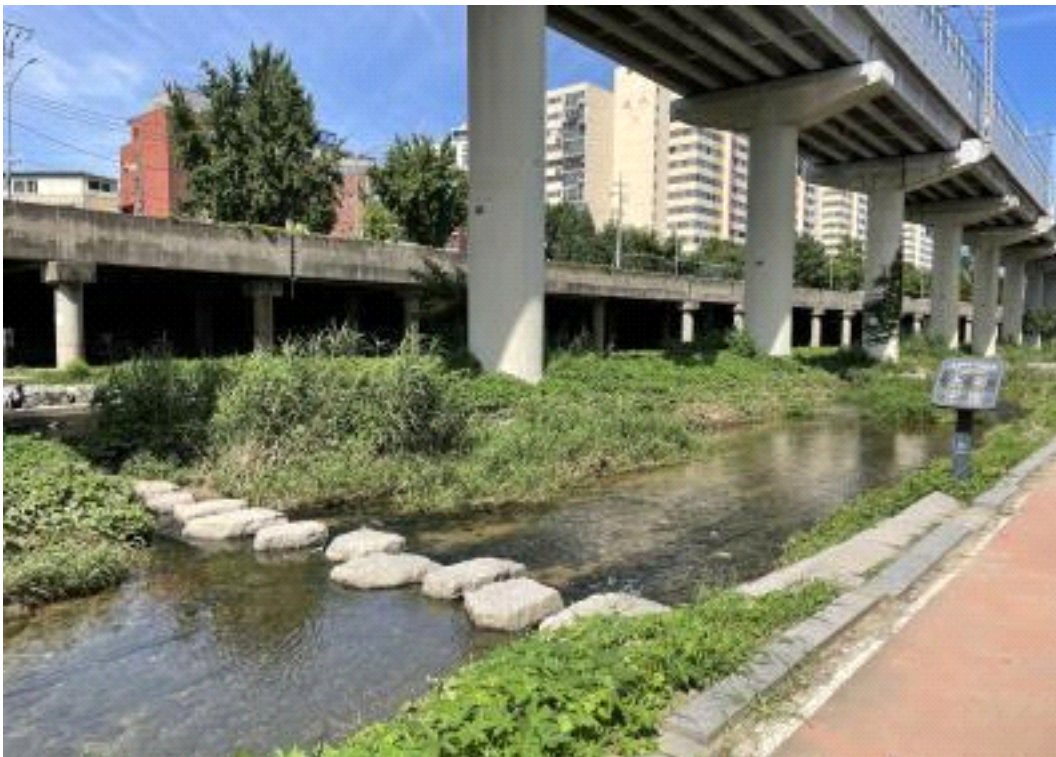
<그림 2> 대림역 하부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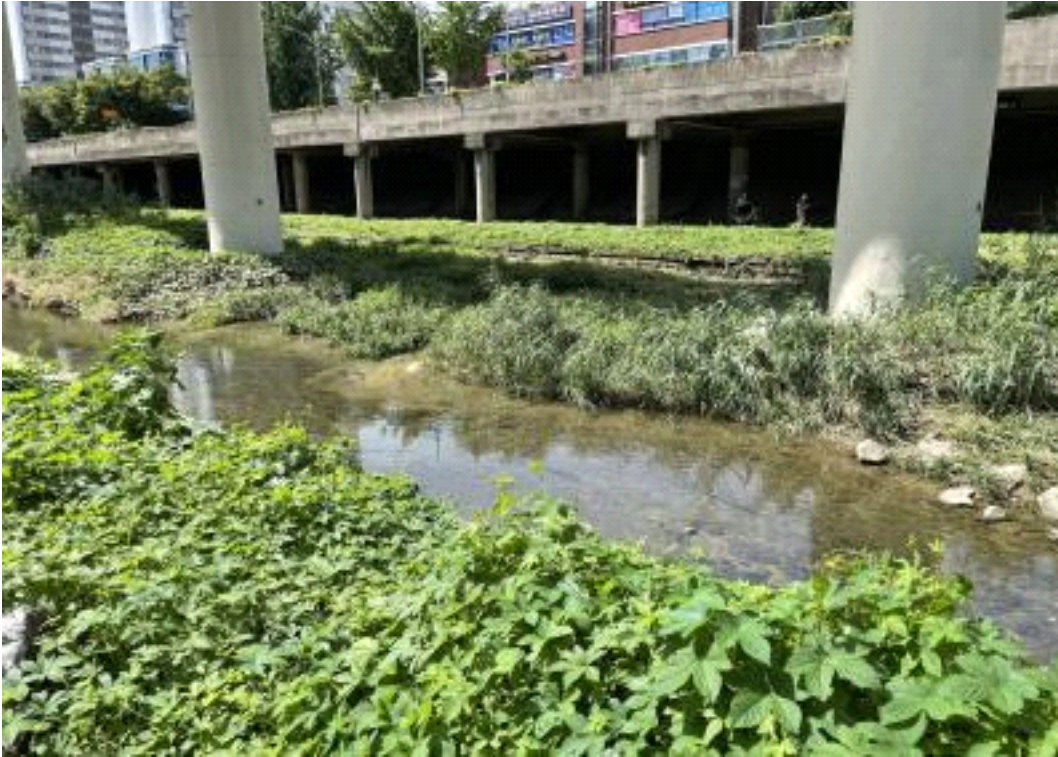
<그림 3> 1구간(대림역-거리공원오거리) 내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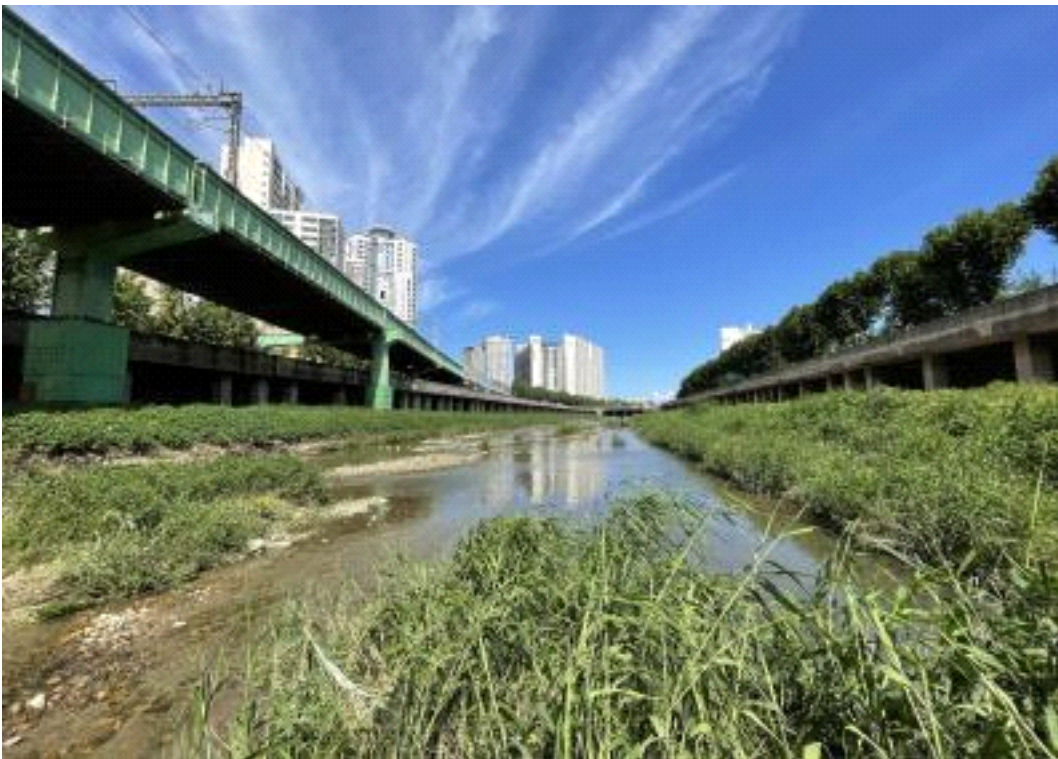
<그림 4> 1구간(대림역-거리공원오거리) 내 하천



<그림 5> 1구간(대림역-거리공원오거리) 내 하천



<그림 6> 2구간(거리공원오거리-대림동 646-1번지) 내 하천



<그림 7> 2구간(거리공원오거리-대림동 646-1번지) 내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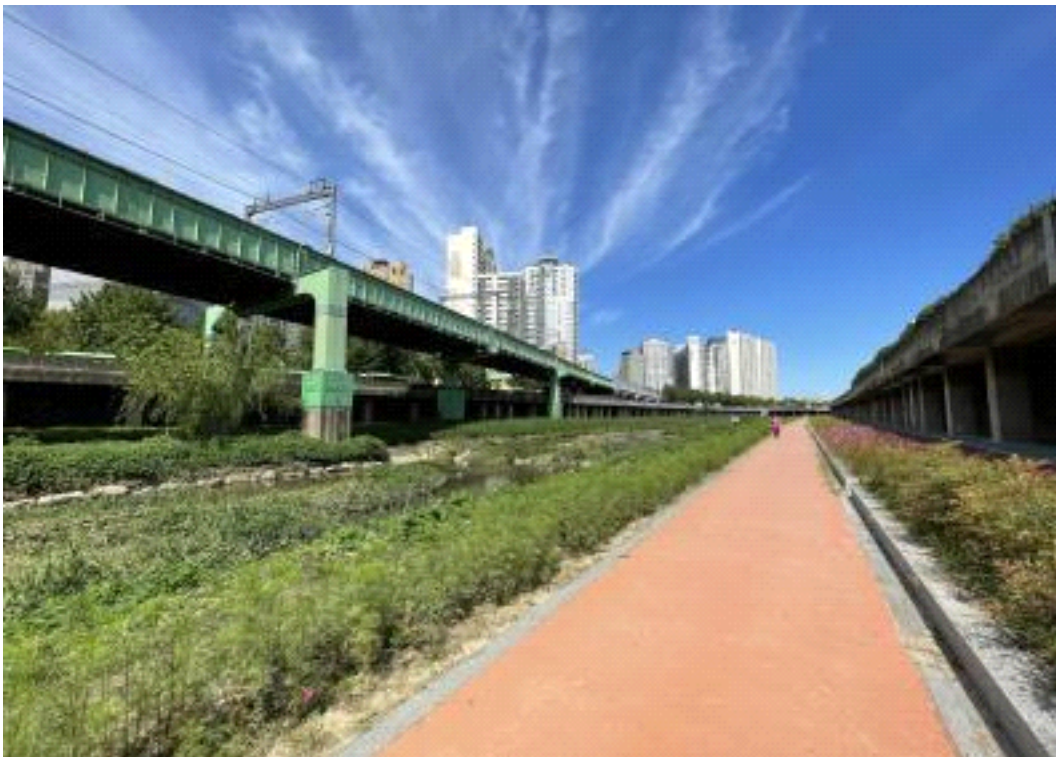
2) 고수부지

- 도림천로 하부를 제외한 고수부지 구역은 하천에 가까운 노지 부분과 산책로로 나눌 수 있음. 노지 부분에는 야생화 등 초본류가 주로 자라는데 5~9월에는 환삼덩굴이 매우 활발하게 식생하여 구역을 뒤덮음. 거리공원오거리에서 대림동 646-1번지 사이에는 산책로와 자전거길 사이에 장미 화단이 조성되어 있음.
- 2021년 영등포구청에서는 도림천 생태복원 및 녹화를 위하여 도림천변 고수부지를 따라 대왕참나무 식재를 진행 중임. 도림로 하부의 자전거길과 달리 산책로에는 별도의 휴식공간이나 그늘막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시민이 나무 식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음.
- 고수부지 구간의 산책로는 지역 주민과 도림천의 접점이 가장 큰 구역임. 하천 내부에 진입하는 시민은 많지 않고, 도림로 하부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통과하는 길로 이용되는 경향이 큰 데에 반해 산책로를 걷는 주민은 바로 옆으로 흐르는 도림천과 마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임. 따라서 다양한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걷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등 산책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구상되는 것도 바람직함.

<그림 8> 1구간(대림역-거리공원오거리) 고수부지



<그림 9> 2구간(거리공원오거리-대림동 646-1번지) 고수부지



<그림 10> 2구간(거리공원오거리-대림동 646-1번지) 고수부지



3) 도림천로 하부

- 도림천로 하부는 자전거길과 일부 휴식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도림천을 따라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주민이 있고, 도림천을 주민이 도림천로가 지붕 역할을 하여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책하는 주민들도 종종 자전거길 안 쪽을 활용함. 반포대교 남단에서 출발하여 한강, 탄천, 안양을 지나 광명으로 올라와 안양천에서 한강으로 다시 돌아가는 구간, 일명 ‘하트 코스’라는 자전거 라이딩 코스가 유명하여 도림천을 자전거로 지나는 시민도 많음.
- 또한 도림천로 하부를 제외한 고수부지 구간에는 그늘막이 거의 없고 충분한 공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구간 중 도림천을 찾는 시민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는 도림천로 하부 공간에 설치 되어 있음. 사업대상지에는 없으나 도림천의 다른 구간에는 가벼운 운동시설 역시 도림천 하부 공간에 자리하고 있음.
- 반면 도림천로가 햇빛이나 조명을 가리고 교각으로 야외와 구분지어지기 때문에 야간뿐 아니라 주간에도 어두워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공간이기도 함. 이 점이 지역 주민이 도림천을 자주 찾지 않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 된다는 것을 사업 진행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11> 대림역 인근 벤치설치 구간 (2021.9. 현재 코로나19로 폐쇄)



<그림 12> 2구간(거리공원오거리-대림동 646-1번지) 도림천로 하부



4) 교량 하부

- 사업대상지 내 교량은 총 3개로 대림역 5번 출구 인근 교량, 거리공원오거리 교량, 대림동 646-1번지 내 교량임. 세 다리 모두 명명되지 않은 무명교이며, 거리공원오거리 교량과 대림동 646-1번지 내 교량은 하부가 넓고 하천 중앙부에 기단이 있어 색소폰을 연주하거나 대본을 읽는 등 시민의 생활예술 활동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음.
- 교량과 도림천로가 교차하며 도림천을 끼고 하나의 공간이 발생하는 곳으로 주간에 다른 구역보다 더 어둡고 서늘한 편임. 차후 생태극장 등 프로젝트를 이 공간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도림천 구간 중 비교적 넓은 터를 확보할 수 있고, 나지막한 물 위로 교각이 늘어서 있는 독특한 경관을 보유하며, 내부 공간에 소리가 울려퍼지는 등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세 개의 교량이 모두 무명교인데,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다리에 이름을 붙일 경우, 이용하는 시민들이 삭막한 교량을 더 친근하게 느끼고 이정표로 삼아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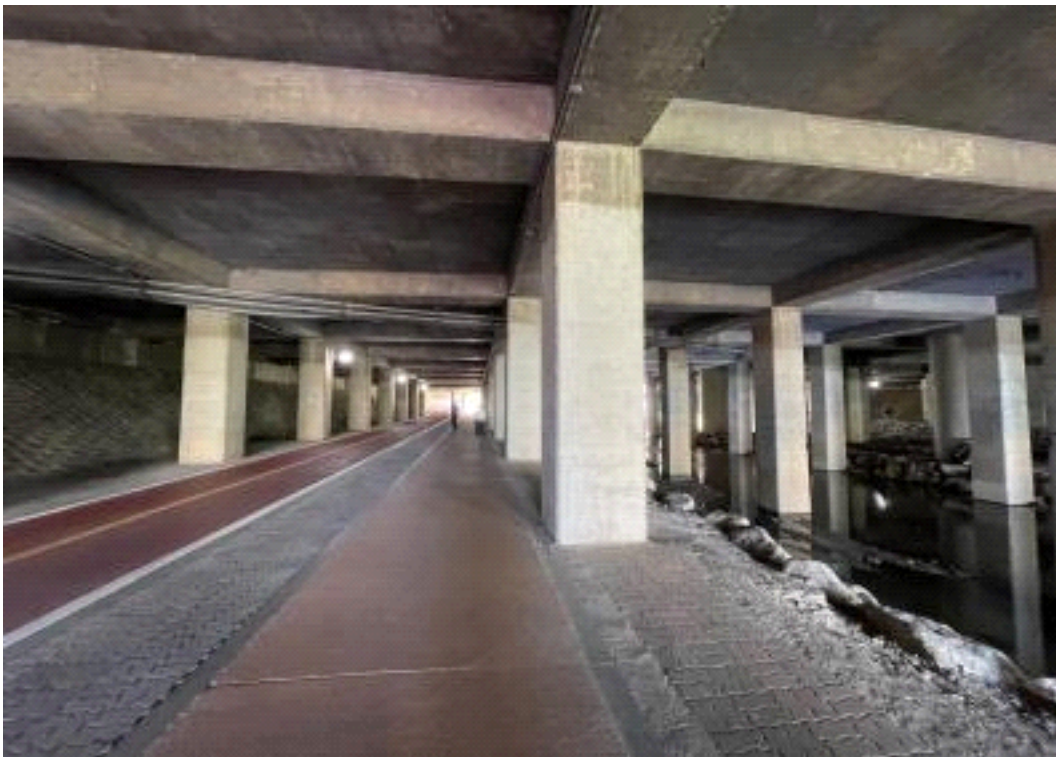
<그림 13> 대림역 5번 출구 인근 교량 하부



<그림 14> 거리공원오거리 교량 하부



<그림 15> 거리공원오거리 교량 하부



<그림 16> 대림동 646-1 내 교량 하부



3. 도림천 인근 지역 현황

1) 행정구역 현황

- 도림천은 관악구에서 발원하여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를 지나 안양천으로 합류함. 본 연구의 대상지는 우안은 영등포구 대림3동과 좌안은 구로구 구로4동 및 구로5동과 면하여 있음. 영등포 내 인근지역으로는 대림2동, 도림동, 문래동을 포함할 수 있음. 영등포구 전체 면적은 24.55km²이며 구내 도림천 권역에 해당하는 대림2동, 대림3동, 도림동, 문래동의 면적의 합은 3.88km²로 전체의 15.8%에 해당함.

2) 인구 현황

- 영등포의 2019년 기준 총인구는 40만986명, 17만4,806세대로 내·외국인 인구가 모두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와 비율은 증가하며 세대 수 역시 늘어나고 있음. 2016년 2.24명이었던 세대당 인구수는 매년 줄어들어 2019년에는 2.1명으로 나타남.

<표 5> 영등포구 세대 및 인구 추이

(단위: 세대, 명, %)

구분	세대	인구			외국인		65세 이상 고령자	
		계	남	여		비율		비율
2014	168,100	421,436	212,261	209,175	39,084	9.3%	49,829	11.8%
2015	167,863	417,811	210,388	207,423	39,307	9.4%	51,481	12.3%
2016	165,729	406,779	204,712	202,067	36,166	8.9%	51,844	12.7%
2017	167,355	402,024	202,400	199,624	33,474	8.3%	53,981	13.4%
2018	171,085	403,600	203,319	200,281	35,822	8.9%	55,673	13.8%
2019	174,806	400,986	200,986	200,000	33,308	8.3%	57,872	14.4%

자료: 제35회 영등포통계연보

- 사업대상지 인근 도림천 권역의 대림2동, 대림3동, 도림동, 문래동 총 4개동의 2019년 인구 현황은 <표 6>과 같음. 대림2동과 도림동의 외국인 비율은 각각 40.7%, 42.7%로 매우 높으며 대림3동 역시 17.1%로 영등포구 평균 8.3%의 2배 이상인 점이 특징적임. 인구와 세대수는 모두 문래동이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도림동, 평균연령은 대림2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6> 사업대상지 인근지역 인구 현황(2019년)

(단위: 세대, 명, %, 세)

구분	세대	인구	외국인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당 인구수	평균연령
				비율		비율		
대림2동	6,840	21,370	8,697	40.7	2,870	13.4	1.85	46.9
대림3동	10,460	28,638	4,908	17.1	4,107	14.3	2.27	44.8
도림동	9,291	21,552	9,207	42.7	3,285	15.2	2.01	44.3
문래동	12,463	31,963	228	0.7	4,393	13.7	2.55	40.5

자료: 제35회 영등포통계연보

3) 사회문화 및 경제

- 우안 영등포구 구역에는 천변 상부를 지나는 도림천로와 접하여 아파트, 빌라 등 주거지역이 주로 형성되어 있음. 사업대상지 천변으로부터 500m 이내에 서울신영초등학교, 영남중학교 등 학교 2곳과 YDP미래평생학습관, 맘든든센터 6호점, 두날개지

역아동센터 등 기관이 있음. 또한 거리공원오거리 인근에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테니스장을 보유한 대림운동장이 자리하며 사업대상지의 신도림역 방면으로는 영등포 생태공원, 대림도서관이 있음.

- 좌안 구로구 구역에는 도림천과 접하여 아파트가 주로 들어서 있으며, 그 뒤로 빌라 등이 이어져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음. 도림천 사업대상 구간으로부터 500m 이내에 서울동구로초등학교, 영림중학교, 구로고등학교, 서울신구로초등학교 등 4개 학교와 구로도서관, 구로구민회관,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등 시설과 거리공원, 구로근린공원이 자리하고 있음.
- 영등포 내 산업별 사업체는 2019년 기준 전체 42,589개 중 도매 및 소매업이 11,068개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6,897개, 운수업 및 창고업이 4,164개, 제조업이 3,957개로 뒤를 이음. 동별로는 여의동과 영등포동이 각각 8,032개, 6,147개로 많으며, 도림천 인근 지역에서는 문래동 5,281개로 가장 많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대림3동이 2,714개로 뒤를 이음. 동별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영등포구 전체 163개 중 58개가 문래동에 자리한다는 점이 특징적임(영등포구, 2020).

4) 생태 관련 지표

- 한편 영등포구 녹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9년까지 녹지의 전체 개소가 258개에서 401개, 면적은 697,359㎡에서 774,430㎡로 증대하였으며 하천변조경은 4개소에서 6개소로 2개소 증가하고 56,765㎡에서 64,765㎡로 8,000㎡ 확대되었음(영등포구, 2020).
- 영등포구의 동·식물 생육환경과 관련하여 2019년 연 평균기온은 14.6℃이며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로 28.0℃, 가장 낮은 달은 1월로 0.5℃임. 또한 최고기온은 8월에 38.2℃, 최저기온은 12월에 -9.6℃로 나타났음.

<표 7> 영등포구 월별 기온 추이(2019년)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기온	0.5	2.2	8.0	13.1	20.2	23.3	26.5	28.0	23.7	17.7	9.1	2.8
최저기온	-8.1	-9.2	0.7	2.7	11.0	15.7	19.9	18.8	15.7	8.4	-1.1	-9.6
최고기온	9.1	14.4	17.9	28.5	33.9	33.0	35.8	38.2	31.4	29.3	21.5	13.8

자료: 제35회 영등포통계연보

- 장마와 태풍이 이어지는 8월의 강수량은 각각 214mm인 데에 반해 2월에는 2mm에 그쳐, 도시하천으로 건천의 성격을 가지는 도림천의 연중 하천 유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줌.

<표 8> 영등포구 월별 일기일수 및 합계강수량(2019년)

(단위: 일, mm)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기일수 (강수)	-	1	5	9	3	10	12	13	8	4	7	10
합계강수량	-	2.0	29.0	37.5	27.5	86.0	198.5	214.0	191.0	45.5	84.5	19.0

자료: 제35회 영등포통계연보

4. 도림천 및 권역의 역사

1) 명칭의 유래

(1) 고유명이 없었던 무명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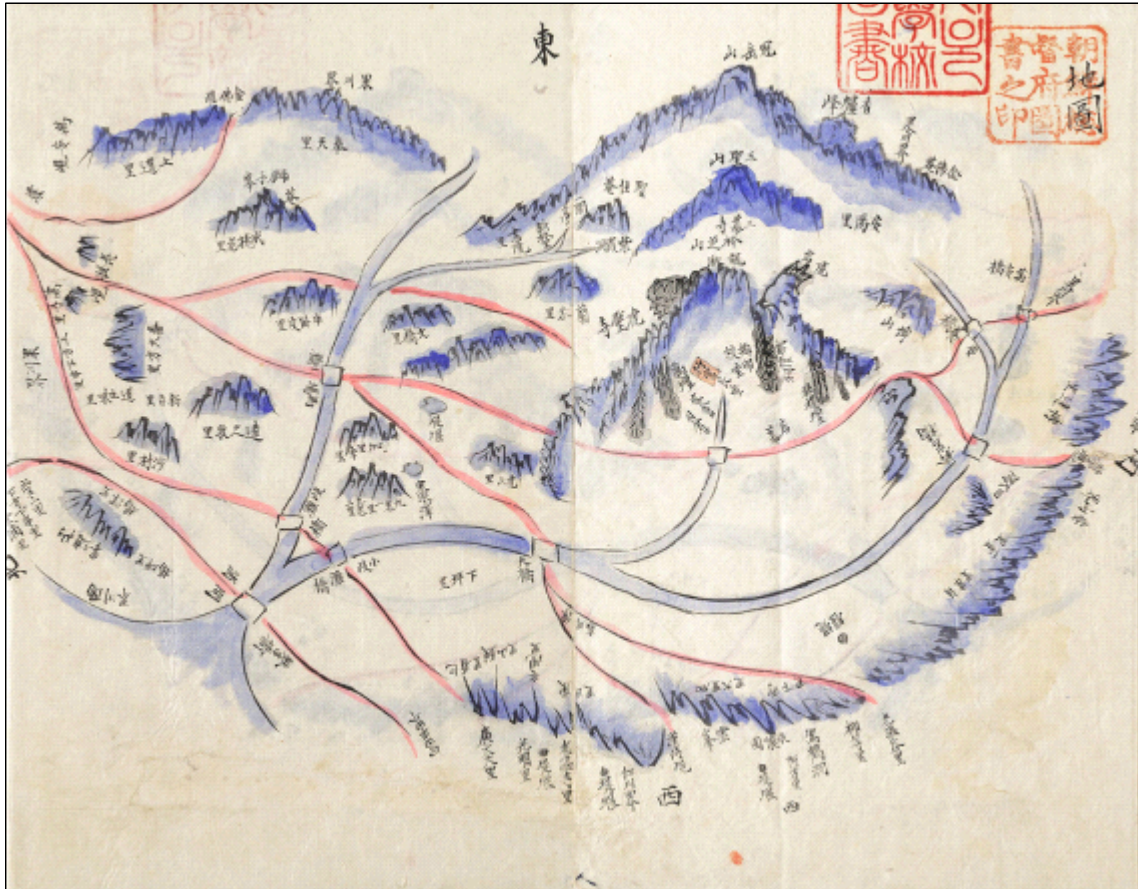
- 도림천은 관악산 줄기인 삼성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에 합류하는 현재 서울의 지천 중 가장 긴 하천임. 조선시대 당시 한성부의 관할구역은 도성 내와 성저(城低:도성 밖) 10리까지로 되어 있었으며, 도성 내에도 있는 많은 실지천들이 있었으나 청계천 본류만이 고유명을 가졌을 뿐 나머지 지류들은 고유명이 없었음.
- 도림천 역시 언급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저십리 밖의 이름 없는 자연하천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2) 옛 지도 등으로 본 천명(川名)

가. 마장천

- 고유 하천명이 없던 현재의 도림천이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99년에 편찬된 『시흥군읍지(始興郡邑誌)』 지도임. 이 지도에는 현재 대림동지역이 원지목리(遠之牧里)로 표기되어 있고 원지목리 근처에 하천을 건너는 다리인 마장천교(馬場川橋)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 마장천교는 지도에 표시된 위치로 보아 신대방동에서 도림천을 지나 구로동으로 건너가는 다리로 지금의 구로1교 부근일 것으로 추정됨.

<그림 17> 『시흥군읍지(始興郡邑誌)』 지도



- 마장(馬場)은 말 목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리명이 ‘마장교’로 표기된 연유를 찾아 보면, 세종 7년 8월 22일 자 『세종실록』에 “금천(현재의 영등포, 구로구 일원)은 작은 고을인데 목장이 둘이나 있다.”라는 기록과 말이 목장에서 탈출하여 곡식을 뜯어 먹어 피해가 크다는 상소도 올라오곤 했다고 기록이 전해짐.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금천현에 목장이 둘 있는데 하나는 달촌(達村)이고, 달촌은 현의 북쪽에 있고, 둘레가 12리이니 국마(國馬)를 기른다. 둘은 사외포(沙外浦)인데 사외포는 현의 서북쪽에 있고, 양천의 사곶포(寺串浦) 목장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둘레가 15리이니 우군(友軍)의 목장이다.”라고 기록되어있음. 다만 이 마장이 언제 없어졌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
- 여기에서 달촌이라는 지명은 위치나 지형으로 보아 원지목리라는 마을과 연계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기록과 원지목리 한자의 뜻으로부터 목장이 있었던 마을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
- 마장의 흔적은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문창국민학교 교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

음. “바라보니 관악산 줄기찬 모습/굽어보면 ‘마장개’ 자유의 노래/이 고장을 빛내리
배움의 동산/자라나는 새싹들은 우리 문창교 ...”(현재 문창초등학교 교가 가사는 개
사 됨)

나. 사촌천

- 경부선이 신도림에서 영등포로 진입하면서 통과하는 도림천 위 다리를 사촌천교(沙村川橋)라 부름. 사촌리(沙村里)는 모래마을이라는 의미로 1899년에 편찬된 『시흥군읍지(始興郡邑誌)』의 지도를 보면 지금의 문래동, 도림동 지역의 마을지명이 사촌리로 표기 되어 있음.
- 경부철도가 1901년 착공되어 1905년 완공될 시기에 도림천은 사촌천(沙村川:모래 마을에 있는 개천)이므로 불리고 있어, 당시 도림천을 지나는 다리 이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3) 도림천 명칭의 등장

- 특별한 고유 명칭이 없던 도림천이 주변 땅의 이용 용도나 하천풍경 등에 따라 마 장천, 사촌천으로 불리다가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인근 지역의 행정명칭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조선 후기 도림천 인근 마을은 금천현 원지목리에서 시흥군 도림리로 명명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도림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해방 후 1946년에는 도림동으로 행정 구역명이 변경되면서 하천명 역시 도림천으로 바뀜
- 1971년 하천법이 제정되면서 지방2급 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음.

2) 도림천의 변화

- 1960년대 이전 도림천은 경관이 수려하고 수량이 풍부한 자연하천이었음. 그러나 1963년 도심지 불량주택 철거민과 수재로 인한 이주민의 유입이 계속되면서, 하천 변에 주택군이 형성되었고 하천구역은 점점 축소되었음.
- 1970년대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관악로와 신림로가 확장되면서 하천복개가 시작되었음. 이때 도림천은 부분 복개 또는 완전 복개되는 등 자연하천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훼손되었음. 더 욱이 1984년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라 하천 중앙에 지하철 노선이 위치하여 하천

본래의 모습이 거의 상실되었음.

- 그러나 2008년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산책로, 나무식재 등 하천 및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하여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으며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음.

3) 도림천 권역의 역사 및 변화

(1) 옛 지명을 통해 본 도림천변 마을 및 자연환경

- 지명은 그 지역의 특징적인 옛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좋은 재료임. 구전으로 내려오는 옛 지명은 대부분 그 지역의 지형, 위치, 기후, 규모 등 자연지리와 풍수, 상징적 자연관, 경관 등 인문지리, 역사, 생태환경, 민속, 산업, 유적, 유물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음. 옛 지명에 대해서는 『동명연혁고 X(영등포구편)』와 『영등포 근대100년사』를 참조, 정리하여 구성하였음.

가. 대림동 지역

- 대림1동 824번지 일대에는 과거 과수원이 있었기에 ‘원지막’으로 불렸으며, 과거 과수원이 많았다는 지역 특성을 살려 2011년도부터 매년 주민화합을 위한 조롱박, 수세미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음.
- 대림1동 903-52번지에서 903-35번지 주변으로는 학 형상을 한 지형이 있어 ‘통말’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대림2동 834-12번지에서 1033-2번지 주변으로는 시냇물이 흘렀다 하여 ‘ 시내길’, 대림3동 719-2번지에서 711번지 주변으로는 은빛 같은 모래가 많이 있었다 하여 ‘은모래길’이라고 불렸음.

나. 도림동 지역

- 도림동 지역은 이 지역에 오래 거주한 원주민들에 의해 지역에 따라 모랫말, 돼지마을, 주막거리, 원지막 등으로 아직도 불리워지고 있음. 모랫말은 도림천가에 있던 마을로 모래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돼지마을은 현 도림2동 156번지 일대로 이곳에서 돼지를 많이 길러 붙여진 이름임. 또한 현 도림2동 186번지 일대는 주막거리라 불리는데 이 지역이 인천으로 가는 길목으로 밤이 되면 도둑이 심해 이 주막거리에서 여장을 풀고 하룻밤을 묵어 간 데에서 유래한 명칭임.
- 또한 도림동 141번지 일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닭장골목, 영등포동과 도림1동사

이에 있는 고개는 겨울에는 고추처럼 매운 바람이 분다고 하여 고추말고개로, 139번지에는 벼락이 떨어져 벼락제라 불렀음.

- 이밖에 토착민들은 이 지역을 거짚바탕이, 성모텡이, 수구물고개, 아랫말, 옷말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함.

다. 문래동 지역

- 문래동4가 일대에는 일본이 1940년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조성한 대단위 영단주택이 500채 정도 남아있는데 이 일대를 ‘오백채’ 또는 영단주택이라 부름.
- 문래동4가 오백채의 서쪽 지점은 ‘긴 밭’이라 불렀고 옛 동양방직 서쪽은 ‘마루밭’으로, 문래동2가의 오목교근처 밭 지대는 ‘강깨밭’이라 불렀음.

(2) 대림동

가. 동명의 유래

- 조선 말기 대림동은 경기도 시흥군 상북면 원지목리였으나 일제 강점기에 부, 군 통합에 따라 시흥군 도림리가 되었음. 1949년 서울시 행정구역확장에 따라 경기도 시흥군 동면 구로리, 도림리, 반대방리를 영등포구로 편입하면서 각각의 법정동명을 구로동, 신도림동, 신대방동으로 변경하고 이를 관할 하는 행정동인 대림동을 설치함. 이때 신대방동의 대(大)자와 신도림동의 임(林)자를 따서 행정동 명을 대림동(大林洞)이라 정하였음.
- 1977년 신도림동이 도림천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은 대림동으로 서쪽 지역은 신도림동으로 재편되어 법정동이 됨. 1980년 영등포구에서 구로구가 분구되면서 신도림동은 구로구에 편입됨.

나. 대림동의 변천

- 1960년대 이전의 도림천, 대방촌은 물이 충분히 흘러 수변생태가 양호한 곳으로 그 사이에 위치한 대림동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 알맞아 채소밭이 많은 지역이었음.
- 대림동에 본격적으로 주택군이 형성된 것은 1963년 이후로, 당시 도심 지역의 불량주택 철거가 진행되어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했던 주민들과 수재민이 도림천 변에 집을 짓고 살면서부터임. 다만 현재 도림천 역시 장마철에는 유량의 변화가 심하여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듯이 당시에 도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

가 되는 지역이라 거주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산이 없고 편평한 저습 지대가 대부분인 영등포에서 비교적 낮은 구릉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영등포의 배후 주거지역의 역할을 해왔음.

○ 현재의 대림동은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대림1동은 신길로, 시흥대로, 도림로 등 도로가 잘 구축되어 있고 7호선 대림역과 신풍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편임. 도로변을 따라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주택가가 자리함. 지역 내에는 신대림초등학교와 대림중학교,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대학병원인 한남대 강남성심병원과 종합병원인 대림성모병원 등 교육복지 및 보건 시설이 많아 주거하기에 좋은 환경임.

- 대림1동에 1970년 개장한 대림시장은 건어물, 식기 등을 주로 취급하는 재래시장으로 한때는 서남권의 대표시장으로 점포 수만 200개가 넘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음. 그러나 주변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점포 수가 줄어 들고 상권이 죽어 2012년 시장부지가 경매에 들어가 폐쇄되었음. 또 지역 내에 위치한 ‘썸프라자’는 건축가 김종업의 작품으로 알려진 건물로 현재까지 실용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

- 대림2동은 도림천 너머로 구로디지털단지과 인접하였으며 지하철 2호선 대림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 도림로, 시흥대로가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거주지역으로의 이점이 있음. 또한 등록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이 40.7%로 매우 높으며, 동 내에 중국동포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림중앙시장을 비롯한 일명 ‘대림동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음. 한편 대림역 5번 출구 인근에는 주식회사 비와이씨(옛 백양) 본사 및 직영 매장이 크게 자리하는데, 2020년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라 BYC마트부지가 구역계에 편입되었음.

- 대림3동은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신도림역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거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동 내에 도림천변 산책로, 자전거길과 함께 대림운동장, 대림3유수지 등 체육시설이 다양하게 있으며, 이중 대림3유수지에는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2년에 착공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대림3동에는 1970년 이후 ‘서울 미원’과 ‘내쇼날 플라스틱’, ‘대신산업’이 있어 한때 지역경제에 기여 함. 상술한 바대로 이 지역은 본래 도림천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던 곳이었었는데 산업의 발달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음. 대림3동의 등록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17.1%로 인근 대림2동, 도림동에 비해서는 낮지만 영등포구 평균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음.

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 대림2동에 자리한 차이나타운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국인 거주지역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여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지역임. 중국동포들이 우리나라에 다수 들어오게 된 시점은 1992년 한중수교 수립 이후임.
- 중국동포들은 초기에 주로 구로구 가리봉동 지역에 정착하였는데 당시 가리봉동에는 구로공단 노동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시장, 일명 ‘별집’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임. 시간이 지나며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이었던 공단은 점차 IT 등 첨단산업의 집약지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2000년에 가리봉 및 구로공단 지역이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로 명명되며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음.
-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 구로공단에 위치해있던 공장이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하여, 기존의 임대수요가 줄고 임대료도 낮아지는 등 주택시장의 변화가 생겼음. 한편 중국동포들은 대부분 노동 이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들이 주로 찾은 인력시장, 인력사무소 및 소기업이 가리봉동, 남구로에 자리하였음. 따라서 중국동포들이 자연스럽게 가리봉동에 거주를 형성하게 되었음. 그러나 2004년에 가리봉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중국동포들은 인근 대림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음.
- 대림동은 지하철 2·7호선 대림역과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을 끼고 있어 서울의 전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용이했고, 인근 수도권으로의 교통도 편리하여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 건설 현장 등으로 출퇴근하기에도 편리했음. 또한 대림2동에는 아파트보다는 현재까지도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음. 과거 구로공단 노동자를 위하여 신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주로 2층에는 주인집이 있고 각 층별로 가구를 나누어 전세, 월세 및 옥탑방 세입자 공간을 조성하는 형태의 공동 주거공간이며 일명 ‘대림2동 표준형 주택’이라고 부를 정도로 구역 내 다가구주택이 서로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음.
- 중국동포의 대림동 이주에 따라 이들이 식료품을 구입하고 교류하는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즐겨 먹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가도 늘어서 지금의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졌음. 현재는 중국동포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업종이 대림2동 일대, 특히 디지털로37길을 중심으로 들어서있음.

라. 차이나타운의 광장무(廣場舞)

- 대림동에 가면 우리에게도 조금은 낯선 풍경이 자주 눈에 띈다. 공원이나 도림천변에서 주로 중년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음악을 틀어 놓고 춤을 추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이 춤은 주로 광장에서 추는 춤이라 하여 ‘광장무(廣場舞)’라 부름.
- 중국에서는 큰 광장에서 수십, 수백 명이 모여 춤을 추는데,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중년 여성으로 이들을 ‘따마(大媽·큰어머니)’라고 부름. 중국에는 광장무를 즐겨 추는 사람들이 1억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됨.
- 광장무는 1949년 마오쩌퉁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이후 중국공산당이 민중문화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또는 건강단련의 일환으로 권장하면서 시작되었음. 그러나 광장무가 본격적으로 널리 퍼지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이며 당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중년들이 많아, 이들이 광장이나 동네공터에 모여 음악을 틀고 광장무를 추며 어려운 시기를 버텼다고 함.
- 주로 50~60대의 중년여성이었다던 이들은 1960~7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에 유년기를 보냈는데, 광장무는 계획 경제 시절 중국인이 누구나 손쉽게 즐기던 여가활동으로 사회주의 시절 집단 체조문화의 유산이기도 함. 지금도 집단적으로 광장무를 출 때는 앞줄과 뒷줄의 간격을 맞추며, 한 집단이 되어 존재감과 자기만족감과 안전감 등을 느낀다고 함(아주경제 2015).
- 광장무의 배경음악으로 가장 인기있는 곡은 ‘작은사과(小萍果)’ ‘가장 빛나는 민족스타일(最炫民族風)’ 등이 있으며 중독성있는 리듬으로 되어 있어서 독특한 중국문화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음.
- 그러나 광장무는 최근 중국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아침 이른 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에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는 따마들과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젊은 이들 간 소음문제로 다툼이 일어나 세대 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중국문화에 익숙해진 재중 동포들 역시 일상이 되어버린 광장무를 대림동에 이주하여서도 이어가고 있음. 여기에서도 중국의 경우처럼 작은 공원이나 빈터에서 음악을 틀어 놓고 광장무를 추는 중국동포들 문제로 주민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

- 누군가에게는 고단한 노동 후 여가이고, 누군가에는 소음이기도 한 광장무를 출 수 있는 공간을 적합한 장소에 마련하고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임.

마. 대림동과 도림천

- 대림동은 도림천변에 자리하여 강수 일기 및 치수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아온 지역임. 1972년 8월 태풍 베티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을 계기로 도림천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져 1970년대 중반에는 도림천이 복개되었고, 이후 1980년대 후반에도 도림천 구간을 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음. 이후 2000년대 후반부터는 수변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도림천의 생태를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한편 2003년에는 대림3동 빗물펌프장을 조성하였는데 2012년에 펌프장 증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최근에는 이 지역을 복개하여 종합체육시설을 2024년까지 완공하도록 예정하고 있음.

(3) 도림동

가. 동명의 유래

- 도림동 동명의 유래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1985년 간행한 『동명연혁고 X(영등포구편)』에는 두 가지 설이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음.
- 하나는 도야미리(道也味里)에서 연유했다는 설로 “마을 뒤에 위치한 산의 형국이 마치 마을 뒤로 성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마을이 국도(國道)에서 돌아앉아 있다고 해서 도야미리(道也味里)가 도림(道林)으로 되었다”고 함. 도야미리가 지리서에 처음 등장 한 것은 1700년대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이며, 당시 경기도 금천현 상북면에 속한 마을로 사촌리, 원지목리 등과 함께 도야미리가 기록됨. 이후 도야미리는 일제강점기 때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사촌리, 원지목리와 합쳐져 도림리가 됨.
- 또 하나의 설은 “도림동 일대에 억새풀 종류의 새나무가 많았으며, 특히 길옆에 샷자리 일종의 풀이 숲을 이루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임.

나. 도림동의 변천

- 구한 말까지 도림동 지역은 작은 자연부락으로 조선시대부터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였음. 도림천이 자주 범람하여 습한 지역이기에 피, 수수, 콩 등을 주로 심었고, 도림천변 인근에서는 메밀과 팥 등을 재배하였으며 뚝을 쌓은 이

후로는 보리 등도 재배하였음(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 2011).

- 도림동에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로 일제가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영등포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면서부터 주거지역이 형성되었음.
- 현재 도림동에는 경인로, 대방천로, 도림로, 도신로 등 주요 도로가 지나며 1호선 영등포역과 신도림역 사이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함. 지역 내에 주요 시설로는 도림시장과 도림2동 유수지내 체육시설이 있으며, 주민등록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42.7%로 영등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4) 문래동

가. 동명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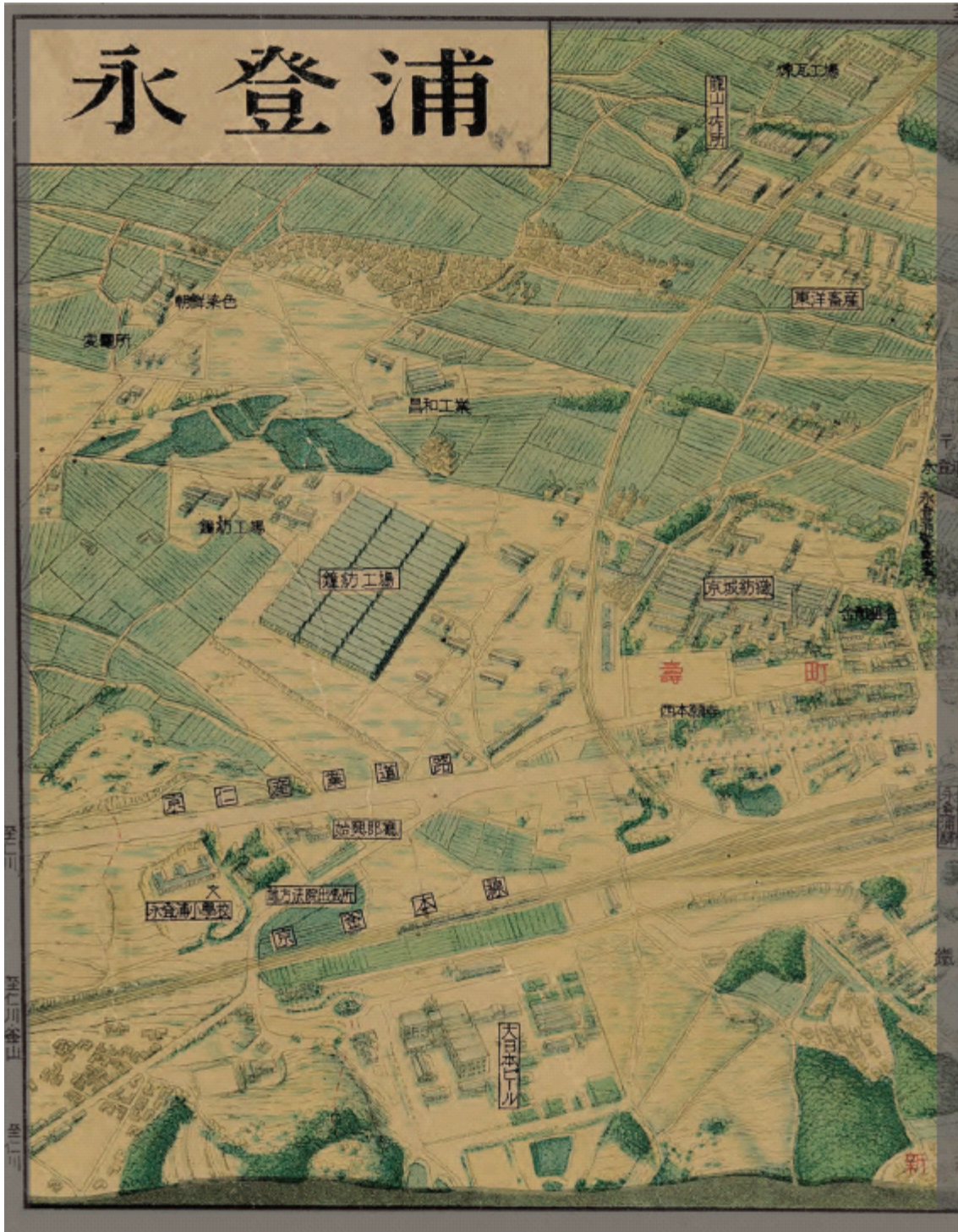
- 문래동 지역은 1914년 시흥군 북면 도림리에 속하였으나, 1936년 경성부로 편입되면서 함께 도림정(道林町)이 되었음. 1943년 경성부(京城府) 구제(區制)를 시행하면서 도림천을 경계로 북쪽 지역인 지금의 문래동 지역을 분리하여 영등포구 사옥정(絲屋町)으로 개편하였음.
- 남면북양(南綿北羊)이라는 일본의 식민통치정책에 종연, 동양, 경성 등 크고 작은 방직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자, 일본인이 이들 공장을 사옥(絲屋: 실짜는 집)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함. 해방후 일본식 마을 명칭인 정(町)을 동(洞)으로 바꾸면서 사옥동(絲屋洞)으로 불리다 1952년 문래동(文來洞)으로 행정동명이 바뀌게 되었음.
- 문래동 명의 유래에 대하여는 몇가지 설이 있음. 하나는 방직공장에서 쓰던 물레(실을 자아내는 가구로 방차, 사거, 도차, 윤대라고도 불림)를 만드는 공장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물레”의 발음과 비슷한 “문래(文來)”로 한자 표기했다는 것임. 또 하나는 학교나 관공서가 들어서자 글이 온다는 뜻에서 동명이 정해졌다는 설이 있음. 과거 사옥정으로 불리던 것과 비추어 보면 물레에서 차음한 것으로 보임.

나. 문래동의 변천

- 조선시대 문래동은 안양천과 도림천으로 둘러싸인 저습지대로 대부분 갈대숲을 이루고 있었으나 1900년대에 이르러 늪지대를 메꾸고 오랫동안 채소 농사 등 농경지로 이용되었음. 당시의 주민들은 토질에 습기가 많아 주로 피와 메밀, 그리고 수수, 콩 등을 경작하였으며 일부는 벽돌이나 기와 등을 제조하여 도성에 판매하였음.

- 1899년 부설된 경인철도가 영등포리를 지나면서 역사가 설치되고 1905년 개통한 경부선 철도가 영등포역에서 분기함에 따라 교통의 요지로 급부상하게 되고 역전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문래동도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됨. 물류수송이 편리한 교통수단, 개발이 용이한 평탄한 지형, 한강 등에서 공업용수 확보가 쉬운 당시 공업단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됨.
- 1905년 일본인 학교인 영등포 심상고등소학교(1945년 영등포 초등학교로 재개교)가 개교하였고 영등포역에서 당산동까지 철도인입선이 개통됨에 따라 문래동 지역에도 1925년 경성방직을 시작으로 1935년 종연방직(현 방림방직), 동양방직, 일청제분(현 대선제분), 조선 미곡창고 등이 공장설립이 가속화됨. 1936년에는 영등포가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경성부에 편입되었고, 중일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기존의 방직공장 외에도 기계, 제련, 화학 관련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100여 개의 공장이 소재하여 1937년 공장용지 구획지로 지정되었음.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시장 등 상업시설도 자연스럽게 형성됨.
- 해방 이후 적산 공장들이 민간에게 불하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되면서 대선제분, 방림방직, 동신화학, 노루표페인트, 롯데삼강, 남영나일론, 신한전기 등이 위치하여 중공업지역의 면모를 지켜옴.
- 1960년대부터는 경인로를 중심으로 청계천과 제물포를 잇는 수도권 철강벨트의 중간기지로 철자재상가와 중소 금속가공업체들이 유입되고, 특히 1980년 세운상가 건립시 철거대상인 청계천 소재 금속가공업체들이 대거 이주하여 옴.
- 2000년대에 들어 철강 경기 하락과 수도권 공장 외곽이전 정책 등에 따라 문래동 내 공장이 시화공업단지 등으로 이주함에 따라 기존 사무공간이나 사업장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 공간으로 작가들이 입주하여 문래창작촌이라 불림. 그러나 현재까지도 1,300개에 달하는 금속가공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 문래동하면 여전히 철강단지가 연상될 정도임.
- 또한 1982년에는 현 문래근린공원 자리에 주둔하던 52향토사단이 이전하고 수도권 공장 이전 정책 등으로 방림방직, 경일자동차, 대한통운 역시 문래동을 떠나, 그 부지에 1983년 남성맨션, 진주맨션을 시작으로 아파트, 학교, 아파트형 공장, 상업시설이 세워지기 시작했음. 현재는 금속가공단지 밀집지역을 제외한 문래동 지역은 상업시설, 주거시설이 위치한 부도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그림 18> '대경성부대관' 구역별 부분도 중 영등포(서울역사박물관, 2015)



다. 문래창작촌의 탄생과 위기

- 2000년대 초반 무렵부터 산업구조의 재편과 도심 산업시설의 수도권 외곽 이전 정책, 경기침체 등으로 업체들이 문래동을 빠져나가면서 철제 자재 상가단지를 중심으로 2, 3층 사무공간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음. 한편 예술가들이 주로 활동하던 대학로, 홍대는 음식점 등 소비중심의 상업 시설이 늘어나고 클럽문화가 확산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기 시작하였음. 홍대 인근 지역과 문래동 지역의 상황이 교차하며 접근성이 좋고 임대료가 저렴한 문래동으로 작가들이 유입 되었음.
- 초기에는 주로 회화, 사진, 일러스트, 조각 등 시각예술가를 중심으로 작업실이 늘어나다가 2007년 ‘경계없는예술센터’, ‘온앤오프 무용단’, ‘극단 몸뚱이’ 등 공연단체가 들어왔고, 2009년에는 60여 개의 작업실에 170명이 넘는 작가들이 활동하게 되었음. ‘문래예술공단’으로 자생적인 예술생태계가 형성되어 낮에는 산업의 열기로 밤에는 창작의 열기로 문래동은 새로운 활기를 찾게 되고 자생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진 셈임.
- 작업공간 이외에도 ‘대안예술공간 이포’, ‘413’, ‘솜씨’, ‘LAP 39’, ‘스페이스 문’, ‘정다방 프로젝트’, ‘두들’, ‘세이’, ‘스페이스 9’ 등 작가들이 운영하는 대안공간 형태의 전시공간들도 개관되었음. ‘그날’이라는 작가들의 자생적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공용공간이 오픈되는가 하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나리 붓집’, 물물교환 장터 ‘선데이 문래’, ‘문래동 사용하기’ 발간 등 작가 상호 간의 교류를 넘어 지역과 교류를 넓히려는 시도도 진행되었음.
- 이런 과정에서 ‘예술과마을 네트워크’, ‘안테나’, ‘보노보C’, ‘샐러드’ 등 문화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 및 단체가 출현하여 ‘헬로우 문래’라는 아트마켓을 운영, ‘문래동네’ 잡지 발간, ‘인디 필름데이’ 개최, 공방 워크숍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문래 캠퍼스’ 운영, 다문화 연극 등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문래창작촌의 문화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음.
-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자생적으로 형성된 예술생태계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0년 약 300평의 면적에 공동작업장, 공연장 갤러리, 녹음실, 영상편집실, 호스텔 등의 시설을 갖춘 문래예술공장을 개관하고,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커뮤니티 및 프로모션 사업, 유망예술지원사업 MAP(Mullae Arts Plus)을 통하여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왔음. 현재 문래창작촌에는 100여 개의 공간에서 300여명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문래창작촌은 주변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 골목 골목에 금속가공업체와 예술공간(작업실, 공방, 전시장 등), 공방, 카페가 혼재하는 이색적인 지역으로 매스컴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 방문객이 늘어나고 이들의 소비를 겨냥한 상업 시설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음. 문래동이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부각 되면서 카페, 레스토랑 등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일부 지역의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여 예술가 및 기술인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음. 홍대 일원의 젠트리피케이션 여파로 밀려 나온 예술가들이 다시 내몰리게 될 악순환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임. 생산공간이 소비공간으로 채워지는 미디어, 인스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임.
- 창작촌 내부에서도 외부 환경변화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였음. 다수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조성과 문래창작촌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는 집담회가 열리고 새로운 자치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몇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2019년 6월 100여 명이 참여하는 문래창작촌 예술인 자치 모임인 “문래 마을 예술인 회의”가 발족하였음. 지속가능한 창작촌의 미래를 모색하는 라운드 테이블, 문래 레지던시 사업, 문래 미술시장을 통한 작품 판매, 예술축제 등을 통해 예술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임.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 등 당면 문제를 공론화하고 ‘예술로 먹고 사는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경제모델을 창출하자는 것임.
- 또한 2019년 영등포문화재단의 ‘문화도시 리빙랩’이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창작촌 내에 건물을 매입하여 기술인과 예술인을 위한 ‘술술 센터’를 개관하였음. 2019년 3월에는 영등포 지역 내 다양한 문화 주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영등포 공유원탁회의가 발족하였음. 원탁회의는 협력 네트워크 분과, 사업 분과, 창작자 분과로 구성되어 관심 주제별로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음.

라. 문래 근린공원과 5.16 군사정변

- 문래공원은 1954년부터 한강 이남 수도방위업무를 담당하던 6관구 사령부가 있던 곳임. 6관구 사령부는 1974년 경인위수사령부로, 그 후 예하 부대가 수도군단과 수방사로 개편되면서 사령부가 해체되었음. 1986년 사령부가 해체되고, 7천여 평 부지를 서울시가 주민 공청회를 열어 공원으로 조성한 것임.
- 개장 초기에는 노인정, 청소년회관, 소형동물원, 축구장, 놀이터, 산책로, 잔디밭 등

이 조성되었으며 이때 1966년 6관구 사령부 내에 세워 졌던 박정희 소장 흉상과 지하병커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임. 2006년 문래공원을 리모델링 하면서 축구장, 동물원 등을 없애고, 체육시설, 산책로, 팔각정, 생태 연못, 물레 조형물, 분수대, 장미원 등을 갖추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음.

- 1966년 6관구 사령부는 5.16 당시 부대 역할을 조명할 목적으로 흉상건립을 계획하고, 조각을 홍익대 최기원 교수에게 의뢰하였음. 흉상 뒤편 글은 월탄 박종화가, 글씨는 소전 손재형이 쓰고 그해 7월 7일 ‘5.16 혁명 발상지’라는 동판 위에 흉상이 세워졌음.
-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나니 차마 不正(부정) 不義(불의) 無能(무능)의 天地(천지)를 볼 수 없었다. 나라를 구하라는 一片丹心(일편단심) 沈着(침착) 勇斷(용단)果敢(과감) 결연히 이곳에 칼을 뽑아 蒼空(창공)을 향하여 聖火(성화)를 높이 들다. 1966년 7월 7일(월탄 박종화)”
- 2000년 11월 5일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동당, 홍익대학교 민주동문회 등 5개 단체 회원 30여 명이 흉상 앞에 집결, “친일매국노 박정희의 흉상이 시민의 휴식처에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흉상 목 부분에 옥일승천기를 두르고, 줄을 맨 후 흉상을 끌어 내렸음. “만주로 시베리아로 풍찬노숙하며 청춘을 내던진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 다카끼 마사오(顧木正雄)를 기념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이승만 독재에 맞서 코흘리개 학생까지 거리로 나서 피로 일군 4.19혁명을 총칼로 짓눌러 버린 군사 반란자요 민주헌정 유린자를 기념하자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유신선포로 영구집권을 꿈꾸며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의 고혈을 짜내고 민주인사들을 살인, 고문한 독재자를 기념하자는 것인가.” (흉상 철거 성명서 중) 철거된 흉상은 홍익대에 갔다가 다시 문래공원으로 되돌아 왔고, 당시 철거를 주동한 김용삼, 광태영 등은 공원관리인 상해 및 흉상철거 죄목으로 형을 선고받았음.
- 흉상 훼손 사건을 계기로 흉상을 잘 보전하자는 사람들이 모여 단체가 결성되고 2006년 7월 22일 발대식을 가진 후, 대표들은 돈을 모아 흉상주변에 적외선 탐지기와 이중 펜스를 설치하고 경고문을 부착했음. 2008년 1월 철거당시 훼손된 흉상을 보수하기 위해 1966년 흉상제작에 참여한 (주)태종미술의 포천 공장으로 갔다 온 후가 현재 모습임.

마. 식민지 시기의 공영주택 “영단주택”

- 문래동4가 일대 철가공소가 밀집된 지역이 과거 영단주택 지역임. 문래정보도서관 건너편으로 10~15평 남짓한 소규모 철가공소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서로 어깨를 기대고 서 있는데, 이 일대가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최초의 공영주택임. 아직 500채 정도 남아있어 ‘오백채’라 불림. 예전에는 ‘영단 슈퍼’라는 간판이 이 일대가 영단주택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슈퍼도 사라졌음. 이곳의 집들은 해방 후 구조가 한식으로 바뀌고, 다시 공장으로 상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형되어 왔지만 계획단지라는 점은 한눈에 알아볼 정도임.
- 서울의 인구는 1900년대까지 20만 정도를 유지하다가 일제 강점기 이후 지방인구의 도시집중과 일본인들의 유입으로 급격히 늘어남. 1942년에는 100만을 돌파하여, 이에 따른 주택문제가 야기되고 특히 군수산업의 발달에 따라 노동자들의 주택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1년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주택영단(대한주택공사의 전신)을 두었고, 조선주택영단에서 건설한 것이 영단주택임.
- 특히 전시 체제하에서 군수산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군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집합주택인 영단주택을 공급. 조선주택영단은 서울에 2,700호의 주택건설을 결정하고 돈암지구 10만여 평, 영등포지구 8만여 평, 대현지구 5만여 평, 번대지구 10만 8천여 평, 한남지구 5만여 평, 신촌지구 7만여 평, 금호지구 13만여 평, 상도지구 13만여 평 등 토지구획정리지구 및 택지조정지구들에서 합계 72만여 평의 부지를 주택건설가능지로 결정했음.
- 주택영단은 먼저 체계적인 주택 건설과 공급을 위해 주택규모를 계층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갑(20평)과 을(15평)형은 주로 일본인 관리나 직원을 위한 것이었고 병(10평), 정(8평), 무(6평)형은 국인 노무자나 서민들을 위한 것이었음. 갑은 분양, 을은 희망에 따라 분양, 나머지는 임대를 원칙으로 하였음. 격자형의 넓은 도로를 만들고, 각 블록마다 녹지, 병원, 목욕탕, 이발소, 상점 등 후생시설과 공공시설이 계획되었음. 군수산업이 밀집한 영등포 공업지역의 경우, 배후주택지인 문래, 대림, 상도동 지역 6만 5천여 평을 1차 사업지구로 결정하고 1941년 말부터 공사를 시작, 1942년 11월 말부터는 완공된 주택(문래동 651호)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음. 분양신청자들의 직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의 공장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였고, 일부 도심부의 관공서, 회사, 은행 등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끼어 있었음. 오백채 영단주택은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것의 하나로 군수업체 노동자를 위한 공영주택이라는 일제 강점기의 아픈 과거를 드러냄.

- 현재는 일부 주거용도나 음식점 등 상업시설로 쓰이고 있으나 대부분은 금속가공업 체나 관련 업종의 시설로 쓰여지고 있음.

바. 황석영의 소설 속에 묘사된 문래동 풍경

- 소설가 황석영은 해방과 더불어 고향인 평양을 떠나 네 살이 되던 해인 1947년 모친과 함께 영등포에 정착하여 영등포 초등학교에 다녔음. 한국전쟁으로 피난 생활도 하였으나 1959년까지 12년 동안 영등포에서 유년기를 보냈음. 황석영의 소설에는 당시 도림천 인근 문래동 지역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있음.
- “우리 집은 그 무렵에 제철공장과 방직공장 부근에 있는 영단주택 동네에 있었고, 밤에 창을 열면 철도청 영등포 공작장의 찬란한 용광로의 불뚝과 거뭇거뭇한 사내들의 벗은 몸집이 분주하게 불빛 앞에서 어른거리는 것을 언제나 볼 수 있었다.”(황석영 2013, 131)
- “기관차의 화물차량 뒤를 쥐새끼처럼 쫓아가며 딸감 코크스를 줍던 아이들, 국방색 작업복에 똑같이 하얀 칼라를 내놓은 차림의 방직공장 처녀들, 검은 무명 팬티만 입고 벌거벗은 채 뛰어다니며 쌍소리 하던 영단주택 노동자 아이들, 공장 폐수가 끊임 없이 흘러가던 학교 가는 길, 그리고 실직한 노동자들이 몰려 살던 부서진 화물차들, 그 양지쪽에서 해바라기하던 아이들...”(황석영 2008, 43)

4) 도림천변의 문화유산

(1) 도림천 인근의 서울미래유산

- 서울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과 시민의 삶이 담긴 물건, 공간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서울미래유산’을 지정하고 있음. 시는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미래유산을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서울 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로 정의하고 있음.
-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미래유산은 총 489건이며 그중 영등포구에는 18건, 도림천 인근 지역에는 대림동의 ‘삼거리 먼지막 순대국’, 도림동의 ‘도림동 성당’, 문래동의 ‘1차 금속제조업(문래동 영단주택단지 일대)’와 ‘수정여관’까지 총 4건이 있음.

<표 9> 도림천 인근 서울미래유산 현황

명칭	구분	세부내용
삼거리 먼지막 순대국 (대림동)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삼거리먼지막순대국 소재지: 영등포구 시흥대로185길 11 선정연도: 2013년(인증번호 2013-121) 건립시기: 1957년 건립용도: 주택 근린생활시설
	주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7년 대림시장 안에서 창업주 김준수씨가 소규모 상점 형태로 국밥, 국수 판매를 시작 1959년 정식 개업 등록, 전문적으로 순대국 판매 운영을 시작 1977년 현 건물 준공 1990년 현 위치로 이전하여 재운영 창업주 김준수씨의 아들 김운창씨가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음
도림동 성당 (도림동)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도림동 성당 소재지: 영등포구 도영로 22길 22 선정연도: 2013년(인증번호 2013-066) 건립시기: 1963년 건립용도: 성당
	주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3년 준공 1972년 08월 보수공사 실시 1982년 05월 내부공사 실시(제단 및 내부치장) 1990년 02월 관리실 건물 증개축 및 교육관 증축공사 2011년 09월 사제관, 교육관 신축착공 2012년 11월 본당 리모델링 1963년 장방형의 단순한 평면에 5각 앵스(Apse)가 덧붙은 강당형으로 지어진 종교건축물로 양식적인 성당으로부터 모더니즘성당으로 넘어가는 경계점에 있는 건축물 가톨릭전통의 현대적 해석에 충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건물이며 고해소의 배열, 유아실의 배열, 장미창을 현대화한 디자인 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슈알레즈(Joseph Suarez) 신부의 설계 작품으로 보존가치가 있음
수정여관 (문래동)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수정여관 소재지: 영등포구 경인로77가길 11 선정연도: 2013년(인증번호 2013-170) 건립시기: 1966년 건립용도: 주택

	주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9년 현 건물 준공 • 1966년 현 위치에 개업 이후 다수의 사업자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 1986년 현 대표인 안승씨가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 • 같은 장소에서 47년동안 운영된 여관으로 문래동2가 일대의 시대적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
1차 금속제조업 (문래동)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1차 금속제조업 (문래동영단주택단지일대) • 소재지: 영등포구 도림로141길 일대 • 선정연도: 2013년(인증번호 2013-097) • 건립시기: 1941년
	주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9년 최초의 방직공장이 건설 • 1928년 경성부 도시계획에 따라 공업지대 지정 • 1941년 조선주택영단을 설립하고 영단주택을 건립 • 1942년 60여 개 공장 건설 • 1980년대 도심부 소규모 제조업체 이전정책과 수도권 공장 이전 정책에 따라 세운상가 서편의 공장들이 이주 시작. 1990년을 전후로 제조업의 약화와 IMF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대형공장들의 이전이 가속화. 2000년부터 홍대나 대학로의 예술인들이 정착하며 문래 창작촌 형성 • 영화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아저씨>, <특별시민> 등의 촬영지

자료 출처: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 (<https://futureheritage.seoul.go.kr/>)

(2) 도림천 인근의 서울우수건축자산

- 서울시에서는 건축자산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여 문화제가 아닌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중 다양한 가치를 지니는 곳을 지정 및 아카이빙 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평가하여 ‘우수건축자산’을 선정, 지원함.
- 2020년 5월 현재 서울시 건축자산은 도심권(종로, 중구, 용산)과 중부권(성북, 동대문, 성동, 서대문, 마포, 동작, 영등포)에서 우선 조사되었으며 총 879건임. 우수건축자산은 11건으로 그 중 영등포구에서는 문래동3가 9에 위치한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이 제2호 서울시 우수건축자산으로 2019년 5월 등록되었음.
-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시설로 1936년 공장 설립 후 생산시설과 지원시설 총 23개 동, 중앙 광장, 오픈 스페이스, 조경시설 등이 단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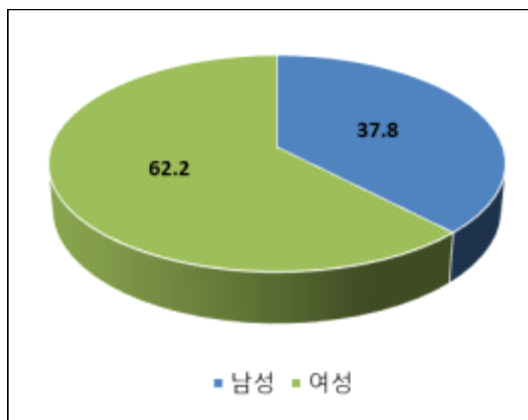
구성되어 왔음.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 등에서 가치가 있음. 현재 이 일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대선제분 건물은 역사적 측면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시설로 조성할 계획임.

5. 도림천 이용현황

1)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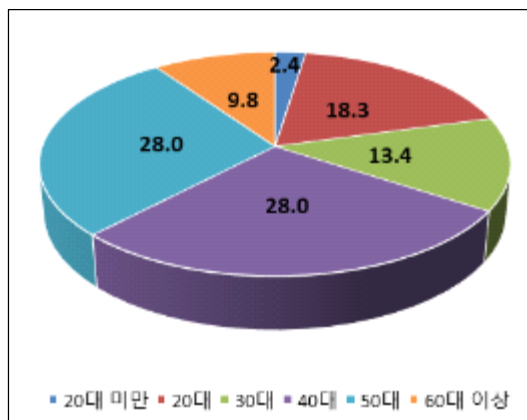
- 도림천을 찾는 시민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1년 8월에서 9월까지 현장 및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용자 총 164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남성은 37.8%, 여성은 62.2%였음. 연령은 40대와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비중은 각각 28.0%임. 그 뒤로 20대 18.3%, 30대 13.4%, 60대 이상 9.8%, 20대 미만이 2.4%로 집계됨.

<그림 19> 응답자 성별(%)



(N=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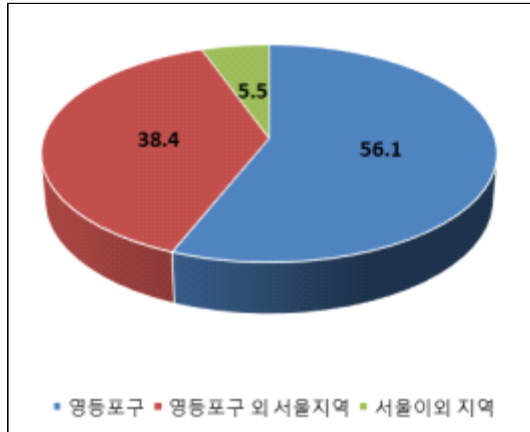
<그림 20> 응답자 연령(%)



(N=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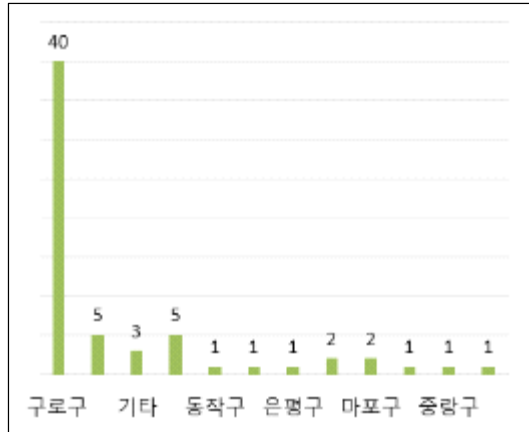
- 영등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56.1%(92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등포구 이외의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38.4%(63명),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5.5%(9명)로 나타남. 영등포구 이외의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40명, 24.4%), 양천구(5명, 3.0%), 관악구(5명, 3.0%) 등의 순임.

<그림 21> 응답자 거주지역(%)



(N=164)

<그림 22> 영등포구외 서울지역 거주 현황(명)



(N=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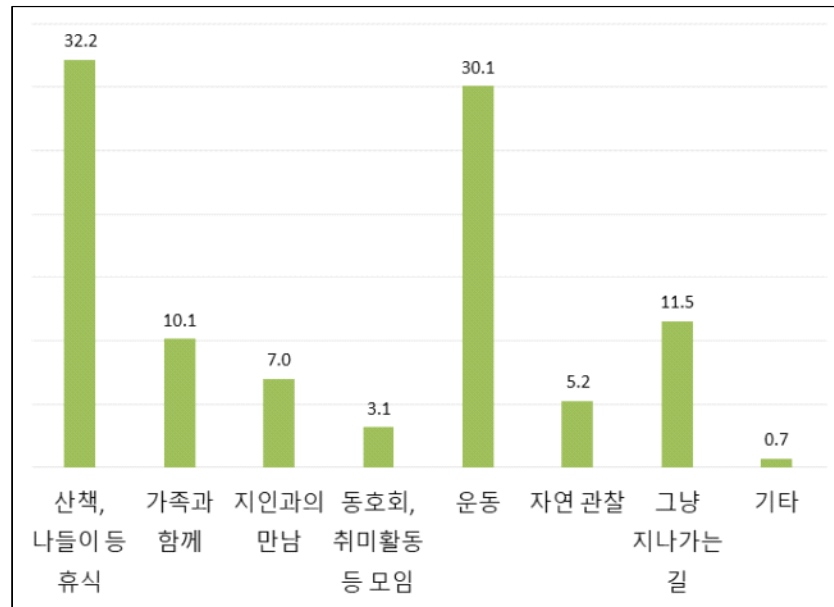
2) 도림천 이용현황

(1) 도림천 방문목적

- 도림천 방문목적에 묻는 질문에 ‘산책, 나들이 등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도림천에 방문한다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을 하기 위해서’(30.1%) 방문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음.
-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는 응답은 11.5%,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10.1%, ‘지인들과의 만남 장소’로 활용한다는 응답은 7.0%, ‘자연관찰’을 위해 방문한다는 응답은 5.2%, ‘동호회, 취미활동 등 모임 참여’를 위해 방문한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남. 기타 응답은 0.7%였으며, 주로 업무 등의 이유로 방문한다는 답변이었음.
- 도림천에 방문하는 목적은 산책, 휴식, 운동, 자연관찰, 여가 및 교류활동 등 다양하게 나타남. 휴식, 운동, 가족 및 타인과의 교류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높았음. 휴식, 운동, 사회적 교류를 위한 환경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휴식, 운동, 교류 등 목적성을 가진 방문 이외에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약 1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도림천을 이동 경로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도림천을 편하고, 즐겁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예술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자연관찰’을 위해 방문하는 비율이 가족과의 여가, 지인과의 만남, 동호회 참

여 등 개별 응답 비율에 비해 5.2%로 높게 나타남. 도림천 생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풍부한 생태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됨.

<그림 23> 도림천 방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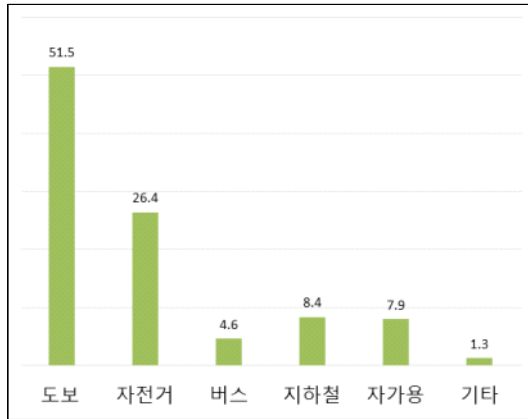


(N=164, 복수응답)

(2) 이동수단 및 체류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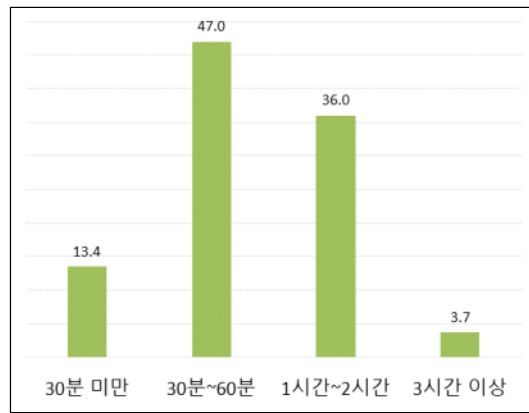
- 응답자들은 도보(51.5%)를 이용해 도림천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음. 도보에 이어 자전거 26.4%, 지하철 8.4%, 자가용 7.9%, 버스 4.6%로 나타남. 기타 수단을 이용하는 비율은 1.3%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등이 답변되었음.
- 도림천에 방문했을 때 체류하는 시간은 30분~60분 정도를 머무르는 비율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시간~2시간을 머무르는 비율이 36.0%, 30분 미만인 13.4%, 3시간 이상이 3.7% 순으로 나타남.
- 도보 및 자전거를 통해 이동하는 경우 주변의 생태환경 및 시각적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도보 및 자전거를 통해 이동하는 비율이 약 78%에 이르는 만큼, 이들이 이동하는 경로와 관련한 생태환경 및 시각적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그림 24> 이동 수단(%)



(N=164)

<그림 25> 체류 시간(%)



(N=164)

도림천의 생태 이야기

1. 도림천의 식물
2. 도림천의 동물
3. 도림천의 동·식물과 시민의 기억
4. 생태 복원을 위한 생물
5. 도림천 생태 복원의 의미

1. 도림천의 식물

- 본 연구 기간은 2021년 10월 13일에서 12월 20일까지로 계절상 특히 한해살이 초본류의 경우 서식 여부를 관찰하기 어려운 시기임. 따라서 도림천의 수변식물을 2019년에 조사한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 자료와 이듬해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수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수변생태문화 기초환경조사 연구 용역」 자료, 2021년 영등포구에서 새로이 식재한 대왕참나무를 포함하여 본 연구팀이 현장 탐방 등을 통해 추가 조사한 식물을 취합 및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함.
-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도림천 수변식생으로 2019년 1차 도림천(동작구 신대방동) 지점에서는 쇠무릎, 속털개밀, 단풍잎돼지풀, 흰명아주, 닭의장풀, 쇠뜨기, 환삼덩굴, 가시상추, 뽕나무, 머느리배꼽, 갈대, 포아풀, 쇠별꽃까지 13종이 관찰됨. 같은 해 2차 도림천1(구로구 신도림동) 지점 조사에서는 창포, 속털개밀, 가죽나무, 단풍잎돼지풀, 구릿대, 썩, 물썩, 유럽나도냉이, 참새귀리, 털빓새귀리, 회양목, 애기메꽃, 메꽃, 냉이, 애기똥풀, 명아주, 이팝나무, 닭의장풀, 오리새, 쇠뜨기, 개망초, 큰김의털, 개나리, 갈퀴덩굴, 지칭개, 환삼덩굴, 왕고들빼기, 다닥냉이, 갈풀, 갈대, 달뿌리풀, 포아풀, 개소시랑개비, 꼴풀, 개구리자리, 소리쟁이, 왕버들, 버드나무, 돌나물, 유럽장대, 조팝나무, 쇠별꽃, 서양민들레, 말냉이, 토끼풀, 큰개불알풀, 얼치기완두, 느티나무, 잔디까지 총 49종이 관측됨. 식물은 포자, 씨앗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번식하므로 양안 및 인근의 식물종을 모두 고려함.
- 한편 영등포문화재단에서는 2020년 영등포구 수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수변 생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를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2020년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림천 수변을 관찰·조사하고 총 169종의 식물을 제시했음.
-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와 영등포문화재단 수변 생태 조사 자료, 그 외 본 조사팀이 추가 조사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총 185종의 식물을 자생식물, 외래식물, 재배식물로 나누어 제시함. 식물의 구분 및 명칭은 국립수목원에서 제공하는 국가표준식물목록(<https://nature.go.kr/kpni/>)에 따라 정리하였음.

<표 10> 도립천에 사는 식물 (자생식물)

연번	생육형	분류	과	종(국명)	종(학명)
1	목본	피자 (쌍자엽)	버드나무과	왕버들	<i>Salix chaenomeloides</i> Kimura
2				버드나무	<i>Salix pierotii</i> Miq.
3				분버들	<i>Salix rorida</i> Laksch.
4				여우버들	<i>Salix xerophila</i> Flod.
5			느릅나무과	참느릅나무	<i>Ulmus parvifolia</i> Jacq.
6				비술나무	<i>Ulmus pumila</i> L.
7				느티나무	<i>Zelkova serrata</i> (Thunb.) Makino
8			장미과	찔레꽃	<i>Rosa multiflora</i> Thunb.
9				산딸기	<i>Rubus crataegifolius</i> Bunge
10				멍석딸기	<i>Rubus parvifolius</i> L.
11				조팝나무	<i>Spiraea prunifolia</i> Siebold & Zucc. f. <i>simpliciflora</i> Nakai
12			콩과	낭아초	<i>Indigofera pseudotinctoria</i> Matsum.
13			단풍나무과	공작단풍*	<i>Acer palmatum</i> var. <i>dissectum</i>
14			노박덩굴과	줄사철나무	<i>Euonymus fortunei</i> (Turcz.) Hand.-Mazz. var. <i>radicans</i> (Siebold ex Miq.) Rehder
15			회양목과	회양목	<i>Buxus sinica</i> (Rehder & E.H.Wilson) M.Cheng var. <i>insularis</i> (Nakai) M.Cheng
16			포도과	담쟁이덩굴	<i>Parthenocissus tricuspidata</i> (Siebold & Zucc.) Planch.
17			층층나무과	흰말채나무	<i>Cornus alba</i> L.
18			물푸레 나무과	이팝나무	<i>Chionanthus retusus</i> Lindl. & Paxton
19				개나리	<i>Forsythia koreana</i> (Rehder) Nakai
20				들메나무	<i>Fraxinus mandshurica</i> Rupr.
21			마편초과	좁작살나무	<i>Callicarpa dichotoma</i> (Lour.) Raeusch. ex K.Koch
22			인동과	인동덩굴	<i>Lonicera japonica</i> Thunb.
23			진달래과	영산홍*	<i>Rhododendron indicum</i>
24	초본	양치	속새과	쇠뜨기	<i>Equisetum arvense</i> L.
25			삼과	환삼덩굴	<i>Humulus scandens</i> (Lour.) Merr.
26		마디풀과	닭의덩굴	<i>Fallopia dumetorum</i> (L.) Holub	
27			여뀌	<i>Persicaria hydropiper</i> (L.) Delarbre	
28			흰여뀌	<i>Persicaria lapathifolia</i> (L.) Delarbre	
29			머느리배꼽	<i>Persicaria perfoliata</i> (L.) H.Gross	
30			머느리밀씻개	<i>Persicaria senticosa</i> (Meisn.) H.Gross	
31			고마리	<i>Persicaria thunbergii</i> (Siebold & Zucc.) H.Gross	
32			마디풀	<i>Polygonum aviculare</i> L.	
33			쇠비름과	쇠비름	<i>Portulaca oleracea</i> L.
34		석죽과	벼룩이자리	<i>Arenaria serpyllifolia</i> L.	
35			점나도나물	<i>Cerastium holosteoides</i> Fr. subsp. <i>vulgare</i> (Hartm.) I.V.Sokolova	
36			장구채	<i>Silene firma</i> Siebold & Zucc.	
37			벼룩나물	<i>Stellaria alsine</i> Grimm	
38			쇠별꽃	<i>Stellaria aquatica</i> (L.) Scop.	
39		명아주과	명아주	<i>Chenopodium album</i> L. var. <i>centrorubrum</i> Makino	
40			청명아주	<i>Chenopodium bryoniifolium</i> Bunge	
41		비름과	쇠무릎	<i>Achyranthes bidentata</i> Blume var. <i>japonica</i> Miq.	
42		미나리 아재비과	젓가락나물	<i>Ranunculus chinensis</i> Bunge	
43			개구리자리	<i>Ranunculus sceleratus</i> L.	
44			개구리미나리	<i>Ranunculus tachiroei</i> Franch. & Sav.	
45		양귀비과	애기똥풀	<i>Chelidonium majus</i> L. subsp. <i>asiaticum</i> H.Hara	
46			자주괴불주머니	<i>Corydalis incisa</i> (Thunb.) Pers.	

연번	생육형	분류	과	종(국명)	종(학명)
47			배추과	나도냉이	<i>Barbarea orthoceras</i> Ledeb.
48		냉이		<i>Capsella bursa-pastoris</i> (L.) Medik.	
49		황새냉이		<i>Cardamine flexuosa</i> With.	
50		꽃다지		<i>Draba nemorosa</i> L.	
51		개갓냉이		<i>Rorippa indica</i> (L.) Hiern	
52		돌나물과	돌나물	<i>Sedum sarmentosum</i> Bunge	
53		장미과	뱀딸기	<i>Duchesnea indica</i> (Andrews) Teschem.	
54			양지꽃	<i>Potentilla fragarioides</i> L. var. <i>major</i> Maxim.	
55		콩과	새콩	<i>Amphicarpaea bracteata</i> (L.) Fernald subsp. <i>edgeworthii</i> (Benth.) H. Ohashi	
56			매듭풀	<i>Kummerowia striata</i> (Thunb.) Schindl.	
57			살갈퀴	<i>Vicia sativa</i> L.	
58			얼치기완두	<i>Vicia tetrasperma</i> (L.) Schreb.	
59			새팥	<i>Vigna angularis</i> (Willd.) Ohwi & H. Ohashi var. <i>nipponensis</i> (Ohwi) Ohwi & H. Ohashi	
60		쥐손이풀과	쥐손이풀	<i>Geranium sibiricum</i> L.	
61			이질풀	<i>Geranium thunbergii</i> Siebold ex Lindl. & Paxton	
62		제비꽃과	줄방제비꽃	<i>Viola acuminata</i> Ledeb.	
63			콩제비꽃	<i>Viola arcuata</i> Blume	
64			흰제비꽃	<i>Viola patrinii</i> DC. ex Ging.	
65			호제비꽃	<i>Viola philippica</i> Cav.	
66			서울제비꽃	<i>Viola seoulensis</i> Nakai	
67		바늘꽃과	여뀌바늘	<i>Ludwigia prostrata</i> Roxb.	
68		산형과	구릿대	<i>Angelica dahurica</i> (Fisch. ex Hoffm.) Benth. & Hook.f. ex Franch. & Sav.	
69			개사상자	<i>Torilis scabra</i> (Thunb.) DC.	
70		앵초과	봄맞이	<i>Androsace umbellata</i> (Lour.) Merr.	
71			큰까치수염	<i>Lysimachia clethroides</i> Duby	
72		협죽도과	박주가리	<i>Metaplexis japonica</i> (Thunb.) Makino	
73		꼭두서니과	갈퀴덩굴	<i>Galium spurium</i> L. var. <i>echinospermum</i> (Wallr.) Desp.	
74			갈퀴꼭두서니	<i>Rubia cordifolia</i> L.	
75		메꽃과	애기메꽃	<i>Calystegia hederacea</i> Wall.	
76			메꽃	<i>Calystegia pubescens</i> Lindl.	
77		지치과	꽃마리	<i>Trigonotis peduncularis</i> (Trevis.) Benth. ex Baker & S. Moore	
78		꿀풀과	광대나물	<i>Lamium amplexicaule</i> L.	
79			익모초	<i>Leonurus japonicus</i> Houtt.	
80			꿀풀	<i>Prunella vulgaris</i> L. subsp. <i>asiatica</i> (Nakai) H. Hara	
81		현삼과	누운주름잎	<i>Mazus miquelii</i> Makino	
82			물칭개나물	<i>Veronica undulata</i> Wall.	
83		질경이과	질경이	<i>Plantago asiatica</i> L.	
84		국화과	개똥쑥	<i>Artemisia annua</i> L.	
85			쑥	<i>Artemisia indica</i> Willd.	
86			물쑥	<i>Artemisia selengensis</i> Turcz. ex Besser	
87			도깨비바늘	<i>Bidens bipinnata</i> L.	
88			산국	<i>Chrysanthemum boreale</i> (Makino) Makino	
89			고들빼기	<i>Crepidiastrum sonchifolium</i> (Bunge) J.H. Pak & Kawano	
90			지칭개	<i>Hemisteptia lyrata</i> (Bunge) Fisch. & C.A. Mey	

연번	생육형	분류	과	종(국명)	종(학명)
91				벌씀바귀	<i>Ixeris polycephala</i> Cass.
92				선씀바귀	<i>Ixeris strigosa</i> (H.Lév. & Vaniot) J.H.Pak & Kawano
93				왕고들빼기	<i>Lactuca indica</i> L.
94				개꽃	<i>Matricaria limosa</i> (Maxim.) Kudô
95				뽕리뱅이	<i>Youngia japonica</i> (L.) DC.
96		백합과	맥문동		<i>Liriope muscari</i> (Decne.) L.H.Bailey
97		붓꽃과	붓꽃		<i>Iris sanguinea</i> Donn ex Hornem.
98		골풀과	골풀		<i>Juncus decipiens</i> (Buchenau) Nakai
99		닭의장풀과	닭의장풀		<i>Commelina communis</i> L.
100		피자 (단자엽)	벼과	뚝새풀	<i>Alopecurus aequalis</i> Sobol.
101	참새귀리			<i>Bromus japonicus</i> Thunb.	
102	바랭이			<i>Digitaria ciliaris</i> (Retz.) Koeler	
103	왕바랭이			<i>Eleusine indica</i> (L.) Gaertn.	
104	속털개밀			<i>Elymus ciliaris</i> (Trin. ex Bunge) Tzvelev	
105	개보리			<i>Elymus sibiricus</i> L.	
106	개밀			<i>Elymus tsukushiensis</i> Honda var. <i>transiens</i> (Hack.) K.Osada	
107	그렁			<i>Eragrostis ferruginea</i> (Thunb.) P.Beauv.	
108	띠			<i>Imperata cylindrica</i> (L.) Raeusch.	
109	억새			<i>Miscanthus sinensis</i> Andersson var. <i>purpurascens</i> (Andersson) Matsum.	
110	수크렁			<i>Pennisetum alopecuroides</i> (L.) Spreng.	
111	갈풀			<i>Phalaris arundinacea</i> L.	
112	갈대			<i>Phragmites australis</i> (Cav.) Trin. ex Steud.	
113	달뿌리풀			<i>Phragmites japonicus</i> Steud.	
114	포아풀			<i>Poa sphondylodes</i> Trin.	
115	금강아지풀			<i>Setaria pumila</i> (Poir.) Roem. & Schult.	
116	강아지풀			<i>Setaria viridis</i> (L.) P.Beauv.	
117	수강아지풀			<i>Setaria viridis</i> (L.) P.Beauv. subsp. <i>pycnocoma</i> (Steud.) Tzvelev	
118	솔새			<i>Themeda triandra</i> Forssk.	
119	잔디			<i>Zoysia japonica</i> Steud.	
120	천남성과	창포		<i>Acorus calamus</i> L.	
121	개구리밥과	좁개구리밥		<i>Lemna perpusilla</i> Torr.	
122		개구리밥		<i>Spirodela polyrhiza</i> (L.) Schleid.	
123	사초과	괭이사초		<i>Carex neurocarpa</i> Maxim.	

Copyright © 2021 Korea National Arboretum

출처: Korea National Arboretum. 2021. Checklist of Vascular Plants in Korea (Native Plants). Retrieved

Oct. 1, 2021, available from <http://www.nature.go.kr/kpni/index.do>.

(*제외)

<표 11> 도립천에 사는 식물 (외래식물)

연번	생육형	분류	과	종(국명)	종(학명)		
1	초본	피자 (쌍자엽)	마디풀과	털여뀌	<i>Persicaria orientalis</i> (L.) Spach		
2				소리쟁이	<i>Rumex crispus</i> L.		
3			자리공과	미국자리공	<i>Phytolacca americana</i> L.		
4			석죽과	별꽃	<i>Stellaria media</i> (L.) Vill.		
5			명아주과	흰명아주	<i>Chenopodium album</i> L.		
6			비름과	개비름	<i>Amaranthus blitum</i> L. subsp. <i>oleraceus</i> (L.) Costea		
7			배추과		유럽나도냉이	<i>Barbarea vulgaris</i> W.T.Aiton	
8					재썩	<i>Descurainia sophia</i> (L.) Webb ex Prantl	
9					다닥냉이	<i>Lepidium apetalum</i> Willd.	
10					유럽장대	<i>Sisymbrium officinale</i> (L.) Scop.	
11					말냉이	<i>Thlaspi arvense</i> L.	
12			장미과		개소시랑개비	<i>Potentilla supina</i> L. subsp. <i>paradoxa</i> (Nutt.) Soják	
13			콩과		붉은토끼풀	<i>Trifolium pratense</i> L.	
14					토끼풀	<i>Trifolium repens</i> L.	
15					벚지	<i>Vicia villosa</i> Roth	
16			괭이밥과		괭이밥	<i>Oxalis corniculata</i> L.	
17			바늘꽃과		달맞이꽃	<i>Oenothera biennis</i> L.	
18			산형과		유럽전호	<i>Anthriscus caucalis</i> M.Bieb.	
19			가지과		까마중	<i>Solanum nigrum</i> L.	
20			현삼과		선개불알풀	<i>Veronica arvensis</i> L.	
21					큰개불알풀	<i>Veronica persica</i> Poir.	
22					질경이과	창질경이	<i>Plantago lanceolata</i> L.
23			국화과		서양등골나물	<i>Ageratina altissima</i> (L.) R.M.King & H.Rob.	
24					돼지풀	<i>Ambrosia artemisiifolia</i> L.	
25					단풍잎돼지풀	<i>Ambrosia trifida</i> L.	
26					미국가막사리	<i>Bidens frondosa</i> L.	
27					지느러미엉겅퀴	<i>Carduus crispus</i> L.	
28					망초	<i>Conyza canadensis</i> (L.) Cronquist	
29					붉은서나물	<i>Erechtites hieraciifolius</i> (L.) Raf. ex DC.	
30					개망초	<i>Erigeron annuus</i> (L.) Pers.	
31					큰망초	<i>Erigeron floribundus</i> (Kunth) Sch.Bip.	
32					봄망초	<i>Erigeron philadelphicus</i> L.	
33					털별꽃아재비	<i>Galinsoga quadriradiata</i> Ruiz & Pav.	
34					가시상추	<i>Lactuca serriola</i> L.	
35					개썩갓	<i>Senecio vulgaris</i> L.	
36					큰방가지똥	<i>Sonchus asper</i> (L.) Hill	
37					방가지똥	<i>Sonchus oleraceus</i> L.	
38					서양민들레	<i>Taraxacum officinale</i> F.H.Wigg.	
39					피자 (단자엽)	벼과	메귀리
40		털빓새귀리					<i>Bromus tectorum</i> L.
41		오리새					<i>Dactylis glomerata</i> L.
42		큰김의털	<i>Festuca arundinacea</i> Schreb.				

Copyright © 2021 Korea National Arboretum
출처: Korea National Arboretum. 2021. Checklist of Vascular Plants in Korea (Alien Plants). Retrieved Oct. 1, 2021, available from <http://www.nature.go.kr/kpni/index.do>.

<표 12> 도림천에 사는 식물 (재배식물)

연번	생육형	분류	과	종(국명)	종(학명)
1	목본	나자	은행나무과	은행나무	<i>Ginkgo biloba L.</i>
2		피자 (쌍자엽)	참나무과	대왕참나무	<i>Quercus palustris Münchh.</i>
3			뽕나무과	뽕나무	<i>Morus alba L.</i>
4			버즘나무과	양버즘나무	<i>Platanus occidentalis L.</i>
5			콩과	족제비싸리	<i>Amorpha fruticosa L.</i>
6				아카시나무	<i>Robinia pseudoacacia L.</i>
7				회화나무	<i>Styphnolobium japonicum (L.) Schott</i>
8			소태나무과	가죽나무	<i>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i>
9			단풍나무과	중국단풍	<i>Acer buergerianum Miq.</i>
10			칠엽수과	칠엽수	<i>Aesculus turbinata Blume</i>
11			아욱과	부용	<i>Hibiscus mutabilis L.</i>
12		무궁화		<i>Hibiscus syriacus L.</i>	
13		가지과	구기자나무	<i>Lycium chinense Mill.</i>	
14	초본	배추과	갓	<i>Brassica juncea (L.) Czern.</i>	
15			유채	<i>Brassica napus L.</i>	
16		국화과	서양톱풀	<i>Achillea millefolium L.</i>	
17			수레국화	<i>Centaurea cyanus L.</i>	
18			금계국	<i>Coreopsis basalis (A.Dietr.) S.F.Blake.</i>	
19		피자 (단자엽)	백합과	원추리	<i>Hemerocallis fulva (L.) L.</i>
20		붓꽃과	노랑꽃창포	<i>Iris pseudacorus L.</i>	

Copyright © 2021 Korea National Arboretum
출처: Korea National Arboretum. 2021. Checklist of Vascular Plants in Korea (Cultivated Plants). Retrieved Oct. 1, 2021, available from <http://www.nature.go.kr/kpni/index.do>.
(*제외)

2. 도림천의 동물

1) 조류

- 도림천에 살고 있는 조류를 조사한 가장 최근 자료는 영등포문화재단의 「수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수변생태문화 기초환경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임. 2020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영등포 전체 수변에서 발견한 조류가 총 21종이며, 그 중 도림천에서는 총 11종을 발견한 것으로 정리되어있음.
- 위 자료를 참고하고 본 조사팀이 진행한 현장조사를 통해 도림천 사업대상지 및 인근에 서식 중인 조류의 목록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음. 조류의 분류 및 명칭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공하는 ‘2020 국가생물종목록’에 따라 정리하였음.

<표 13> 도림천에 사는 조류

연번	과	종(국명)	종(학명)
1	오리과	원앙	<i>Aix galericulata</i>
2		쇠오리	<i>Anas crecca</i>
3		청둥오리	<i>Anas platyrhynchos</i>
4		흰뺨검둥오리	<i>Anas poecilorhyncha</i>
5		집오리*	<i>Anas platyrhynchos var. domestica</i>
6		흰죽지	<i>Aythya ferina</i>
7	백로과	중대백로	<i>Ardea alba</i>
8		왜가리	<i>Ardea cinerea</i>
9		식백로	<i>Egretta garzetta</i>
10		중백로	<i>Egretta intermedia</i>
11	비둘기과	멧비둘기	<i>Streptopelia orientalis</i>
12		집비둘기*	<i>Columba livia ver. Domestica</i>
13	까마귀과	까치	<i>Pica pica</i>
14	참새과	참새	<i>Passer montanus</i>
15	붉은머리오목눈이과	붉은머리오목눈이	<i>Paradoxornis webbianus</i>

출처: National list of species of Korea (2020).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online at <http://kbr.go.kr> accessed on 2021.12. (* 제외)

2) 곤충

- 영등포문화재단의 「수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수변생태문화 기초환경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영등포 전체 수변에서 발견한 곤충은 23종이며, 그 중 도림천에서는 총 18종을 발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여기에 본 조사팀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와 도림천 인근에 서식 중인 곤충의 목록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음. 곤충의 분류 및 명칭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공하는 ‘2020 국가생물종목록’에 따라 기재함.

<표 14> 도림천에 사는 곤충

연번	과	종(국명)	종(학명)
1	딱정벌레과	먼지벌레	<i>Anisodactylus (Pseudanisodactylis) signatus</i>
2		길앞잡이	<i>Cicindela (Sophiodela) chinensis</i>
3	잎벌레과	좁남색잎벌레	<i>Gastrophysa (Gastrophysa) atrocyanea</i>
4	무당벌레과	칠성무당벌레	<i>Coccinella (Coccinella) septempunctata</i>
5	방아벌레과	대유동방아벌레	<i>Agrypnus argillaceus argillaceus</i>
6	풍뎅이과	풍뎅이	<i>Mimela splendens</i>
7	검정파리과	푸른등금파리	<i>Lucilia ampullacea</i>

8	꽃등에과	호리꽃등에	<i>Episyrphus balteatus</i>
9	호리허리노린재과	툽다리개미허리노린재	<i>Riptortus clavatus</i>
10	꽃매미과	꽃매미	<i>Limois emelianovi</i>
11	소금쟁이과	소금쟁이	<i>Aquarius paludum paludum</i>
12	긴노린재과	십자무늬긴노린재	<i>Tropidothorax cruciger</i>
13	노린재과	풀색노린재	<i>Nezara antennata</i>
14	광대노린재과	광대노린재	<i>Poecilocoris lewisi</i>
15	꿀벌과	양봉꿀벌	<i>Apis mellifera</i>
16		어리호박벌	<i>Xylocopa appendiculata circumvolans</i>
17	부전나비과	암먹부전나비	<i>Cupido argiades</i>
18		작은주홍부전나비	<i>Lycaena phlaeas</i>
19		부전나비	<i>Plebejus argyrognomon</i>
20	네발나비과	작은멋쟁이나비	<i>Vanessa cardui</i>
21	흰나비과	노랑나비	<i>Colias erate</i>
22		배추흰나비	<i>Pieris rapae</i>
23	사마귀과	사마귀	<i>Tenodera angustipennis</i>
24	실잠자리과	노란실잠자리	<i>Ceragrion melanurum</i>
25		아시아실잠자리	<i>Ischnura asiatica</i>
26	잠자리과	밀잠자리	<i>Orthetrum albistylum</i>
27	메뚜기과	방아깨비	<i>Acrida cinerea</i>
28		우리벼메뚜기	<i>Oxya sinuosa</i>
29	귀뚜라미과	탈귀뚜라미	<i>Velarifictorusaspersus</i>
30	섬서구메뚜기과	섬서구메뚜기	<i>Atractomorpha lata</i>
31	여치과	여치	<i>Gampsocleis sedakovii obscura</i>

출처: National list of species of Korea (2020).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online at <http://kbr.go.kr> accessed on 2021.12.

3) 기타 동물

-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도립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경우 2018년 도립천1(구로구 신도림동) 대상 1차 조사에는 잉어(4), 2차 조사에는 피라미(6), 잉어(3)가 측정됨. 2019년 도립천(동작구 신대방동) 대상 1차 조사에는 잉어(7), 줄물개(1), 피라미(102), 2차 조사에는 잉어(6), 줄물개(2), 얼룩동사리(1), 피라미(155) 개체가 발견됨. 줄물개, 얼룩동사리의 경우 조사된 개체 수는 적지만, 이후에도 서식을 확인한 시민의 증언을 확보하였고 본 조사의 목적이 도립천과 관련한 다양한 자원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 있기에 목록에 추가하였음.
- 한편 도립천 수변생태를 조사한 영등포문화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도립천에서는 붕어, 잉어 총 2종이 관찰되었음(영등포문화재단, 2020). 상기 자료와 본 조사팀의 현

장조사 등을 통해 도림천 사업대상지 및 인근에 사는 어류의 목록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함. 어류의 분류 및 명칭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공하는 ‘2020 국가생물종 목록’에 따라 정리하였음.

- 파충류로는 국내 하천, 연못 등에 광범위하게 서식하며 생태계 교란 생물로 알려진 붉은귀거북이 살고 있음. 포유류로는 고양이가 관찰됨.
- 이외에 양서류로는 개구리, 두꺼비, 뱀을 보거나 맹꽁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시민의 증언이 여러 차례 있었고, 도림천 인근 지역에서 족제비를 촬영한 사진을 1건 확인하였음. 다만 전문가의 조사에 의한 확정이 아닌 시민의 경험에서 비롯된 정보이기 에 표에는 담지 아니하며 참고할 수 있도록 기술함.

<표 15> 도림천에 사는 기타 동물

연번	구분	과	종(국명)	종(학명)
1	어류	송사리과	송사리	<i>Oryzias latipes</i>
2		잉어과	붕어	<i>Carassius auratus</i>
3			잉어	<i>Cyprinus carpio</i>
4			줄몰개	<i>Gnathopogon strigatus</i>
5			버들치	<i>Rhynchocypris oxycephalus</i>
6			피라미	<i>Zacco platypus</i>
7		동사리과	얼룩동사리	<i>Odontobutis interrupta</i>
8	파충류	늪거북과	붉은귀거북	<i>Trachemys scripta</i>
9	포유류	고양이과	고양이*	<i>Gelis catus</i>

출처: National list of species of Korea (2020).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online at <http://kbr.go.kr> accessed on 2021.12. (* 제외)

3. 도림천의 동·식물과 시민의 기억¹⁾

1) 도림천에 서식하는 동·식물 인지도

- 2021년 8월 27일에서 11월 11일까지 실시한 ‘도림천 생태 및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 조사’에 응답한 165명은 “도림천에 살고 있는 식물 또는 동물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대로 적어주세요”라는 질문에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이름이 응답되

1) 여기에 사용한 동·식물 이미지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사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음을 알려둠. (<https://species.nibr.go.kr/>)

있음. 시민이 동·식물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유사종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생물종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는지 확인하는 데에 본 자료의 의의가 있을 것임.

- 동물 중에서는 청둥오리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28회), 식물 중에서는 코스모스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음(25회).
- 동물은 청둥오리에 이어 백로(21회), 오리(17회), 왜가리(14회), 비둘기(9회), 참새(3회), 거위(2회), 까마귀(2회), 까치(2회), 두루미(2회), 중대백로(2회), 황새(2회), 노랑부리백로(1회), 물오리(1회), 쇠백로(1회), 직박구리(1회), 학(1회), 할미새(1회), 흰뺨검둥오리(1회) 등의 조류가 답변되었고, 어류는 잉어(16회), 붕어(7회) 등이 답변되었음. 고양이(6회), 개구리(5회), 뱀(4회), 지렁이(3회), 거북이(2회), 너구리(2회), 매미(2회), 맹꽁이(2회), 잠자리(2회) 등이 답변됨. 그 밖에 다슬기, 도마뱀, 사마귀, 쥐 등이 1회씩 언급됨.
- 식물은 코스모스에 이어 장미(16회), 강아지풀(11회), 금계국(8회), 벚꽃(6회), 민들레(5회), 버드나무(5회), 기타 야생화(4회), 왕버들(4회), 국화(3회), 뽕나무(3회), 수양버들(3회), 억새(3회), 갈대(2회), 개망초(2회), 계란꽃(2회), 수크령(2회), 환삼덩굴(3회) 등이 답변됨. 그 밖에 개나리, 꽃창포, 나팔꽃, 냉이, 느릅나무, 느티나무, 달맞이꽃, 도깨비풀, 도꼬마리, 망초꽃, 며느리배꼽, 명자나무, 백일홍, 백합, 버들, 별꽃, 산수유, 소나무, 썩, 여뀌, 익모초, 제비꽃, 조팝나무, 쥐똥나무, 진달래꽃, 큰봄까치꽃, 해바라기 등이 1회씩 언급됨.

<표 16> 도림천에 서식하는 동·식물 인지도

구분	세부내용
동물	청둥오리, 백로, 오리, 왜가리, 비둘기, 참새, 거위, 까마귀, 까치, 두루미, 중대백로, 황새, 노랑부리백로, 물오리, 쇠백로, 직박구리, 학, 할미새, 흰뺨검둥오리, 잉어, 붕어, 고양이, 개구리, 뱀, 지렁이, 거북이, 너구리, 매미, 맹꽁이, 잠자리, 다슬기, 도마뱀, 사마귀, 쥐 등
식물	코스모스, 장미, 강아지풀, 금계국, 벚꽃, 민들레, 버드나무, 기타 야생화, 왕버들, 국화, 뽕나무, 수양버들, 억새, 갈대, 개망초, 계란꽃, 수크령, 환삼덩굴, 개나리, 꽃창포, 나팔꽃, 냉이, 느릅나무, 느티나무, 달맞이꽃, 도깨비풀, 도꼬마리, 망초꽃, 며느리배꼽, 명자나무, 백일홍, 백합, 버들, 별꽃, 산수유, 소나무, 썩, 여뀌, 익모초, 제비꽃, 조팝나무, 쥐똥나무, 진달래꽃, 큰봄까치꽃, 해바라기 등

2) 도림천에서 보고 싶은 혹은 사라져버린 동·식물

- 도림천에서 보고 싶은 혹은 사라져버린 동·식물을 자유롭게 적어달라는 문항에 대해 다양한 동·식물이 답변되었음. 동물보다 식물이 좀 더 다양하게 언급됨. 도림천에서 보고 싶은 혹은 사라져버린 동·식물에 대한 응답은 현재 도림천의 모습과 때때로 겹쳐지기도, 사실상 요원하기도 함. 시민이 도림천의 과거 모습을 회상하고 미래의 상을 그려보는 문항이라 할 수 있음.
- 해바라기(9회)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어서 개구리(6회), 나팔꽃(3회), 맨꽂이(3회), 장미꽃(3회)이 뒤를 이었음. 국화, 대나무, 미나리, 수국, 수양버들, 연꽃, 코스모스, 패랭이꽃은 각각 2회씩 언급되었음. 수생식물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1회씩 언급된 동·식물은 아래 표에 포함하였음.

<표 17> 시민이 도림천에서 보고싶은 동·식물

구분	세부내용
동물	개구리, 맨꽂이, 고등, 공작새, 나비, 도롱뇽, 두꺼비, 말, 무당벌레, 미꾸라지, 백로, 송사리, 수달, 알락할미새, 오리, 우렁, 잉어, 족제비, 토끼 등
식물	해바라기, 나팔꽃, 장미꽃, 국화, 대나무, 미나리, 수국, 수양버들, 연꽃, 코스모스, 패랭이꽃, 갈대, 파리, 달맞이꽃, 만첩빈도리, 미루나무, 민들레, 버드나무, 버들치, 분꽃, 상수리나무, 아카시아, 옥잠화, 유채꽃, 진달래, 칸나꽃, 핑크물리, 할미꽃, 호박꽃 등

- 한편 도림천에 관심이 많은 시민 대상 FGI에서 역시 도림천에서 보고 싶은 동·식물은 무엇인지 질문 하였음. 여기에 대하여 ‘지난번에 지나가며 보았던 백로’(참여자 E), ‘메타세콰이어는 물 속에서도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대왕참나무 등도 좋지만 물이 많아도 잘 자라는 나무를 심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A), ‘생명의 도림천, 다양한 생물이 있었으면. 어떤 식물을 심을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겠지만, 무조건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림천의 특성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심었으면 해요.’(참여자 F), ‘도림천을 걸을 때 계속 같은 물, 같은 길, 같은 다리의 느낌이 지루할 수 있음. 테마를 정해서 식물을 심어 지루하지 않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참여자 C), ‘시냇물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 ‘쪽’이 예뻐요. 꽃도 예쁘고 잘 자랍니다. 연못에 늘 자라는 부들, 우리가 잘 아는 창포 등 자연적으로 자리를 잡고 시골 도랑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심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B) 등 응답이 있었음. FGI에서도 식물과 관련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음.

3) 도림천 식물 이야기

- 도림천에 사는 식물 중에서도 특히 시민의 눈길을 끄는 식물, 개인적인 추억과 경험이 담긴 식물에 대한 시민의 이야기를 설문조사와 FGI 및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하였음. 또한 시민의 특별한 기억이 담긴 식물에 대하여는 문헌 조사를 통하여 식물의 특성과 거기에 얽힌 이야기 등을 제시하고자 함.

(1) 도림천의 식물에 대한 시민의 추억

- 우선 도림천변을 개인 혹은 지인과 함께 산책하며 식물을 만나고 생태적 정서와 즐거움, 반가움을 느끼는 경우로 ‘천에 나가면 이름은 모르지만, 계절마다 식물들의 변화를 보며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지나가는 길에서 도꼬마리가 같이 가자고 옷에 붙여져 온 적이 있다.’, ‘개나리가 많이 피어있어서 데이트하면서 즐거웠던 경험이 있어요.’, ‘지인과 산책하는 길에 익숙한 풍경 속 식물’ 등 응답이 있었음.
- 심층면접에서도 ‘봄에는 작은 들꽃. 민들레, 처음에 나오는 하얀 꽃(머느리 밀씻개)도 너무 예쁘고요. 이름을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꽃이 하얗게 쪽 펼쳐지는 게 너무 예뻐요.’(면접대상자 J), ‘이곳이 화려하거나 시설이 좋지는 않았지만, 봄이면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로 인해 묻혀 있던 흙냄새가 나고 풀냄새가 나고 ... 시시각각 달라지는 자연의 변화 모습에 감탄하며 ‘돈과 명예는 별것도 아닌데!’ 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미진 곳에 보일랑 말랑 열심히 꽃을 피우는 자연의 모습에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곳’(면접대상자 N)과 같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음.
- 또한 식물의 경우 휴식 및 놀이 공간으로 인식하거나, 식물 자체를 놀이의 도구로 다양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음. ‘아이와 산책하며 토끼풀로 반지를 만들어 주었다’, ‘벚꽃놀이’, ‘초등학교 친구들과 풀피리 불며 물놀이를 했으며, 어머님들의 빨래터’, ‘나물 뜯으러 다니던 일, 소꿉놀이, 약초 뜯기’, ‘개망초 줄기로 머리를 말아 파마를 했어요.’ 등 응답을 통해 시민들이 어떠한 식물을 친근하게 느끼고 주로 활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음.

(2) 특별한 식물 이야기

가. 목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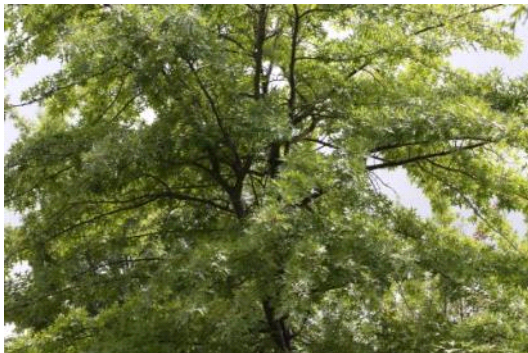
○ 대왕참나무

- 대왕참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수종으로 참나무 중에서도 생육이 빠르고

수고가 높은 편이며 병충해에도 강해서 가로수로 자주 활용 됨. 사업대상지에는 2021년 영등포구에서 도림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식재하였음. 특히 거리공원오거리에서 대림역 646-1번지 구간에는 도림천로 하부 외에는 햇볕을 피해 휴식할 곳이 없었는데, 올해 식재한 대왕참나무가 장차 그늘막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시민 의견이 있었음.

- 대왕참나무는 손기정 선수와 관련한 일화로 유명함.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부문 우승을 차지한 손 선수는 금메달과 함께 대왕참나무 묘목을 부상으로 받아 귀국하였음. 본래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는 월계수관을 씌우지만 당시 올림픽이 열린 독일 지역에서는 기후상 월계수가 자라지 않아 참나무로 대체한 것임. 한국에 온 참나무 묘목은 손기정 선수의 모교인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심겼고 현재 그곳은 ‘손기정 체육공원’이 되었음. 한편 최근 한 논문을 통해 손기정 선수가 받은 나무는 현재 심어져있는 대왕참나무가 아니며 로부르참나무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이선, 2020).

<그림 26> 대왕참나무



<그림 27> 왕버들



- 대왕참나무(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224348
- 왕버들(원작자: 나혜련,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61178

○ 버드나무속 (왕버들, 분버들, 여우버들, 버드나무)

- 사업대상지를 비롯한 도림천 중류 구간 이후로 버드나무속의 나무가 시민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음. 유연한 수형으로 관상의 즐거움이 있을 뿐 아니라, 잔뿌리가 많아 버드나무를 식재할 경우 수질정화 효과도 있음.
- 버드나무라 하면 가지가 축 늘어지는 형태의 나무를 생각하기 쉬운데, 버드나무의 종류가 다양하여 수양버들, 능수버들을 제외하면 새로 난 가지에 한하여 늘어지는

성격이 있음. 물가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강이나 하천변, 계곡, 호수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물 위로 하늘거리는 가지가 특유의 분위기를 발산함.

○ 뽕나무

- 뽕나무는 오디나무로 잘못 불리기도 하는데 시민들은 주로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를 통해 도립천의 뽕나무를 기억하였음. 오디와 함께 최근에는 뽕잎도 식용하는데, 본래 뽕잎은 비단의 원료를 만드는 누에의 먹이로 쓰이기 때문에 과거에부터 두루 재배되었음.
- 세상이 크게 바뀌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상’은 뽕나무를 뜻하는 글자로 그대로 풀이하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는 뜻임. 또한 뽕나무와 관련한 설화로는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피라모스와 티스베’가 있음.

<그림 28> 뽕나무



<그림 29> 가죽나무



- 뽕나무(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sn=120000060482>
- 가죽나무(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sn=120000062541>

○ 가죽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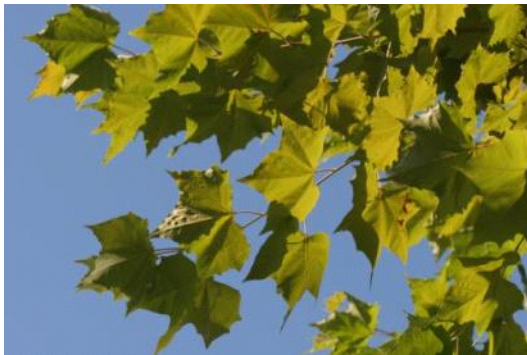
- 가죽나무는 가짜 죽나무, 가짜 참죽나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임. 참죽나무는 식용, 목재 가공 등에 널리 쓰이나 가죽나무는 독이 있어 먹을 수 없고 목재로 쓰기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홀대 받아왔으나, 공해에도 잘 버티고 성장 속도가 빨라 최근에는 가로수로 활용되고 있음.
- 옛날 중국의 장자는 가죽나무를 두고 사람들이 무용지물이라 하지만 쓰임이 있다

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하는데, 도종환 시인의 시 ‘가죽나무’에 이러한 뜻이 담겨 있음.

○ 양버즘나무

- 양버즘나무는 오히려 국명이 낯설 정도로 ‘플라타너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음. 버즘나무는 나무 줄기의 껍질 부분이 얼룩 모양으로 벗겨지는 특징적인 모양이 버짐이 핀 것 같다하여 이름 붙여졌는데, 이와 유사하며 북미가 원산지인 나무를 양버즘나무라 하였음. 가로수로 빈번하게 식재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익숙한 나무이며, 김현승 시인의 ‘플라타너스’ 등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함.

<그림 30> 양버즘나무



<그림 31> 비술나무



- 양버즘나무(원작자: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저작권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tsn=120000060412
- 비술나무(원작자: 현진오, 저작권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tsn=120000060456

○ 비술나무

- 비술나무는 느릅나무과에 속하여 종종 느릅나무로 오인하기도 함. 사업대상지에서 약간 벗어나 신도림역 방향으로 향하다보면, 시민들이 우산 또는 헬멧 모양과 닮았다고 표현하는 나무가 등장하는데 바로 비술나무임. 한때 구황식물이었으며, 내한성과 내공해성이 강하여 가로수로 자주 쓰임.
- 비술나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유래가 전해짐. 우선 상처가 난 곳에서 수액이 비처럼 술술 흐른다 하여 붙었다는 설이 있음. 또 하나의 이야기는 본래 비술나무는 함경북도 방언인데 조류의 뱃을 이르는 ‘비술’과 나무의 꽃이 닮아서 비술나무라 하였다는 것임.

나. 초본

○ 갈대와 달뿌리풀

- 갈대와 달뿌리풀은 도립천의 대표적인 수생식물임. 갈대는 흔히 억새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억새를 제외한 억새는 산에 살고 갈대는 물가에 식생함.
- 갈대와 달뿌리풀의 꽃은 유사한 편이라 뿌리를 보는 것이 구별하기에 용이함. 달뿌리풀의 경우에는 하천수면 위 또는 인근 지면 위로 줄기가 뻗어 나가기 때문에 심지어 길에서도 쉽게 뿌리를 볼 수 있는 반면, 갈대의 뿌리줄기는 땅속으로 뻗음. 또 달뿌리풀은 주로 모래에서 자라는 데에 반해 갈대는 진흙에서 잘 자라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그림 32> 갈대



<그림 33> 달뿌리풀(기근줄기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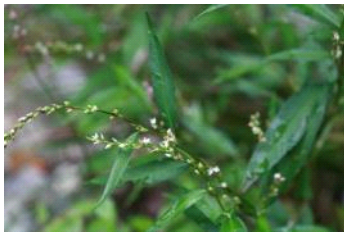
- 갈대(원작자: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저작재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74592
- 달뿌리풀(원작자: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저작재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65029

○ 여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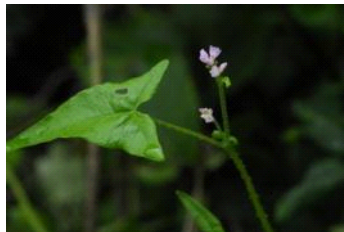
- 여뀌속의 식물은 이전에는 마디풀속으로 분류되었으나 2008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에 따라 여뀌속으로 분리되었음. 도립천에 살고 있는 식물 중 여뀌, 흰여뀌, 며느리배꼽, 며느리밑씻개, 고마리가 여뀌속에 해당함.
- 여뀌는 물가에서 잘 자라며 산책길에 흔히 볼 수 있는 풀임. 종에 따라 잎에서 매운 맛이 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식용하기도 함. 여뀌를 찢어 얻은 즙을 물에 풀면 물고기의 아가미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특징이 있어, 과거 어린이들이 물가에서 놀 때에 활용했다고 함.

- 머느리밀씻개는 작은 분홍빛 꽃을 피우는 반면 잎줄기에는 가시가 돋혀 있는 모습도 의외지만, 그 독특한 이름 때문에 더 관심을 받는 식물임. 우리나라에서 머느리밀씻개라는 이름은 1930년대에 처음 등장하는데, 일본명인 ‘의붓자식의 밀씻개’에서부터 유래하였다고 보는 설이 유력함. 과거에는 ‘사광이아재비’라 하였는데 북한에서는 아직 이 명칭을 사용함. ‘아재비’는 무엇과 닮은 풀을 의미하고, ‘사광이’는 삶 또는 신맛에서 왔다고 해석됨.
- 고마리는 물가에 살기를 좋아하는데 수질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음. 또 농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풀로 소, 돼지, 염소 등 초식동물이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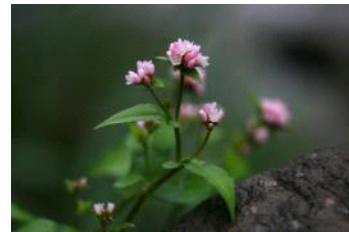
<그림 34> 여뀌



<그림 35> 머느리밀씻개



<그림 36> 고마리



- 여뀌(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74707
- 머느리밀씻개(원작자: 이병윤,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158687
- 고마리(원작자: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158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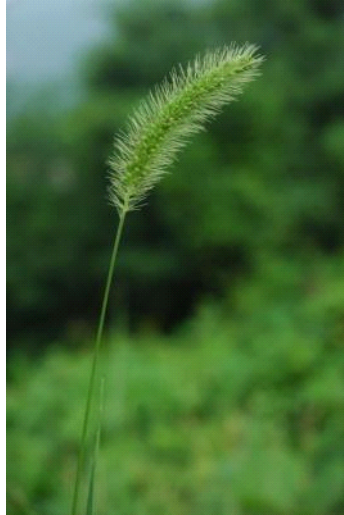
○ 부들, 강아지풀, 수크령

- 세 수생식물은 이삭꽃차례의 형태가 유사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알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음. 우선 부들은 고양이꼬리(cat tail)이라는 영명이 붙어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 둥글고 길쭉한 이삭꽃차례를 가졌음. 강아지풀이나 수크령의 이삭꽃차례보다 훨씬 크고 진한 갈색임.
- 강아지풀과 수크령의 이삭꽃차례는 서로 유사하지만, 수크령 쪽이 좀 더 크고 비교적 곧은 편인 반면, 강아지풀의 이삭꽃차례는 부드럽게 휘어져 마치 강아지의 꼬리와 같음. 한편 수크령은 고사성어 ‘결초보은’의 풀이기도 함.

<그림 37> 부들



<그림 38> 강아지풀



<그림 39> 수크령



- 부들(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sn=120000065161
- 강아지풀(원작자: 이병윤,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sn=120000065106
- 수크령(원작자: 유태철,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sn=120000065010

○ 환삼덩굴

- 여름철 도림천변을 뒤덮은 초록 잎의 정체가 바로 환삼덩굴임. 번식력이 워낙 강한 데다 나무를 둘러싸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는 등 이유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목되었음. 가시가 돋힌 덩굴이라 제거하기도 어렵고 자칫 손을 다칠 수 있어 미움을 사기도 함. 고유종 등 다른 생물의 식생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경계할만한 식물임.
- 그러나 환삼덩굴은 약효가 있어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어 왔으며 새순은 나물, 차로 먹고 자란 잎은 절이거나 데쳐 식용하기도 함. 또한 줄기가 질겨 섬유로 만들 수 있고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해 쓰기도 함. 다양한 용처 외에도 덩굴이 우거진 공간 안 쪽에 동물의 접근을 막아서 오히려 작은 풀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하며,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 도시의 풍경에 푸른 빛을 더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음.

○ 개망초

- 개망초는 그 이름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국화를 닮은 작고 흰 꽃을 피움. 개망초는 국내에 철도와 함께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음. 철도를 깔기 위해서는 레일 위를 지나가는 기차의 무게를 버틸 침목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침목이 일본을 거치며 개망초를 붙여달고 왔다는 것임. 철로를 따라 핀 꽃을 두고 당시 조선인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꽃이라며 망국초라 부르다 개망초가 되었다는 것이 주된 견해임.

- 한편 망초보다 약하여 개망초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음. 개망초는 번식력이 아주 강하여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뿌리가 잘 뽑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놀이에도 자주 쓰였음. 소꿉놀이를 하며 달걀 대신 개망초 꽃을 사용하여 계란꽃이라 부르기도 했고, 투호나 폴싸움을 하기도 함. 또한 개망초는 많은 잡초들처럼 특히 곤궁했던 시절 식용하였고 약재로도 쓰임.

<그림 40> 환삼덩굴



<그림 41> 개망초



- 환삼덩굴(원작자: 이병윤,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60463>
- 개망초(원작자: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63889>

○ 단풍잎돼지풀과 돼지풀

- 단풍잎돼지풀은 환삼덩굴과 같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음.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하지만, 워낙 번식력이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여 주위에 다른 풀이 자라기 쉽지 않음. 단풍잎돼지풀이라는 독특한 이름은 돼지풀의 끝이 마치 단풍잎처럼 갈라졌다 하여 붙여졌는데, 돼지풀은 영문 호그워드(hogweed)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쭉쭉 자라나기가 돼지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임. 단풍잎돼지풀의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켜 제거하는 경우도 많음.

- 다만 양지식물이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어 다른 식물이 사라진 곳에서 오히려 잘 자라는 데다 한해살이풀이기에, 일반적인 식생이 어려운 곳에서 다시 생명이 움틀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준다고 보는 의견도 있음.

<그림 42> 단풍잎돼지풀



<그림 43> 돼지풀



- 단풍잎돼지풀(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74592
- 돼지풀(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65029

4) 도림천 동물 이야기

- 설문조사 및 FGI, 심층면접을 통해 도림천을 찾는 시민들이 도림천의 동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적 추억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 같은 문항에 대하여 식물보다 동물에 대한 응답이 더 많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도림천변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은 자연 생태계 중에서도 동물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생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의 경우 동물의 종을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양한 경험을 들여다 봄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도림천의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에서 본 자료의 의미가 있음.

(1) 도림천의 동물에 대한 시민의 기억

- 우선 도림천변을 걷거나 자전거로 이용하며 동물을 발견한 기억을 인상적으로 제시하거나, 자연과 함께하는 기쁨을 표현한 응답이 있었음. ‘자전거를 타다가 거위가 걷는 것을 봤다.’, ‘비 올 때 들리는 땀퐁이 소리’, ‘기대 없이 갔다가 새들이 놀아요.’, ‘해질녘 백로가 하늘을 나는 모습’, ‘도림천에 물고기가 노는 것이 보기 좋다.’, ‘산책하다 물 위에 오리를 보고 반가웠던 기억’, ‘비둘기가 도림천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운동 중에 너구리와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너구리가 사람을 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 오히려 우리가 너구리를 피하고 되돌아온 경험이 있었습시다.’, ‘겨울이 오기 전 산책을 했던 날 오리가 열심히 물에서 노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잉어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도림천에 사는

길고양이들을 동네분들이 함께 돌보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등의 응답이 있었음.

- 도림천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적극적인 생태 관찰 등 활동을 한 경험도 있었음. ‘매년 4월부터 초여름까지 흰뺨검둥오리나 청둥오리가 새끼를 낳아 기르는 모습을 매일 찾아 보며 도림천의 생태에 관심을 갖게 됨. 올해는 작년에 비해 번식이 많이 줄어 아쉽다.’, ‘징검다리에서 물고기들이 역류하는 걸 보고 아이와 재밌었다. 물고기 잡기 등’, ‘부모님과 산책하는 비오는 날 땡땡이 소리가 나 따라해 보았다.’
- 또한 도림천에서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긴장이 완화되고, 도림천에서 휴식과 힐링을 취하는 점을 확인하는 답변도 있었음. ‘번아웃이 왔을 때 물멍을 하고 있는데 돌 징검다리를 건너는 고양이랑 물 위에서 평화롭게 노니는 오리들을 보면서 살아있구나. 다들 살아가는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우울한 기분 떨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중대백로, 쇠백로,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할미새를 발견했어요. 작년에는 왜가리가 왔는데, 올해는 할미새가 안 왔고, 오리는 왔어요. 퇴직 후 번식하는 새들 때문에 도림천에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새들의 번식, 아기 새 양육하는 모습 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흙, 풀이 있는 곳에 아기새들을 데리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FGI, 참여자 F)와 같은 응답이 있었음.
- 마지막으로 도림천에 서식하는 동물과 도림천의 생태 회복 또는 환경오염을 밀접하게 연관하여 생각하는 답변이 있었음. ‘옛날엔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동식물이 살기 힘든 환경이었으나, 최근에 들어 다양한 새들과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볼 수 있어서 좋다.’,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할머니집이 도림천 근처라서 갈 때마다 도림천에서 새들도 구경하고 물고기도 구경하고 그랬어요. 맑았던 물에 쓰레기가 떠다닐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번식하는 새들이 줄어들었어요. 환경오염이 심해졌습니다. 안타까워요. 포크레인으로 흙을 판 곳이 원래 새들의 서식처였습니다. 주변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적 복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환경이 변화하는 등의 상황 생기면서 새가 떠나갑니다. 새도 환경이 더 좋은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비가 와서 환경이 좋아지면 더 오는 것 같아요.’(FGI, 참여자 F)와 같은 응답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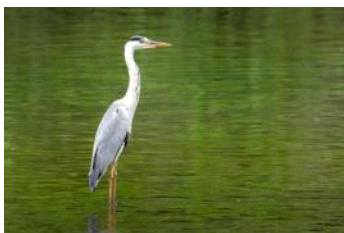
(2) 특별한 동물 이야기

가. 조류

- 왜가리, 중대백로, 쇠백로

- 왜가리와 백로는 모두 백로속에 해당하며 본래 여름철새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월동까지 하는 개체가 늘어나 일부는 텃새라고 할 수 있음. 도립천에서는 자주 만날 수 있는 새이지만, 하천변을 제외한 도심에서는 쉽게 볼 수 없으며 크기도 커서 시민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있음. 또한 물고기는 물론 황소개구리, 뱀, 쥐까지 잡아 먹을 정도로 하천 조류 중 최강의 포식자라할 수 있음.
- 왜가리와 백로는 크기가 비슷하고 긴 목과 다리,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서식지역이 겹쳐 사람들이 이들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왜가리는 몸이 전체적으로 회색 빛을 띠고 머리 부분과 어깨에 검은색 깃이 있으며 백로류의 새 중에는 몸이 가장 큼. 그에 비해 백로는 부리와 다리의 색을 제외하고는 몸 전체가 흰 깃털로 덮여있음.
- 중대백로와 쇠백로를 우선 크기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쇠백로는 중대백로의 절반 정도 크기임. 좀더 확실한 방법은 발의 색깔을 보는 것임. 중대백로와 쇠백로 모두 다리는 검은색인데 발의 색은 각각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차이가 있음. 번식기에 나타나는 특징도 서로 다른데 중대백로의 경우 평소에는 노란 부리를 가졌지만 여름 번식기에는 부리가 검게 변함. 쇠백로는 늘 검은 부리인데 번식기에는 머리에 장식 깃 2개가 나오는 점이 특이함.

<그림 44> 왜가리



<그림 45> 중대백로



<그림 46> 쇠백로



- 왜가리(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01541
- 중대백로(원작자: 이병윤,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01543
- 쇠백로(원작자: 시더스넷,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01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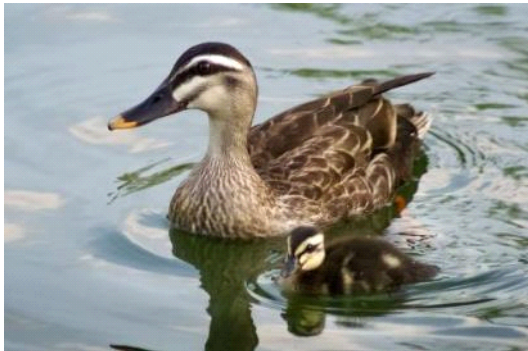
○ 흰뺨검둥오리와 청둥오리

- 도립천을 걷다보면 흰뺨검둥오리와 청둥오리가 물위를 자유롭게 수영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청둥오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립천에 사는 생물 중 가장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음. 백로속 조류들이 여름철새였다가 텃새가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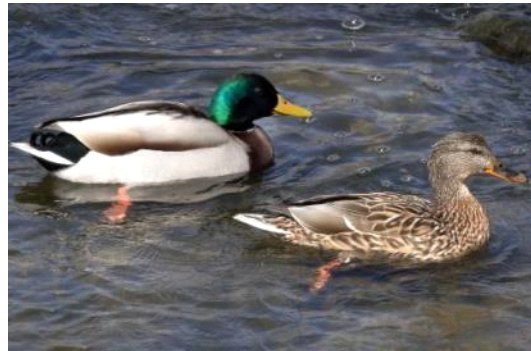
다면, 흰뺨검둥오리는 원래 겨울철새였는데 텃새가 되고 있음. 청둥오리 역시 겨울철새였다가 텃새화 되고 있음. 흰뺨검둥오리와 청둥오리 모두 물가에 둥지를 틀고 사는데, 청둥오리는 해가 질 무렵에 농경지 등에서 먹이활동을 함.

- 흰뺨검둥오리는 암갈색을 띠는데 몸에 갈색 비늘무늬가 있으며, 부리는 검은색인데 끝은 노란색임. 청둥오리의 암컷은 흰뺨검둥오리와 비슷하지만, 몸의 무늬색이 더 진한 편이고 주황색 부리에 검은 반점이 있음. 오리과 새의 수컷은 번식기에 대부분 화려한 깃으로 장식하는데 흰뺨검둥오리는 암컷과 수컷의 외형이 거의 비슷하여 특징적임.
- 청둥오리의 수컷은 평소에는 암컷과 색이 유사하지만 번식기에는 녹색의 번식 깃이 돋아나 머리는 광택이 나는 청록색, 가슴은 밤색, 등 부분은 전반적으로 회색을 띠게 됨. 번식기가 끝나면 다시 원래의 깃털로 돌아감.

<그림 47> 흰뺨검둥오리



<그림 48> 청둥오리



- 흰뺨검둥오리(원작자: 시더스넷, 저작권재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sn=12000001441
- 청둥오리(원작자: 시더스넷, 저작권재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sn=12000001440

○ 붉은머리오목눈이

- 붉은머리오목눈이는 흔히 ‘뱀새’라고 부름. 크기가 작은 새로 움직임이 빠르고 언뜻 참새와 혼동되기도 함. 그러나 뱀새는 주로 수풀, 덩굴, 관목에 살기 때문에 자주 보기는 어려움.
- 작은 텃새로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의 주인공임. 또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탁란을 하는 뱀새의 둥지에 신새를 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곤충

○ 소금쟁이

- 어린이들이 관찰하며 흥미를 느끼는 곤충 중 하나가 소금쟁이임. 곤충임에도 물에 살고, 더구나 수면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임. 소금쟁이는 주로 고여 있거나 아주 천천히 흐르는 물에 사는데, 표면장력의 원리에 의해 물에 뜰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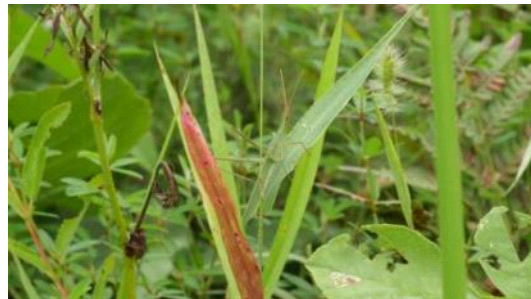
○ 방아깨비

- 방아깨비는 메뚜기과에 속하는데 그 생김이 다른 메뚜기와는 사뭇 다름. 특히 암컷 방아깨비는 몸이 크고 길쭉하며 머리의 앞쪽이 뾰족하며, 보호색을 띄고 있어서 단 자엽 식물의 풀잎에 섞여있으면 찾기 어려울 정도임. 과거에는 들에서 어린이들이 방아깨비를 잡고 놀았는데, 뒷다리를 붙잡고 있으면 도망가기 위해 움직이는 모양이 방아를 찢는 것 같다하여 방아깨비라는 이름이 붙었음.

<그림 49> 소금쟁이



<그림 50> 방아깨비



- 소금쟁이(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25982
- 방아깨비(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37449

○ 부전나비

- 부전나비과에는 다양한 종이 있으며 전국 각지에 분포하여 자주 볼 수 있는 나비임. 도립천에서는 부전나비, 암떡부전나비, 작은주홍부전나비가 관찰되었음. 부전나비과에 속하는 종이 많아 개별 생태도 각각 다르게 나타남. 날개의 색, 점의 위치와 수 등 외형을 알게 된다면, 산책길에서 보는 나비가 모두 같지 않음을 관찰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임.

<그림 51> 부전나비



<그림 52> 암먹부전나비



<그림 53> 작은주홍부전나비



- 부전나비(원작자: 배양섭,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120470>
- 암먹부전나비(원작자: 현진오,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34408>
- 작은주홍부전나비(원작자: 배양섭,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34434>

다. 기타 동물

○ 붕어, 잉어

- 붕어와 잉어는 모두 잉어과에 속하며 도시의 하천, 호수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어 친근함. 붕어는 수질이 아주 좋지 않은 곳에서도 잘 살아가지만 경계심이 많아 물 풀, 돌 등에 몸을 숨긴다고 알려져 있음.
- 붕어와 잉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염의 유무로 붕어에게는 없지만 잉어에게는 수염이 있음. 멀리서 관찰할 때는 크기로 구별할 수 있는데 붕어는 성어의 크기가 보통 25~30cm이며 잉어는 50~100cm 정도라 크게 자라는 경우 대체로 잉어라 볼 수 있음. 또 잉어는 한강 등 물이 많은 곳에서 사는데 붕어는 하천의 흐름이 약한 곳이나 호수에 서식함. 사업대상지는 도림천의 중류이기에 붕어와 잉어를 자주 보았다는 시민의 응답이 많았음.

<그림 54> 붕어



<그림 55> 잉어



- 붕어(원작자: 최승호,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57547>
- 잉어(원작자: 최승호, 저작권산권자: 국립생물자원관)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Link=009&subMenu=009002&contCd=009002&ktsn=120000057558>

○ 붉은귀거북

- 붉은귀거북의 원산지는 미국으로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후반 방생 등을 위해 수입되었음. 잡식성이며 수질이 좋지 않은 하천, 호수에서도 생존하고 국내에 천적이 없어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고유종 곤충, 어류, 양서류 등을 포식하여 생태계를 교란함.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기르는 경우도 있음.

4. 생태 복원을 위한 생물

1) 수질정화 수생식물

- 수질을 정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생식물은 오염물질, 영양염류(규소, 인, 질소 등)를 흡수하는 동시에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을 통해 물을 깨끗하게 함. 또한 하천이나 호수변 흙이 휩쓸려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하며 새, 곤충 등 천변에 살아가는 생물이 숨고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 대표적인 수질 정화식물로는 갈대, 부들, 고마리, 개구리밥, 창포, 미나리, 물옥잠, 줄 등을 들 수 있음. 이 중 많은 수질정화 수생식물이 이미 도립천에서 식생하고 있으나 구간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며, 특히 사업대상지에는 상대적으로 적음.
- FGI에 참여한 시민은 ‘시냇물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는 식물 중 ‘쪽’이 예뻐요. 수변 식물 말이죠. 꽃도 예쁘고 잘 자라서 좋아요. 부들도 연못에 늘 자라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창포도 그렇고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수생식물군, 시골에 가면 생활하수가 내려오는 도랑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도립천에도 심으면 좋겠어요. 번식력도 좋으니깐요. 부들, 창포, 뱀딸기도 잘 자라니까 있으면 좋겠네요.’(참여자 B), ‘천이 얇고 진흙이 많은 곳에서는 연꽃이 잘 자라던데, 심어보면 어떨지요?’(참여자 C) 등 의견을 통해 수질정화 수생식물의 필요성을 제기함.

2) 생태계 교란 생물

- 생태계 교란 생물이란 위해성평가에 따라 생태계 등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생물로 외래생물, 유전자 변형 생물체 또는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생물이 포함됨. 생태계 교란 생물의 경우 학술연구, 식용 목적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반입, 사육 등이 가능하지만 이미 자연 상태에서 확산 중인 생태계 교란 생물이 많음.

- 현재 생태계 교란 생물로는 포유류 1종(뉴트리아), 양서류·파충류 6종(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전종), 어류 3종(파랑볼우럭(블루길), 큰입배스, 브라운송어), 갑각류 1종(미국가재), 곤충류 8종(꽃매미, 붉은불개미, 등검은말벌,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아르헨티나개미,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식물 16종(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가시상추, 갯줄풀, 영국갯끈풀, 환삼덩굴, 마늘냉이)이 지정되어 있음.
- 이 중 도림천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은 파충류 1종(붉은귀거북), 식물 5종(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가시상추, 환삼덩굴)으로 총 6종이 관찰되었음.

<표 18> 도림천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

구 분	종 명
파충류	붉은귀거북속 전종 <i>Trachemys spp.</i>
식물	돼지풀 <i>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i> 단풍잎돼지풀 <i>Ambrosia trifida</i> 서양등골나물 <i>Eupatorium rugosum</i> 가시상추 <i>Lactuca scariola</i> 환삼덩굴 <i>Humulus japonicus</i>

- 한편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하여 다른 관점의 생각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음. FGI 참여자 I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식물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환삼덩굴을 떠올렸어요. 생태 교란종이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무성히 덩굴을 덮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작은 식물을 키워내기도 한다고 해요. 약재로도 쓰이는 등의 나름의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라는 의견에 이어 ‘여기서 대림동과 도림천의 관계를 떠올려 봤어요. 대림동 하면 대중 매체에서는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곳으로 묘사되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도 있지요. 지나가는 도림천에 있는 환삼덩굴을 보며 대림동이 떠올랐어요.’라고 발언함. 참여자 B도 ‘우리나라가 전쟁통에 히히벌판이 되었을 때, 그곳을 채워준 아이들은 생명력이 강한 아카시아와 같은 식물이에요.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터를 닦아주는 것이죠.’라는 의견을 제시함.

5. 도림천 생태 복원의 의미

1) 시민참여 하천복원의 의미

- 고창택, 정환도, 하야세 코우지(2005, 71-94)는 생태 복원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해 생태 복원 프로그램의 모형으로 ‘시민참가형 하천복원 프로그램’, ‘인간-자연 관계 회복형 프로그램’, ‘자연형 하천복원 기술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 우선 시민참가형 하천복원 프로그램은 하천복원에 필요한 조사, 법적 대응, 학교 교육, 네트워크 부문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자연형 하천복원 기술적 프로그램’은 기존에 진행되어온 전문 기술을 활용한 하천복원임.
- ‘인간-자연 관계 회복형 복원 프로그램’은 하천복원에 있어서 생태공학적 접근을 하되 하천복원을 통하여 ‘생태적 시민의식’을 개발하고, 시민이 복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 및 공동체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임. 즉 인간이 일방적으로 하천을 변화시키거나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자율적 주체’로 보고, 자연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나아가 인간이 하천과 오랫동안 맺어온 관계를 역사·문화적으로 해석해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인간 문화와 자연 하천을 연결하는 상징적 의식이나 구체적 퍼포먼스가 시대흐름에 걸맞게 시연”될 필요가 있으며, 하천 및 인근지역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조사가 수반되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도림천 생태극장’ 특히 그린쉘터 부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2) 생태복원과 ‘그린쉘터’

- 환경부(2011a, 2)는 생태하천 복원의 유형을 크게 원형복원, 유사복원, 대체복원의 3가지로 구분하였음. 원형복원은 교란된 생태계가 본래의 자연조건과 생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자 하는 복원의 형태를 의미하며, 유사복원은 이미 훼손된 생태계의 생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시키는 것을 말함. 마지막으로 대체복원은 생태계를 활용 목적에 맞도록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함.
- 정민걸(2011, 3)에 따르면 하천 복원에는 구체적으로 6가지 유형이 유형이 있는데, <표 21>과 같음. 이를 앞서 언급한 원형복원, 유사복원, 대체복원과 비교하면 유형Ⅱ와 유형Ⅲ은 원형복원에 가깝고 유형Ⅳ와 유형Ⅴ는 유사복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유형Ⅵ은 대체복원의 개념에 가장 근접함. 아래 표에 미루어보면 현재 도림천

의 상태는 유형Ⅱ와 유형Ⅲ이 혼재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지의 경우 유형Ⅲ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사업대상지에는 원형복원을 추구하는 형태복원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표 19> 하천복원의 유형과 원칙

유형	현 상태	조치
I 그대로 보존	강의 수로와 범람원 형태가 천연 그대로여서 자연의 과정이 잘 진행되는 곳	침식, 퇴적, 사행 등의 자연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허용
II 간섭 제거	수로와 범람원 형태가 변형되었지만 적절한 수류의 힘과 퇴적물 공급이 있는 곳	제방을 제거한 후 자연의 과정이 형태를 스스로 회복하게 허용
III 형태 복원	수로와 범람원 형태가 변형되었고 적절한 수류의 힘과 퇴적물 공급이 없지만 자연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곳	자연의 과정이 형태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간섭 이전의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에 국한
IV 과정의 복원	댐이나 제방 때문에 자연의 과정이 변형된 곳	댐의 방류량을 늘려 하류 물의 동태를 복구하거나 댐 하류에 굽은 퇴적물을 공급하거나 제방을 제거하고 범람원과 연결
V 형태 설계	자연의 과정이 회복 불가능하게 변형된 곳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태를 설계하여 실험적인 복원
VI 정원 조성	고도로 도시화해서 하천공간을 더 주는 것이 불가능한 곳	인위적으로 생태적 요소를 가미할 수는 있지만 생태적 혜택은 거의 없고 사람의 접근, 여가와 공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음

출처: 정민걸, 2011.

- 그러나 현재 ‘도림천 생태극장’의 일환으로 계획 중인 생태복원 방식은 ‘그린 셀터’를 설치하는 것임. 즉 도림천의 생물이 서식하며 먹이활동, 번식, 휴식 등을 하는 생물 서식지를 시민참여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적인 방식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표 19>의 분류에 따르면 사실상 유형V 또는 유형Ⅵ에 가까운 조치라 할 수 있음. 또한 환경부(2011b, 96)는 생태 시스템의 차원에 있어서 생물 서식지를 조성할 때에는 인공적인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목표를 분명히 하며 재료 사용에 신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다만 생태복원과 수변환경 조성을 위한 목표는 단일하지 않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음. 김경훈(2021, 78)은 자연생태계의 복잡성과 회복력을 고려하여 생태복원의 목표를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따라서 그린 쉼터가 도림천의 생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현 도림천의 상태를 고려하고, 그린 쉼터를 통한 하천복원의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여 알맞은 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해야할 것임.

- 한편 방법적으로는 경안천의 사례를 제시함. 변찬우(2010, 57)는 경안천의 생태복원 과정에서 생물의 서식처 등을 만들기 위하여 소생물서식처(biotop)와 생물서식처(habitat)를 설계하였음. 여기에 활용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그린 쉼터 조성에는 징검다리형 여울, 거석소, 횃대, 다공질말뚝, 통나무, 돌무더기 등을 참고할만 함.

도림천 생태극장에 대한 시민 의견

1. 도림천에 대한 인식
2. 도림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3. 도림천의 과거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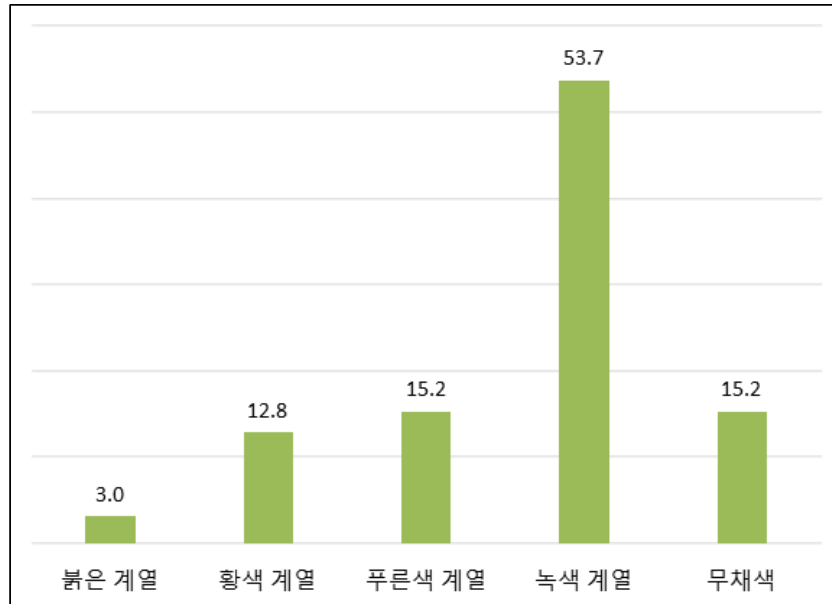
IV 도림천 생태극장에 대한 시민 의견

1. 도림천에 대한 인식

1) 도림천에서 연상되는 색상

- 도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현재의 도림천에 대하여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한 “도림천을 생각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나요?”라는 질문에 녹색 등의 녹색 계열 색상이 연상된다는 답변의 비율이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파랑, 보라 등의 푸른색 계열이 연상된다는 답변이 15.2%, 흰색, 검정 등의 무채색이 떠오른다는 답변이 15.2%로 나타났으며, 빨강, 주황 등 붉은색 계열의 색상이 가장 낮은 비율(3.0%)로 나타났음.
- 식물, 물, 하늘 등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녹색 계열, 푸른색 계열의 색상이 68.9%로 많이 연상되었음. 다만 무채색과 황색 계열을 떠올리는 응답자가 28%로 나타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56> 도림천에서 연상되는 색상 (%)



(N=164)

2) 가장 좋아하는 도림천의 풍경과 기억

- 도림천에 관심있는 시민 대상 FGI 중 “좋아하는 도림천의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누군가와 기억이 있으신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 응답이 있었음.
- “도림천은 여름에 비올 때가 좋았어요. 평소 강아지와 산책 갈 때도 안양천을 가지 도림천에는 잘 안 갔어요. 안양천으로 나가면 목동도 보이고, 야경도 아름답고. 내가 세련된 서울 시민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비올 때는 강아지도 저도 젖지 않고, 다리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도 좋고. 그래서 좋아합니다.”(참여자 G), “저는 봄이 좋아요. 수량도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새싹도 있고. 여름은 굉장히 무서운 계절입니다. 여름에 비가 조금만 굶어지면 10분 정도 후엔 물이 무섭게 늘어나요.”(참여자 B), “저는 걷거나 자전거 타는 일은 별로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구디(구로디지털단지)에서 신도림으로 가다 보면, 해가 지는 시간대가 좋은 듯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에 비친 노을, 안양천으로 보이는 해지는 풍경이 떠올라요.”(참여자 A), “벚꽃 폼을 때가 어느 때보다 좋더라고요. 터널처럼.”(참여자 C), “저는 번식기가 좋아요. 새들이 번식할 때. 여름에는 바람이 시원하고, 비가 조금 올 때는 운동기구를 쓸 수도 있고요. 운동기구에 누우면 볼에 스치는 바람이 시원해서 상쾌해요. 아침, 저녁, 비 조금 올 때, 낮에는 자전거 탈 때. 도림천이 주위에 있다는 건 대단히 행운입니다. 우리 눈에 아름다운 것보다는 생명이 살아있는 깨끗한 도림천을 만들면 동식물도, 우리도 잘살 수 있을 거예요.”(참여자 F) 등 답변이 있었음.

3) 도림천 이용 시 불편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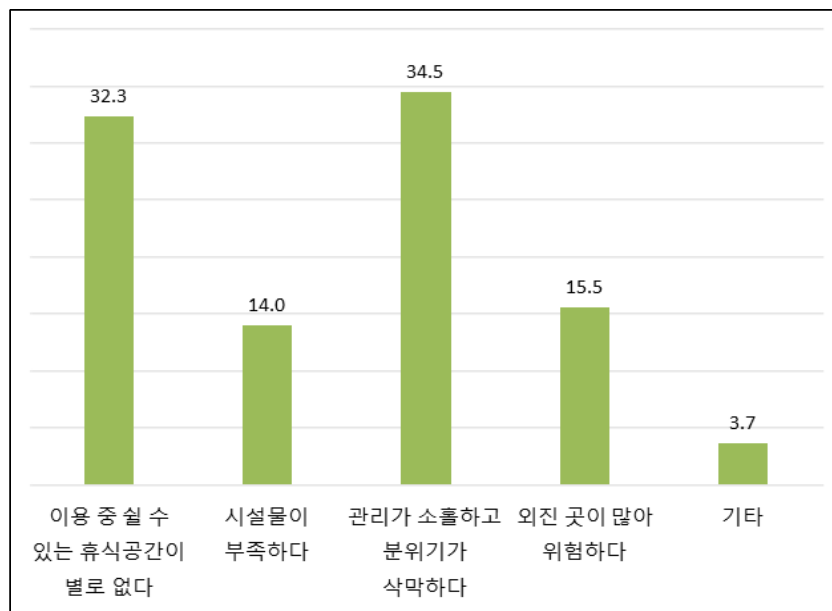
가. 설문조사 결과

- “도림천 이용 중 불편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도림천변의 전반적인 관리가 소홀하고 분위기가 삭막하다’는 의견이 34.5%로 가장 높게 답변되었음. ‘이용 중 설 수 있는 휴식공간이 별로 없다’는 답변도 32.3%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이어서 ‘외진 곳이 많아서 위험하다’는 의견이 15.5%, ‘시설물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14.0%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은 3.7%로 나타남.
- 기타 세부의견은 크게 생태환경 개선의 필요성, 시설 개선의 필요성, 안전 관리의 필요성 등이 언급되었음. 구체적으로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 쾌적하지 않다, 냄새가 난다’ 등 생태환경 개선이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갑자기 사람이 자전거도로로 들어오면 위험하다, 인도가 좁다, 경사로가 부족하다’ 등이 답변되었음. 안전과 관련해서는 ‘가로 등이 적다, 어두운 곳이 많다’ 등이 지적됨.

- 도로 및 자전거 이용객이 많은 도림천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수질 등 생태환경 개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통행로 확보, 추가 조명 설치를 통한 안전 확보 등이 향후 개선·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도출됨.

<그림 57> 도림천 이용시 불편한 점(%)



(N=164, 복수응답, 응답순위별 가중치)

나. FGI에 나타난 도림천 개선사항

- 도림천에 대하여 FGI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정보가 교환된 주제는 도림천 이용시 불편한 점이었음. 향후 진행될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하여 도림천의 전반적인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는 없겠으나,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여 작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도림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된 FGI 내용을 신고자 함.
- 장마철 홍수로 인한 위험성 및 시설물 보존의 문제
 - “도림천은 유량의 차이가 심할 때는 1,300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교량 출입구까지 막힐 정도여서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 천이 도림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비가 한번 들어오면, 견잡을 수 없이 도림천 주변을 밀어버려요. 시설물이 얼마나 유지될지에 대해서도 염려스러워요. 보존, 유지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것을 설치 미술했 때 감안해야 합니다.”(참여자 A)

- “안전문제를 해결하면서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이 불어나면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예요.”(참여자 B), “주민들이 도림천에 활발하게 출입을 하도록 하려면 물이 불었을 때 바로 진출입 가능한 통로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참여자 A)

○ 악취, 매연 등 문제

- “양천구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쪽 와서 신도림에서 전철을 타고 출퇴근 합니다. 안양천은 강이 넓고 주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도림천으로 들어설 때면 냄새가 심해져요.”(참여자 C),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더라도 악취가 심할 때는 현기증이 나고 속이안 좋을 정도라고 합니다. 조명, 안전, 공기질, 수질 등을 해결하고 접근해야 공간에 대한 이용이 자유로울 것 같아요.”(참여자 A)
- “도림천에 가자고 이웃들에게 권해도 안 갑니다. 악취가 심하고,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그 매연이 하천 쪽으로 쏟아져요. 만약 도림천을 아름답게 만든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텐데 그러면 악취도 더 심해지고 매연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오히려 깨끗한 윗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할 텐데, 이 근처는 너무 차 중심입니다.”(참여자B)
- “저는 도림천 교각 옆에 살고 있는데 악취는 시, 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 대한 조사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냄새가 나고, 어느 때는 안 나는데 왜 그런지 확인도 해야 하고요. 비오는 날에는 폐수 방류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참여자 H)

○ 안전 문제

- “열주 밑이 깊고 킁킁해서 날이 어두워지면 위험합니다.”(참여자 A), “밤에는 우범지대로 느껴지는데, 진출입구가 적어서 범죄자를 마주쳐도 피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참여자 B)

- “도림천을 걸어서 지나갈 때면 낮인데도 어둡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리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밝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험지역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도로도 좁아서인지 안양천에서 도림천 쪽으로 넘어오기가 꺼려져요.”(참여자 D)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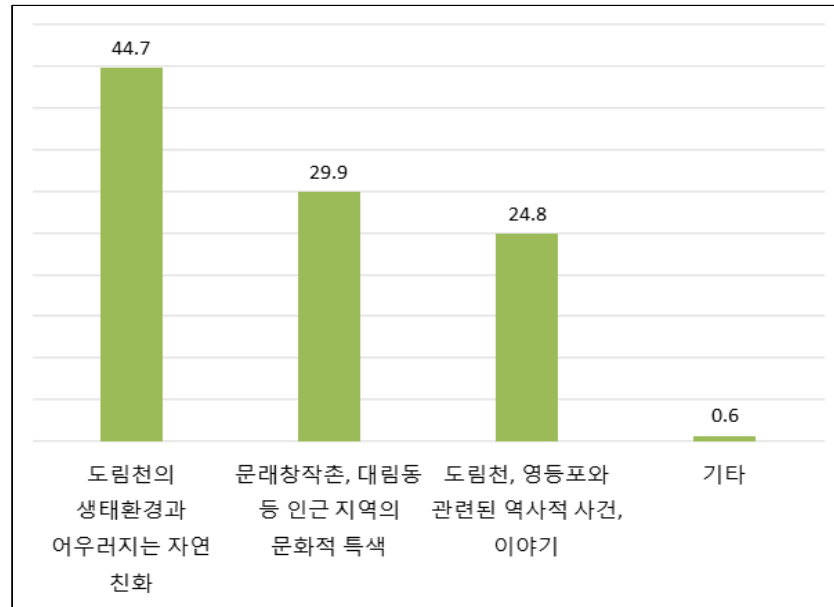
- “친절하지 않은 표지판,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역 방향도 잘못 표시되어 있고 화장실, 출구가 얼마쯤 가면 있다라는지 표지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H)
- “도림천에는 자동차 다리만 있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요. 하천 위에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고요.”(참여자 H)

2. 도림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1) ‘도림천 생태극장’ 에 적합한 주제

- 도림천을 찾는 주민들은 영등포구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도림천 생태극장’에 대하여 어떤 방향성을 가지길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을 통해 ‘도림천 생태극장’에 가장 적합한 주제를 물었음. 시민 의견 중 ‘도림천의 생태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인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답변의 비율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도림천 주변 지역을 잘 드러내는 ‘문래창작촌, 대림동 등 인근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표현한 공공예술이면 좋겠다는 응답이 29.9%, ‘도림천, 영등포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 이야기’를 담은 공공예술을 원한다는 응답이 24.8%로 나타남.
- 기타 답변은 0.6%였으며, 세부 기타의견으로는 ‘생태극장 등의 공공예술과 함께 생태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아트 워크가 필요하다.’, ‘벽화가 필요하다.’ 등이 확인됨.
- 응답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1순위에 해당하는 응답만 분석했을 때에는 ‘도림천의 생태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를 1순위로 꼽은 응답이 전체의 73.8%로 나타남. 이어서 ‘문래창작촌, 대림동 등 인근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16.5%, ‘도림천, 영등포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 이야기’는 9.8%로 나타남.

<그림 58> ‘도림천 생태극장’에 적합한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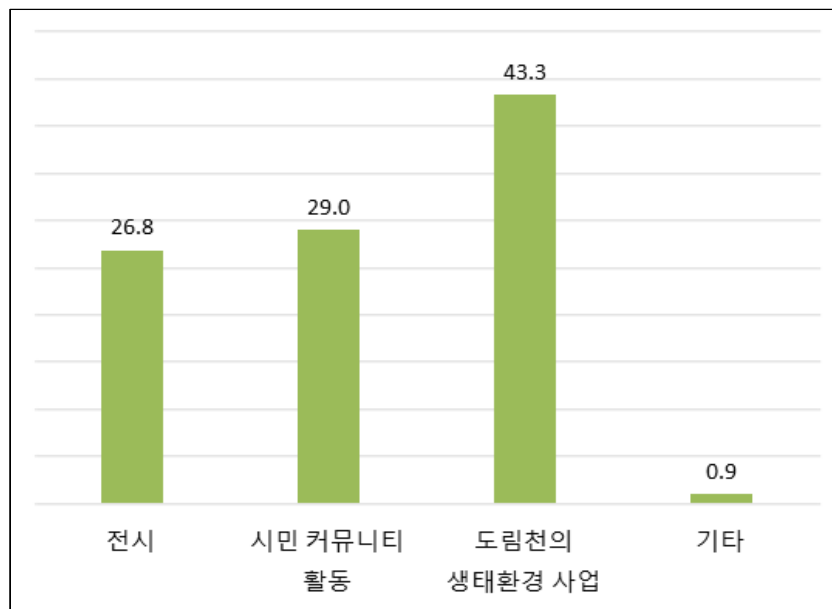
(N=164, 복수응답, 응답순위별 가중치)

2) 도림천에서 진행되기를 원하는 문화예술사업

- 앞서 문항에서 ‘도림천 생태극장’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알맞은 주제를 확인하였다면, 이 부분에서는 도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림천에서 진행되기를 원하는 문화예술사업의 형태를 알아보려고 하였음.
- ‘도림천 생태극장’에 적합한 주제로 다수의 응답자가 ‘도림천의 생태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를 선택했던 것과 유사한 경향이 본 문항의 응답에서도 드러남.
- 도림천에서 진행되기를 원하는 문화예술사업으로 ‘생태환경사업’을 원한다는 답변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시민 커뮤니티 등 모임’을 원한다는 답변이 29.0%, 다음으로 ‘전시(영상 상영 등)’을 원한다는 답변이 26.8%로 나타났음.
- 기타 답변은 0.6%였으며, 세부 기타의견으로는 ‘국악과 퓨전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생태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다른 문항에 이어 반복적으로 나타났음. 시민 참여를 통해 도림천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응답과 시민들이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줍깅’ 등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응답순위별 가중치 부여 없이 1순위에 해당하는 응답만 분석했을 경우에는 ‘도림천의 생태환경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1.3%, 이어서 ‘시민 커뮤니티 활동’이 14.6%, ‘전시’가 12.8%, 기타 1.2%로 나타남. 역시 도림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하여 생태환경과의 관련성을 높이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도림천에 관심이 있는 시민 FGI에서는 ‘여름에 아이들과 함께 한강몽땅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한강에 다리가 많은데 거기서 영화상영을 하더라고요. 도림천에 살고 있는 동·식물 그림을 다리에 프로젝션 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림천에 있는 식물, 동물들을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설명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막연하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우리 이런 사업을 하니 오시라고 참여 유도하기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참여자 D)와 같이 생태와 관련한 영상 상영을 제안한 바 있으며, 여기에 이어 ‘교각의 시멘트벽에 방수 페인트로 생물에 대한 설명, 지역 명소에 대한 설명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F)라는 의견도 제시 되었음.
- 한편 심층면접대상자 L은 중국동포들이 운동으로 즐기는 ‘광장무’를 하거나 자유롭게 춤 연습 등을 할 수 있는 무대 등 야외 문화 시설이 도림천에 설치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안하였음.

<그림 59> 도림천에서 진행되기를 원하는 문화예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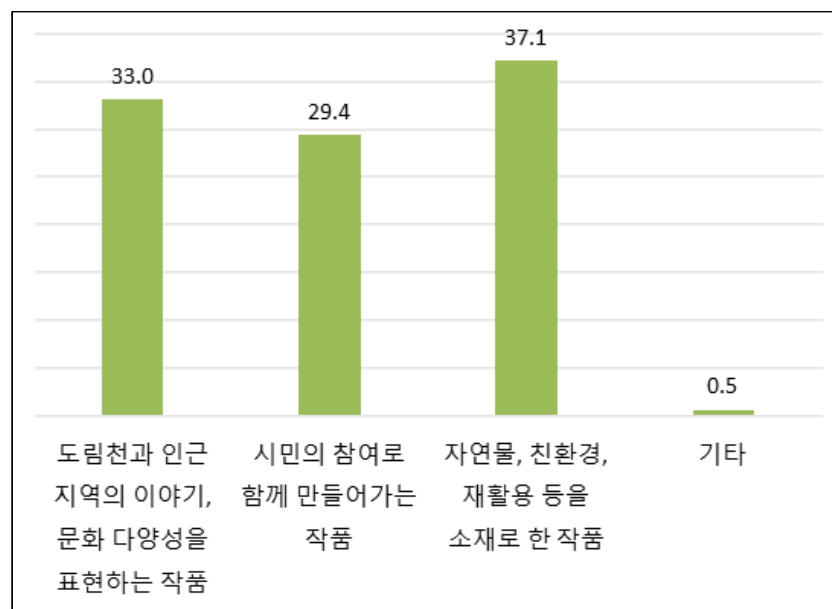


(N=164, 복수응답, 응답순위별 가중치)

3) 도림천에서 진행되길 원하는 야외전시

- 도림천에서 진행되길 원하는 야외전시를 고르는 질문에 ‘자연물, 친환경, 재활용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원한다는 답변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도림천 공공 예술 프로젝트 진행 시, 생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의 경향성이 확인됨.
- ‘도림천과 인근 지역의 이야기, 문화 다양성을 표현하는 작품’이 그 뒤를 이어 33.0%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시민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 29.4%로 나타났음.
- 기타 답변은 0.5%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세부의견으로는 ‘생태관찰이 가능한 야외전시가 필요하다’, ‘아트벤치 등 예술성을 가미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자연환경 그대로, 아무 전시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응답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1순위로 꼽은 응답만을 분석할 경우, ‘자연물, 친환경, 재활용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이 51.8%, ‘도림천과 인근 지역의 이야기, 문화 다양성을 표현하는 작품’이 28.7%, ‘시민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가는 작품’이 18.9%, 기타 0.6%로 나타남.

<그림 60> 도림천에서 진행되기를 원하는 야외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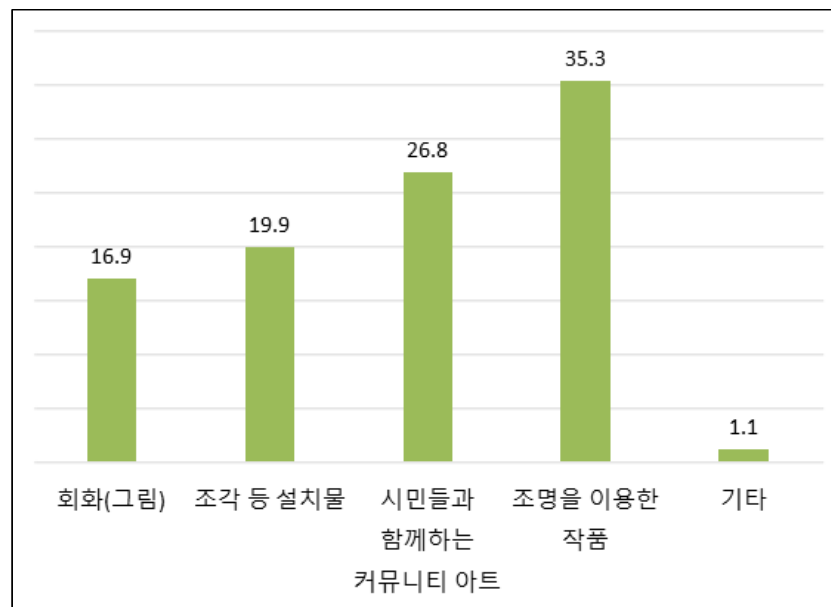


(N=164, 복수응답, 응답순위별 가중치)

4) 도림천 이용자가 원하는 공공예술작품 유형

- 도림천에 공공예술작품을 설치한다면 어떠한 유형의 작품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조명을 이용한 작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35.3%).
- 이어서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커뮤니티 아트’가 좋겠다는 답변이 26.8%를 차지하였음. ‘조각 등 설치물’은 19.9%, ‘회화(그림)’은 16.9%로 조사되었고, 기타 답변은 1.1%로 나타남. 기타 세부의견으로는 ‘자연생태를 활용한 공공예술’, ‘조경작품’ 등 생태에 대한 선호가 확인되는 한편,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1건 있었음.
- 조명을 이용한 작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데에는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해 도림천에 방문하는 이용객의 비중이 높은 점, 안전한 도보 환경을 원하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또한 도림천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한 점을 묻는 설문에서 ‘분위기가 삭막하다’는 의견과 ‘외진 곳이 많이 위험하다는 의견’, FGI에서의 어두워 위험한 느낌이 든다는 응답에서 ‘조명을 이용한 작품’을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음.

<그림 61> 도림천에 설치되기를 원하는 공공예술 작품 유형(%)



(N=164,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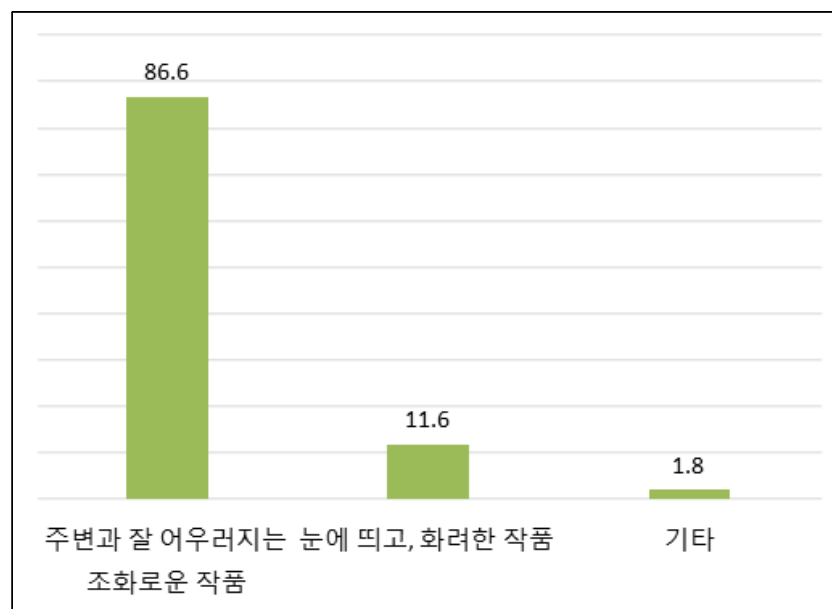
○ 한편 FGI에서도 ‘조명을 이용한 작품’을 설치하기 원하는 시민 의견이 있었음.

- “교각 밑은 어둡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노숙자가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조명이나 그림 등으로 밝게 해주면 좋겠어요.”(참여자 E)
- “양천구에서는 빛이 밑에서 올라오는 조명을 설치하였던데 그걸 해보면 어떨까요? 그 지역의 전설, 특색있는 것을 주제로 조명 아트, LED 아트 등으로 꾸며주면 어두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요?”(참여자 C)

5) 도림천 이용자가 선호하는 공공예술 작품의 성격

- 도림천 이용자가 선호하는 공공예술의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한 “도림천에 공공예술 작품을 설치한다면, 어떤 성격의 작품이 좋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작품’이라고 응답한 시민이 전체의 86.6%로 나타남. 다음으로 ‘눈에 띄고 화려한 작품’이라는 응답은 11.6%였음.
- 기타 의견은 1.8%로 구체적인 응답으로는 ‘도림천의 변화 및 미래의 모습 전시’, ‘예술·생태적 영감이 느껴지는 아트워크 작품’, ‘시민들이 즐겁게 관리할 수 있는 작품’이 있었음.

<그림 62> 도림천에 설치되기를 원하는 공공예술 작품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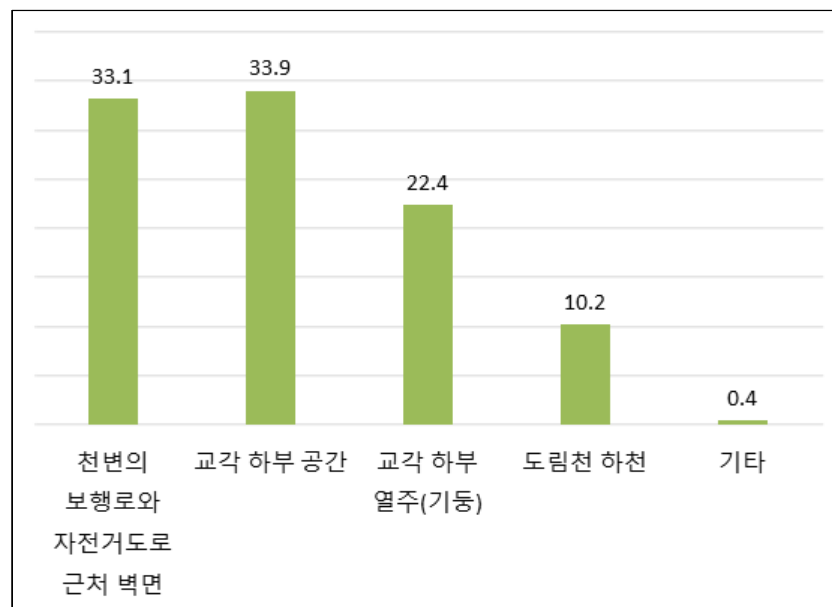
(N=164, 복수응답)

- 한편 FGI에서도 도림천 공공예술 작품의 성격에 대한 시민의 생각이 드러났음.
 - “도림천 끝단 역 주변에 살고 있어요. 이사 온 첫날 기억은 폭주족 소리였어요. 그라피티 그리는 사람들이었죠. 2011년 즈음에 서울 시내에 있는 그라피티 아티스트가 여기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둡고 위험한 지역이라 더 우려가 되어 그랬는지 구청에서 벌금을 부과했어요. 이사 온 첫 날에는 공포심, 어두움 같은 게 많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을 통해서 장소성이 부각되면 좋겠어요.” (참여자 G)
 - “도림천에서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고, 첫 자전거 동영상을 찍어주었습니다. 평생의 추억이 있는 곳이지요. 이 곳을 추억의 공간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적 이벤트나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H)

6) 공공예술작품 설치에 적합한 위치

- 도림천에 공공예술 작품을 설치한다면 어느 위치가 가장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시민들은 도림천의 ‘교각 하부 공간’에 공공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변했음(33.9%). ‘천변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근처 벽면’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뒤이음(33.1%). 그 밖에 ‘교각 하부 열주(기둥)’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22.4%, ‘도림천 하천’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10.2%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은 0.4%로 나타남.

<그림 63> 공공예술작품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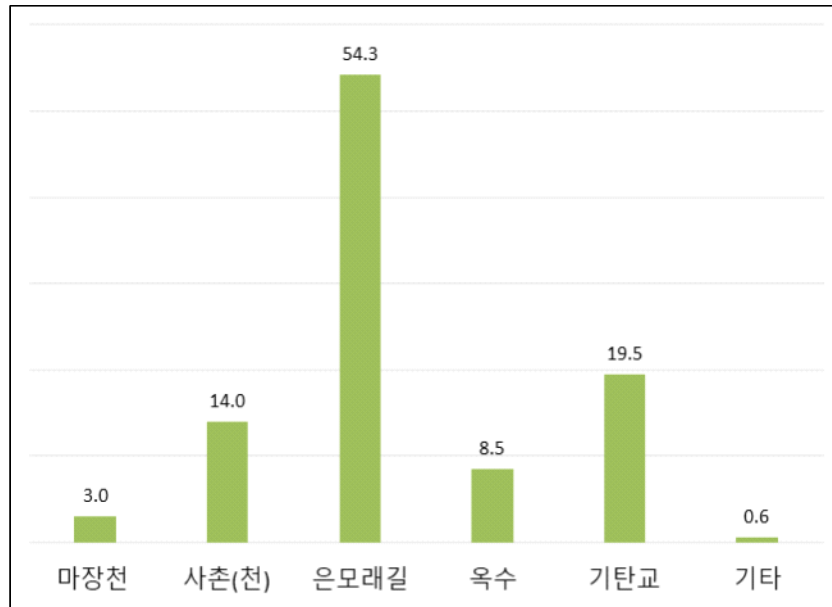
(N=164, 복수응답, 응답순위별 가중치)

3. 도림천의 과거와 미래

1) 현재의 도림천과 가장 유사한 도림천의 과거 지명

- 도림천의 과거 지명 중 현재 도림천의 이미지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름을 선택해달라는 질문에 ‘은모래길’이 5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은모래길은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톱이 있는 도림천의 풍경을 표현한 과거 지명임.
- 이어서 ‘기탄교’라는 지명이 현재 모습과 유사하다는 응답이 19.5%로 나타났음. 기탄교는 대림천과 도림천이 합수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지명임.
- ‘사촌(천)’이 현재와 유사하다는 응답은 14.0%임. 사촌(천)은 도림천이 모래밭 근처 마을이라는 의미로, 황석영 작가의 ‘모래말 아이들’에 등장하는 과거 지명임.
- 옥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을 지칭하는 ‘옥수’라는 과거 지명은 8.5%, 조선시대 말 목장이 있던 곳을 지칭하는 ‘마장천’이라는 과거 지명은 3.0%를 차지함.

<그림 64> 현재 도림천의 인상과 가장 유사한 과거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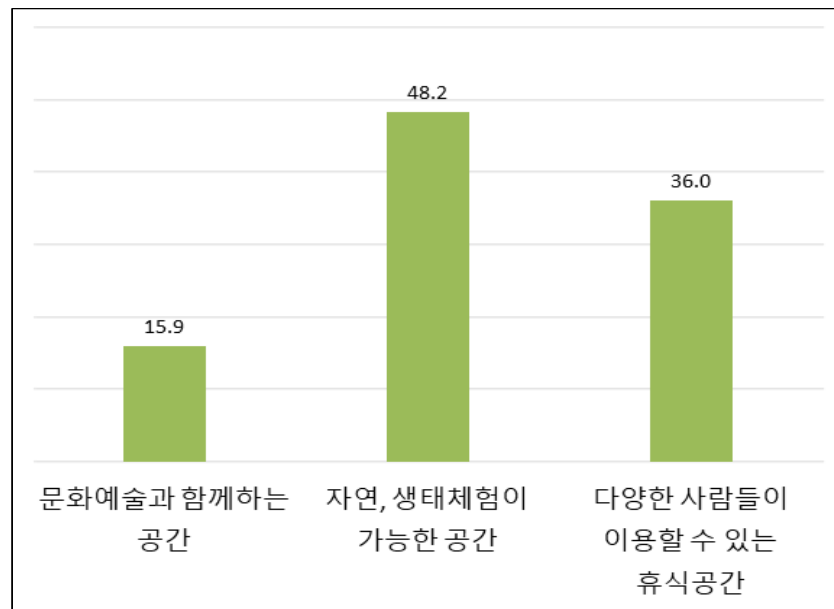
(N=164)

2) 향후 도림천 개선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 “향후 도림천이 어디에 중점을 둔 공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자연, 생태체험이 가능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36.0%,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15.9%를 차지함.

<그림 65> 향후 도림천 개선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N=164)

- “앞으로 도림천이 어떤 곳이 되기를 바라시나요”라는 자유 응답 질문에서는 문화예술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더 상세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남. ‘휴식, 산책, 운동과 함께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버스킹, 전시, 영상 등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곳’, ‘복합문화공간’, ‘생태와 예술이 만나는 곳’,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문화공간’, ‘도심 속 문화생태공간’, ‘흐르는 물 주변에 새로운 볼거리가 있는 곳’, ‘ 삭막한 분위기가 사라진 화사한 휴식공간’이면 좋겠다는 등의 세부의견이 제시되었음.
- 생태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욕구도 나타남.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공간’, ‘자연환경이 보호되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 ‘사람들에게는 휴식과 운동을 주고, 그리고 동식물이 함께 잘 살아가는 공간’, ‘수질도 개선되고, 자연생태가 잘 보전되는 곳’, ‘생태 교육과 체험이 진행되는 공간’, ‘계절마다 꽃이 피는 곳’이 되길 원한다 등의 세부의견이 확인됨. 특히 수질 개선, 깨끗한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 확인되었음.

- 사회적 교류에 대한 욕구도 드러남. ‘힐링의 장소이나 만남의 장소가 되면 좋겠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화하고, 자연과 사람이 만나 휴식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안한 곳이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제시됨.
-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도 확인됨.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밝은 곳이면 좋겠다.’, ‘도림천 진출입 구역이 안전해지면 좋겠다’, ‘조명이 환하고 깨끗하면 좋겠다.’, ‘안전한 산책길이면 좋겠다.’, ‘방치된 공터를 재정비하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제시됨.
- 또한 ‘시민들의 삶과 가깝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곳’,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자주 들를 수 있는 편안한 곳’, ‘모든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확인됨. 도림천이 지하철역, 주거단지 등에 가까이에 있는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편하게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문화생태환경이 조성되길 원하는 의견이 많았음.

공공예술
‘도림천 생태극장’을 위한
제언

- 공공예술 ‘도림천 생태극장’은 도림천 및 수변공간의 자연성, 지역성, 예술성을 회복하고, 도림천으로 시민들을 초대·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위한 문화 다양성의 감각을 경험하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인포그래픽, 수변갤러리, 그린쉘터, 생태극장, 커뮤니티 라운지 등 공간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하여 도림천변이 그동안 바쁘게 지나치기만 했던 공간에서 시민이 머물러 즐기고, 경험하고, 서로 어울리고 이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동시에 서로 단절되었던 지역과 세대가 만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조사 결과로부터 도출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1. 공공예술 ‘도림천 생태극장’ 의 방향성

- 도림천을 찾는 시민들이 도림천변에 가장 기대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생태의 복원 또는 보전에 기반해 있음. 따라서 생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도림천 및 수변에 설치되는 작품의 성격이 도림천의 환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하천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생태를 보전하는 동시에 생태적인 요소를 공공예술 작업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시민의 도림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함.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공공예술에 직접 참여하여 작품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편은 아니었음. 그러나 FGI, 심층면접을 통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인터뷰 진행과정에서 그동안 도림천과 맺어왔던 관계를 충분히 떠올리게 한 후에 묻는 동일한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음. 특히 도림천의 생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고, 생태환경을 함께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음. 작품 설치 및 프로그램 진행 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도 도림천의 생태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예술을 통하여 도림천의 특별한 정서를 만들어 기존의 부정적인 느낌을 상쇄하는 작업이 필요함. 많은 시민이 현재 도림천의 시급한 변화로 생태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이 이용하는 천변 공간의 문제 해결을 꾀했음. 시민들이 도림천을 좀처럼 찾지 않는 이유가 어두움, 쓰레기, 악취 등 문제 때문이기 때문임. 그러나 문화재단의 본연의 업무도 아닐뿐더러 여러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를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방식으로 직접 풀어내기는 어려움. 다만 프로젝트 내에 천변 구간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품 및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도림천과 인근 지역의 역사,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도림천의 보전과 천변 환경 개선에 있어서 시민의 자발적 역할 수행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장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시민들은 그동안 도림천과 마주했던 시간을 돌아보고, 생태적 경험과 지역 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맺음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2. 주제별 제언

1) 전시 및 설치물

- 도림천에서 진행될 전시 및 설치물로는 주변 자연물을 이용한 자연미술이 바람직하며, 관람자를 실천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생태 디자인이어야 할 것임.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작업 등이 가능함.
 - 시민의 의견을 모아 이상적인 도림천의 풍경을 상상하는 작업
 - 하천의 훼손과 복원을 주제로 이미지화 하거나, 생태계 교란 식물이나 쓰레기 등을 오브제로 하는 작품
 - 도림천에 사는 동·식물을 이미지화 하거나, 도림천의 생태를 구성하는 무생물인 모래와 개흙 등을 재료로 하천을 이미지화 하는 작품
 - 도림천 및 인근 지역의 옛 지명을 현재의 지도에 레이어화 하는 작업
 - 마장천을 건너는 정조행차도 등 역사적 배경과 사건을 소재로 하는 작품
 - 문래동, 대림동 등 인근 지역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다루는 작품
 - 조명 등 장치를 통하여 도림천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작품

2) 공연

-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하여 생태극장 공간이 확보되면, 향후 시민이 관람 및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할 것임.
 - 정식 무대를 만난 시민 예술가의 정기공연
 - 도림천의 생태 및 천변의 역사를 담은 영상 제작 및 상영
 - 도림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도림천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영상 작품 제작 및 상영
 - 중국동포들과 함께 광장무 배우고 춤추기 프로그램

3) 체험 및 활동 프로그램

- 전시, 공연을 관람하고 참여하는 형태 외 체험 및 활동 프로그램이 도림천에서 지속될 경우, 시민이 도림천에 와야하는 이유가 생기고 활동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도림천에 다시 도움이 될 것임.
 - 도림천의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생태도감 제작
 - 아트마켓과 생태해설이 결합하는 체험부스 운영
 - 도림천에 있는 무명교 이름 함께 지어보기

참고문헌

국내문헌

고창택, 정환도, 하야세 코우지. 2005. 『생태 복원의 철학과 그 정책적 응용』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 지원사업 연구결과보고서.

김경훈. 2021. 생태복원 콘서트. 경기 의왕: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김인규, 이한수, 백운기, 이준우. 2010. “대전 3대 하천의 조류군집과 유사성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4(2): 147-156.

변찬우. 2010. 우리 풍토에 맞는 생태하천. 경기 파주: 나무도시.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5. 『동명연혁고 X(영등포구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 2011. 『영등포 근대100년사』.

아주경제. (2015). “[특파원스페셜]광장무 추는 따마, 과거 홍위병에서 세계경제 큰손으로”, 2월 1일.

이상돈, 김석철. 2008. “도림천 수변지역 조성을 위한 생태적 관리방안 및 하천환경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습지학회지』 10(3): 133-139.

이선. 2020. “‘손기정 월계관 기념수’에 대한 소고 -히틀러 참나무의 진실-.” 『한국조경학회지』 48(6): 48-57

정민걸. 2011. “4대강 사업으로 훼손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올바른 방향과 비용에 관하여-4대강 사업과 과거 명목뿐인 하천복원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한하천학회 발표문.

정승권, 김남일, 이길성. 2006. “안양천 건천화 구간의 발생유량 추이 분석.” 『한국수자원학회지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159-163.

환경부. 2011a. 『2011 생태하천 복원 가이드북(천생인생)(IV)』.

환경부. 2011b.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침서』.

황석영. 2013. 『모랫말 아이들』. 문학동네.

황석영. 2008. 『개밥바라기별』. 문학동네.

부록

<부록 1> 설문지

도림천 생태 및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 조사

안녕하세요.

영등포문화재단에서는 도림천에 방문하시는 시민들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객들에게 더 나은 생태, 문화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태 및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내용은 도림천 방문목적, 시설 이용, 생태 및 문화환경 개선 요청사항 등 관련 내용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응답하신 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의 관련 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대림역 고가 하부~신도림역, 약 2Km 구간)

바쁘시겠지만 설문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신분과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관기관: 영등포문화재단

■ 조사기관: (주)커넥터스랩 (☐ connectuslab@gmail.com)

성별	1. 남성	2. 여성	연령	만 ()세
거주 지역	1. 영등포구 2. 영등포 외 서울지역(아래 세부지역 선택)		3. 서울 이외	
세부 지역 (영등포 외 서울)	관악구	2. 구로구	3. 양천구	4. 동작구 5. 그 외 기타지역

1. 어떤 이유로 도림천에 방문하시나요? (복수응답 가능)

- ① 산책, 나들이 등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 ②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 ③ 지인들과의 만남 장소(대화 등)
- ④ 동호회, 취미활동 등 모임 참여
- ⑤ 운동을 하기 위해서
- ⑥ 자연 관찰
- ⑦ 그냥 지나가는 길
- ⑧ 기타 (_____)

2. 어떤 이동수단으로 도림천에 오시나요? (복수응답 가능)

- ① 도보
- ② 자전거
- ③ 버스
- ④ 지하철
- ⑤ 자가용
- ⑥ 기타 (_____)

3. 평균적으로 1회 방문시 얼마나 이용하시나요?

- ① 30분 미만
- ② 30분 ~ 60분
- ③ 1시간 ~ 2시간
- ④ 3시간 이상

4. 도림천을 생각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 ① 붉은 계열의 색상 (빨강, 주황 등)
- ② 황색 계열의 색상 (노랑, 갈색 등)
- ③ 푸른색 계열의 색상 (파랑, 보라 등)
- ④ 녹색 계열의 색상 (녹색 등)
- ⑤ 무채색 (흰색, 검정 등)
- ⑥ 기타 (_____)

5. 도림천 이용 중 불편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순서대로 2개를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이용 중 설 수 있는 휴식공간이 별로 없다
- ② 시설물이 부족하다
- ③ 도림천변의 전반적인 관리가 소홀하고 분위기가 삭막하다
- ④ 외진 곳이 많아서 위험하다
- ⑤ 기타 (_____)

6. 공공예술프로젝트 ‘도림천 생태극장’에 가장 적합한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순서대로 골라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4순위 _____

- ① 도림천의 생태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
- ② 문래창작촌, 대림동 등 인근 지역의 문화적 특색
- ③ 도림천, 영등포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 이야기
- ④ 기타 (_____)

7. 도림천에서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문화예술사업을 순서대로 골라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4순위 _____

- ① 전시 (영상 상영 등)
- ② 시민 커뮤니티 등 모임 (활동)
- ③ 도림천의 생태환경 사업
- ④ 기타 (_____)

8. 도림천에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야외전시를 순서대로 골라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4순위 _____

- ① 도림천과 인근 지역의 이야기, 문화 다양성을 표현하는 작품
- ② 시민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
- ③ 자연물, 친환경, 재활용 등을 소재로 한 작품
- ④ 기타 (_____)

9. 도림천에 공공예술 작품을 설치한다면, 어느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천변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근처 벽면
- ② 교각 하부 공간
- ③ 교각 하부 열주(기둥)
- ④ 도림천 하천 내
- ⑤ 기타 (_____)



10. 도림천에 공공예술 작품을 설치한다면, 어떤 유형의 작품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수응답 가능)

- ① 회화(그림)
- ② 조각 등 설치물
- ③ 도림천에서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커뮤니티 아트
- ④ 조명을 이용한 작품
- ⑤ 기타 (_____)

11. 도림천에 공공예술 작품을 설치한다면, 어떤 성격의 작품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눈에 띄고, 화려한 작품
- ②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작품
- ③ 기타 (_____)

12. 도림천에 살고 있는 식물 또는 동물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대로 적어주세요.

어떤 식물,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지 모름

12-1. 12번 문항에 적어주신 도림천의 식물이나 동물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추억,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3. 도림천에서 보고싶은 혹은 사라져 버린 식물과 동물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4. 다음의 보기는 도림천의 과거 모습을 표현한 지명입니다. 어떠한 보기가 지금의 도림천과 가장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마장천 : 조선시대 말 목장이 있던 곳
- ② 사촌(천) : 도림천의 모래밭 근처 마을 (황석영 작가의 ‘모랫말 아이들’)
- ③ 은모래길 :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톱이 있는 도림천의 풍경
- ④ 옥수 : 옥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곳
- ⑤ 기탄교 : 대림천과 도림천이 합수하는 지점
- ⑥ 기타 (_____)

15. 도림천이 어디에 중점을 둔 공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공간
- ② 자연, 생태체험이 가능한 공간
- ③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16. 도림천이 어떤 곳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7. 이밖에 도림천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추후 별도의 시간약속을 통해 약 30분~1시간 내외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성함: (_____) 핸드폰번호: (_____)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의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기재해 주신 개인정보는 연구목적이 종료된 후 즉각 폐기됩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귀하의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인터뷰를 위하여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조사목적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021. . .

이름: _____ (서명/인)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심층면접 녹취록

1. 면접대상자 J (대림3동, 50대 여성)

○ 대림동에는 언제부터 사셨는지요?

- 대림3동에 살아요. 20년 정도 살았어요. 90년대 초반 아가씨 때 직장이 이쪽에 있어서 대림동에 몇 년 살다가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서 7년 정도 살았고요. 20년 전 쯤에 다시 대림동으로 왔어요.

○ 다시 대림동으로 돌아오신 걸 보면, 그때 대림동에 대한 기억이 좋으셨나요?

- 직장 때문에 다시 왔어요. 결혼하면서 직장 못 다녔는데, 아이들 어느 정도 커서 다시 일을 하려고 돌아왔지요. 지금은 어르신 복지관에서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 처음 직장생활 하실 때 대림동은 어떠셨는지요?

- 지금은 확실히 중국인이 많이 살아요. 그게 가장 큰 변화죠. 처음에는 거의 아파트도 없었고 주로 연립주택, 다세대가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우성아파트 정도만 있었는데, 차츰 현대아파트 등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서울에서는 아직도 집값이 저렴한 편이죠. 예전에 공단이 있는 구로가 가까우니까요. 그쪽 직장인들이 여기 많이 살았어요. 다세대가 여러 사람이 싸게 살기 좋으니까요. 여기는 가리봉과도 다 연결되고 해서요.

○ 여기 중국인, 중국 동포들이 많이 오게 된 건 언제 쯤이었나요?

-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인이 대림2동 쪽에 엄청 많고, 제가 사는 대림3동은 아주 많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대림2동은 한 반에 중국인이 2-3명 정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99.9%라고 해요. 아이들끼리는 서로 잘 어울리고 해요. 그런 건 잘 되어 있어요. 어차피 그 아이들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상급학교 진학하고 퍼지면서 한국 친구들을 또 만나니까요.

○ 한때 <범죄도시> 같은 영화 때문에 지역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았나요?

-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싫어해요. 무서운 동네 산다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안 좋은 동네라는 인식이 있어서 말을 잘 못 해요. 근데 실제 살면서는 불편한 거, 무서운 거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 쪽에는 중국인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요. 여기만 나와도, 마을버스를 타도 그분들 하는 행동이 좀 행동이 다르기는 해요.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아요.

○ 직장 다닐 때도 도림천에 가셨나요?

- 손에 땀을 정도로 갔어요. 안양천으로 이어지니까 지나가면서 갔던 거지, 굳이 도림천에 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도림천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 그때 복개가 되었던가요?

-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걷기 운동 붐이 있어서 운동하러 가기는 했는데 말이죠.

○ 여기 다시 오시고 나서는 자주 다니시나요?

- 2000년도에 다시 왔는데. 그때도 잘 안 갔어요. 도림천에 아이들이랑 같이 다닌 적은 없어요. 그냥 운동하러 가는 거죠. 애들이 잘 안 따라 다니기도 하고요. 도림천은 잘 안 다녔네요. 여의도를 아예 가죠. 자전거 타거나 걷는 정도는 하고요. 근데 지금 운동하러 가보면 새나 오리가 보이고 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 지금은 도림천에 운동하러 몇 번 정도 가시나요?

- 대중 없는데, 추울 땐 또 안 가게 되고요. 주로 신정교까지 걸어갔다 와요. 왕복하면 3km 정도 되는데, 봄이나 날씨가 좋을 때는 거의 매일 아침에 가요. 여름, 겨울에는 잘 못 가고요. 다니면서 주위 나무를 보곤 해요. 봄에는 작은 들꽃. 민들레, 처음에 나오는 하얀 꽃(머느리 밀싹개)도 너무 예쁘고요. 이름을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꽃이 하얗게 쪽 펼쳐지는 게 너무 예뻐요. 꽃 영상도 찍고, 조류 연구하시는 다른 분들 사진 찍는 것도 구경하고 그래요. 원래 꽃 기르고 그런거 좋아해서요.

○ 도림천에서 어떤 생물들이 눈에 많이 띄던가요?

- 원앙 같이 생긴 오리가 기억나요.. 물고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느릅나무를 참 좋아해요. 멋있고. 잘 다듬어 놓으면 헬멧 같기도 해요. 신도림부터 안양천까지 이 나무가 있고. 대림역에서부터는 버드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 악취가 가장 심한 문제죠. 공사 끝나면 괜찮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빠도 거의 매일 같이 도림천으로 운동 다니는데 악취 때문에 대림역에서 오히려 상류 쪽으로 가요. 신림동까지, 보라매공원도 가고. 그래도 저는 이쪽이 더 좋은지 안양천, 신정교까지 갔다 더 기분 내키면 오목교까지 다녀와요. 화장실은 신도림역이나 신정교까지 가면 있고 해서 괜찮아요.

○ 가끔 교각 밑에서 악기 연주하거나, 와서 춤추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가요?

- 싫죠. 시끄러워서. 신도림역 기차 소리도 싫은걸요. 지나가려면 하는 수 없지만요. 하지만 정식으로 버스킹 같은 걸 하는 건 좋아요.

○ 교각 밑에 극장을 만들어서 공연할 수 있게 하면 어떨지요?

- 그냥 와서 색소폰 연습 하시는 분들은 좀 시끄러워요. 버스킹 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근처에는 그런 게 워낙 없으니까요. 잘 하는 분이 정식 공연을 하는 건 괜찮아요.

○ 만약 중국 춤 배워보기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요?

- 글썽요. 근데 여기 공원도 가끔 와보면 거기서 춤 추고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잘 안 맞는데, 얘기 들어보니 그 분들한테는 생활이더라고요. 중국 문화를 경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르신들 좋아하실 것 같고, 춤도 재밌는 것 같고요.

○ 도림천에서 동식물 관찰한다 하셨는데 해설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요?

- 해설 너무 좋아요. 저는 어딜 가도 궁 해설, 숲 해설을 꼭 들어요. 애정도 더 생기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찾아봐서 안다고 해도, 아직 잘 모르는게 많으니까요. 그게 홍보가 되면 엄마들 반응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도림천에 은근 야생화가 많아요. 근데 그걸 또 뭔가 개발한다고 하면 없어질지도 모르죠. 안양천, 신정교 근처에는 넓은 곳이 있는데 봄에 다 야생화예요. 무리 지어 있으니 너무 예쁘죠.

○ 여기도 코스모스, 장미랑 심어두고 했는데 보셨어요?

- 올해는 코스모스가 잘 안 됐어요. 올해 홍수 나서 한번 다 묻혔어요.

○ 도림천에 공공예술 프로젝트로는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 자전거 다니는 안 쪽에 비어있는 공간에 갤러리를 해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갤러리를 만들면 수시로 그림을 바꿔줘야 하나요? 그림 벽화를 예쁘게 해도 좋아요. 기둥도 꾸미고요. 너무 다 시멘트로 되어 있으니까요.
- 작가들 직접 찾아올 수도 있겠죠. 미술관 가기도 쉽지 않은데 유명한, 대중화된, 인기 있는 작품도 보기 힘들거든요. 이쪽이 문화혜택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인기 있는 작품 위주로 갤러리를 형성해 주면 좋겠어요. 버스킹도 마찬가지로요. 좀 전문적인 분들 모셔다가 해줬으면 해요. 아마추어 말고, 시민도 오디션을 거쳐서 하면 좋겠고요.

○ 그림을 그린다면 뭘 그리면 좋을지요?

- 도림천에 있는 꽃을 그려도 좋죠. 잘 해놓으시면 알록달록, 환하고 밝아져서 사진 찍는 명소도 될 수 있고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그림을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면서도 깔끔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 다들 빠르게만, 앞만 보고 걷잖아요. 대부분 빨리 걸어갔다 와서 나 몇 보 채웠다 얘기하니까요. 근데 뭔가 문화적인 걸 해두면 애들도 오고, 다들 서서히 관심 가지고 오고할 것 같아요.

○ 만약 도림천에 상징물을 만든다면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 마라탕. 중국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뇌리에 박혀 있는게 그냥 중국, 중국. 도림천 가서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중국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같이 살아가려면 그 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겠어요. 무조건 싫다고 배척만 하면 안 되죠.
- 그 이전에도 대림동에는 특별한 상징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인데, 거기에 20년 살고 여기 30년을 살았는데도, 고향에는 소개해 줄 곳이 많은데 대림동에는 없네요. 여름에는 도림천변이 가끔 잠기곤 하니까 홍수도 고려해서 설치해야할 것 같아요.

○ 도림천 중에서도 대림역과 신도림역 사이에 이름이 없는 다리가 2개 있는데, 시민들과 다리 이름짓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뭔가 이름이 있으면 운동 다닐 때도 통화하면서 어디쯤이냐

고 물어보면 어디라고 대답을 하기가 좋잖아요.

○ 도림천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요?

- 저는 그냥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세월이 지나야할 것 같아요. 나무가 있지만 아직은 너무 썰렁해요. 웅장한 나무가 있고, 계절마다 꽃도 피었으면 해요. 인위적으로 심는 것도 좋아요. 이미 개발이 좀 되어서 인위적으로 심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 환삼덩굴을 제거하거나 도림천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개설하면 참여하실 의사가 있을지요?

-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은 잘 모르겠네요. 우리 남편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학생들도 하는 거 봤어요. 도림천이 아무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쓰레기도 많기는 하니까요.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 앞으로도 도림천을 자주 이용하실 생각이신가요?

-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2. 면접대상자 K (대림2동, 30대 남성)

○ 대림동에는 언제부터 사셨나요? 그 사이 달라진게 있는지요?

- 거주 5년 차입니다. 동네에서 작은도서관을 2018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이쪽 지역이 아직까지는 대림동에서도 많이 썩 편이죠. 여기 대림2동은 영등포구의 끝이에요. 동작, 관악, 영등포, 구로구가 한 번에 만나는 곳이죠. 도림천처럼 4개구를 관통하는 개천이 서울에 2개있어요. 다른 하나는 청계천인데, 거긴 서울시에서 관리해요. 도림천은 지금 구 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 이쪽으로 오기 전에는 신림 쪽 도림천 근처에 7년을 살았어요. 도림천에는 영등포에 와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신림역 바로 앞에 살았는데 그쪽 도림천에는 시설도 많고, 축제도 많이 하고, 환경도 잘 되어 있거든요. 또 도림천 기준으로 한쪽은 시내, 다른 쪽은 아파트나 거주지이다 보니 지역 주민과 늘어난 청

년들이 모두 도림천에서 만나는 해방구 같은 곳이에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도림천에서 친해져서 놀기도 하고, 반려동물 축제도 하고요.

- 그런데 여기 와서 도림천을 보고는 "왜 이래?" 했어요. 약간 할렘 같은 느낌이었죠. 회사에 갈 때도 도림천 따라 40분 정도 걸어서 출근했었어요. 구로디지털단지역 밑에 원래 노숙자촌이 있었어요. 10년 전 쯤 관악구 라인 쪽이에요. 그때는 내려가는게 많이 무서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다 철거하고 쇠파이프를 박아서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다 주변으로 흩어졌죠.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 변화가 깔깔거리도 변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전집 거리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분들 다 나가고 청년들을 위한 술집으로 많이 바뀌었죠.

- 이쪽 도림천 인근은 너무 색깔이 달랐어요. 신림 쪽 도림천에 비하면 감정에 가까운 느낌.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요. 왜 이러나 봤더니 4개구로 나뉘어 있는데 구로, 영등포보다 관악, 동작 쪽이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관악은 도림천을 시그니처로 보고. 동작은 보라매공원이랑 연결이 되어서 사업을 많이 했어요. 딱 구 경계를 넘어오면 그게 구별이 된다니까요. 영등포에서도 이번에 도림천을 열심히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 우리나라 법으로 원래 서울시의 천은 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걸 위임을 해서 천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구가 지천을 관리하게 되어있어요. 이쪽은 대부분의 도림천이 구로구 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영등포구에서 뿔하려면 서울시, 구로구와 협의를 해야 한다더라고요. 구로디지털단지역을 기준으로 영등포 방향으로 넘어왔을 때, 구로구 땅이 80%, 사유지 10%, 국유지 10%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영등포구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면, 검토가 어렵다거나 구로구나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한다는 답이 돌아와요. 환삼덩굴 같은 풀 한 포기라도 뽑으려면 다 승인을 받아야 해요.

○ 그럼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해보려고 하신 것인가요?

-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뿔가 바꿔보려고 했어요. 도림천이 어두우니 가로등을 설치하고, 비둘기가 많아 배설물도 떨어지고 쓰레기, 담배꽂초도 많으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요. 또 도림천 라인에 공중 화장실이 없다보니 어두운 곳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용자들은 그곳을 피해서 가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시설이 없어서 통행도 어렵고요. 그런 자료를 다 만들었어요.

- 지역성, 자연, 문화적인 자료들. 도림천이 좋은 점이 문래동, 대림동, 도림동을 지나가잖아요. 문래동에서도 창작촌이랑 멀지 않고요. 대림동도 대림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도림역을 모두 연결하면 문화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콘텐츠가 많거든요. 도림천-안양천 라인과 영등포 샛강-한강 라인을 다 연결해서 문화 콘텐츠로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아무도 그걸 안 하고 있었죠.
- 생태학적으로 본다면 도림천이 60-70년대만 해도 물이 깊고 깨끗했다고 해요. 도림천은 대표적인 건천이라 물이 별로 없고 홍수, 장마 때만 아주 많이 올라오죠. 장마철에 인명 피해가 많다 보니 우수지도 만들었고 관악부터 동작 보라매공원 있는 곳까지는 깨끗해요. 그런데 구로디지털단지역 옆에 구로구 쪽에 빗물펌프장이 있고, 깔깔거리 6~7층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를 비가 오면 같이 방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수질이 좋지 않아요.

○ 구로디지털단지역부터 물을 추가로 공급하고 있지 않나요?

- 아주 조금씩 나와요. 하천 냄새도 많이 나고, 내려가서 뒤집어 보면 모래 층이 검은색이에요. 환경 실태조사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어서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도림천 상류,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기울기가 커서 유속이 빠르거든요. 영등포는 편평하다보니 유속이 느리고 물이 고여요. 녹조가 늘어나서 산소포화도도 줄어들고 하니 생태하천으로서 역할을 못하죠.

○ 주민참여예산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못했어요. 그러다 영등포문화재단에서 2020년도에 수변탐사대를 모집했어요. 제가 2018년에 이쪽에 이사 와서 2019년에 자료를 좀 모았고 2020년에는 수변탐사대 활동에 참여했죠. 도림천에 관심 있는 주민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어요.

○ 수변탐사대에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 2020년 사업으로는 의제 발굴이 있었고, 올해는 실행 단계였어요. 저는 탐구 단계에는 생태 교란종 제거, 쓰레기 줍기, EM 활용 등 활동을 했고요. 7월부터는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서 야외행사를 못해서 어렵긴 했는데요. 도림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중국 동포가 많으신데 안내판이 다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안도 했고요.

- 올해 실행 단계 때에는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못 하다 보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고민 했어요. 도림천에 조명이 많이 부족하니까 도림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모집해서 등 만드는 키트를 배포하고, 교육은 비대면으로 하는 식으로 했어요. 완성된 등을 받아서 방수 코팅을 하고 그걸 2주 동안 시범 배치를 해 봤거든요.

○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 반응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개 설치 했는데 설치한 다음 날 3개가 사라졌어요. 지역 주민, 재단과 함께 미리 철수를 할지 고민 했죠. 근데 다들 전시 기간까지 놔둬보자고, 다음에 우리가 보안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할지 경과를 보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결국 최종 철수 할 때까지 11개가 없어졌네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오픈 된 전시는 힘들고,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죠. 철거할 때도 시민들이 좋은데 왜 철수하느냐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 참여자는 어떻게 모았나요?

- 작년에 도림천 활동한 분들께 연락을 드렸어요. 협치팀이랑 의제 발굴도 함께 했어요. 행정에서 다양한 조사, 인터뷰를 하면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걸 누가 어떻게 실행 할 것인지, 실행 주체가 없다 보니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소모만 되지, 다음에는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업이 끊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7명 정도 됩니다. 자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커뮤니티나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요. 다른 권역의 사업 팀들은 하나의 주제로 활동을 주로 하는데 여기는 다양한 주제로 할 수 있어요.

○ 대림동이다보니 중국동포들과 기존 원주민이 서로에게 가지는 생각도 궁금해요.

- 비자의 유형에 따라, 생활의 유형 등에 따라 갈등의 구조와 형태가 너무 다양해요.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죠. 여기 정착하시는 귀화하신 분들은 이쪽의 규칙도 따르고 여기 사람처럼 사세요. 온지 얼마 안 된 분들, 한국어 전혀 못하는 한족 분들은 얘기가 다르죠. 차이나타운 쪽으로 행정력이 많이 가다보니 오히려 선주민은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 대림동이 도시를 정비, 개발하여 만들어진 동네가 아니에요. 60~70년대에는 논밭이었는데, 80년대 공단이 들어오면서 인력이 부족하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했죠. 그분들이 가리봉에서 살기 시작해서 90년대 말에는 정비사업을 하다보니 대림동 쪽으로 많이 넘어 오셨어요. 그러면서 동네가 생겼고요.

- 진짜 ‘동네’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 공간 공사를 2달 동안 하는데 100명 정도는 왔다 가신 것 같아요. 페인트 칠하는 걸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대림동은 재개발이 잘 안 돼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80년에 이사 오신 분들이 월세, 전세 살다가 집을 새로 사셨잖아요. 그 분들이 건물주라 월세 받는 게 편하지, 새로 아파트 올리는 걸 선호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이 동네 개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 대림역 아래 도림천나 공원에서 춤연습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공간이 부족한가요?

- 대림동에는 작은 어린이공원은 몇 개 있는데요. 구로디지털단지 쪽에 어르신들이 노시는 판이 있었어요. 간이 의자도 갖다 놓고 윗놀이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쓰레기 버리고, 노상방뇨까지. 춤 추고 하는 것도 민원이 들어가고 했었죠. 어느 날 보니 없어졌더라고요.

○ 차라리 이용수칙을 정하고 아예 공개적인 노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 저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정에서는 관리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을 만들 수는 있는데 관리가 문제죠. 2~3m씩 침수가 되다 보니 장마 때 다 상한다고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지만 말이지요. 사실 그래서 여긴 못 한다고 생각했어요. 생태극장이 어떻게 만들어 질지 궁금하네요.

○ ‘도림천 생태극장’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래도 예정되어 있는 사업구간은 환경이 좋은 편이에요. 구로디지털단지 쪽은 하천 바로 위에 고가철교가 있어서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거길 지나면 고가가 높아지고 일조량도 많아지죠. 상대적으로 생태 환경이 좋아요. 중간부터는 뚫려 있기도 하고요.

-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건 지역성, 문화성, 환경성입니다. 만드는 건 좋은데, 어떤 방향으로 만들 건지가 중요해요. 신림동 쪽 도림천 활성화가

잘 되는 이유는 지역 주민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필요한 시설들을 도림천에 잘 모아놨거든요. 주변 환경도 좋아요. 그걸 파악해야 해요. 영등포뿐 아니라 구로구, 대림 2동 주민들도 이용을 할 텐데 이들이 도림천을 이용하는 형태, 접근성 부분을 고려해야죠. 도림천이 물리적 접근성이 좋지는 않아요. 물리적 접근성을 완화하는 문화 프로젝트도 있으면 좋겠네요.

- 또 대림동 차이나타운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장기적으로 도림천과 문래동, 신정교 하부, 안양천, 문래동, 대림의 콘텐츠를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선유, 양평까지. 셋강까지... 큰 그림 안에서 이 부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해요.
- 도림천, 현재 사업지 인근 주민들이 필요한게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도림천을 주로 이용하는 인구 현황이 어떤지에 따라 프로그램,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죠. 신림, 동작 쪽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낮아요. 사업대상지 쪽은 이용 연령대도 높고, 주로 운동이나 산책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말이죠. 일단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라도 있으면 좋겠죠.
- 이 사업의 주체는 도림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역에 대한 관심, 애정도가 있는 사람이 했으면 해요. 너무 지역과 동떨어진 작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외면 받거든요. 작가님들과 지역 주민 분들 사이에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술과 생활의 갭이 큰거죠. 큰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안에 녹아들지 못하는 작품이나 공간이 된다면, 결국 이용하는 사람은 지역 주민인데 그들에게 공감 받지 못하면 외면 당해요. 그럼 이 사업의 본질 자체가 의미 없어지겠죠.

3. 면접대상자 L (대림2동, 60대 남성)

○ 언제부터 대림동에 사셨어요?

- 저는 중국동포 2세입니다. 중국 길림에 살다가 2005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친척 방문으로 왔지요. 친척 분들이 한국에 많이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형님이 인천에 와 있었어요. 저도 수원에도 살다가, 강릉 가서 또 있다가 영등포 후문,

대림, 구로에서 살았죠. 2012년에 국적 취득 했어요.

○ 중국 계시다가 대림동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 우리 동포들이 처음에 올 때는 3년 살다 돈 벌어서 가자는 목적으로 왔는데, 오래 살고 하면 적응이 되잖아요. 한 민족이고 일단 언어가 통하니까요. 언어가 안 통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정이 안 붙을 텐데 말이죠. 지금은 정부에서 만약에 몇 년 동안 대한민국 살면서 불법 행위 없고 하면 국적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 하면 귀화해서 여기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은 국적 신청하려면 민법도 알아야 하고 너무 어렵죠.

○ 한국하고 다르게 중국에 있을 때 했던 놀이, 명절 행사가 있으셨어요?

- 많지요. 그런데 중국 동포, 조선족의 문화는 한국과 다른 게 뭔가 하면 흘러 간 세월에 이북이랑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북 문화 쪽과 가깝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한국 전통 춤도 많이 추고 하는데, 남한 사람들은 서양 쪽 스타일로 춤을 추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많죠. 어렸을 때 제기차기, 썰매 타고 그런건 다 똑같아요.

○ 여기 동포회는 어떤 곳인가요?

- 어르신들이 만드셨는데 그 분들은 지금은 다 경로당에 가셨어요. 우리 동포회에 마스크 같은 후원품이 들어오면 동포경로당에 먼저 지원 하지만, 절반은 내국인을 위해 써요. 우리가 동포회라고 동포를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동포들이 중국에 살다 들어와서 문화 차이도 있고 하니 오해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에도 기여하는 거죠. 영등포 대한노인회, 동사무소 협력도 하고 있어요. 회원들이 외국인 자율방범대에도 참여해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앞장서 나가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자 하는 의미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지요.
-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서 계속 사시던 분들과는 문화 차이가 있어요. 중국인은 아침 저녁으로 광장, 공원에서 '광장무'라는 춤이자 체조인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익숙해서 여기서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파트에서 음악 틀어놓고 운동하고 하면 신고하잖아요. 운동할 장소가 별로 없어요. 문화 공간, 활동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 대림역 밑에서도, 공원에서도 춤추시는 걸 보았어요.

- 남녀노소 다 해요. 할머니가 손주 데리고 춤을 추는데 3~4살 짜리가 엄청 잘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춤 출줄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은 운동을 워낙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해요.
- 하지만 어린이 공원에서 광장무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자꾸 중국식으로 하니깐요. 파출소 쫓아가서 또 얘기를 해줘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도림천을 돌아보니 운동기구 있는 쪽에 무대 같은게 있던데, 운동기구는 좀 더 좁은 곳으로 옮기고 야외 무대를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죠. 조롱박 축제도 열리는 대림1동 어린이 공원은 무대가 있는데요. 그걸 확대해서 시멘트만 발라줘도 거기서 누가 공연을 해도 좋고, 설 명절 때도 이용하면 좋죠. 대관료를 받아서 공원 시설 유지에 써도 되고요. 근데 이런 걸 할 자리가 너무 없어요.

○ 동포회 합창단은 누구를 위해 공연하나요?

- 동포를 위한 공연을 주로 해요.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 홍보를 위해서 구로 꿈나무극장에서 간단히 공연했어요. 평일에는 다 일하고 주말에 활동하죠. 협회 사람들은 여기 사무실이라도 연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되니 공간이 더더욱 필요하겠죠.

○ 평소에도 도림천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 얼마 전에도 신대방까지 동네 사람들이랑 다녀왔어요. 주말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하고 있으니깐, 도림천에 사람들이 모여있지는 않은가 확인하러 돌아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도림천은 위치가 주택이랑 머니까, 그쪽을 야외문화공간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 도림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 저희도 도림천 많이 돌아봤어요. 장소도 보러 다니고요. 그런 데에 무대를 해놓으면 최소한 공원에서 노는 사람들을 그 쪽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요. 지금은 대림2동 학교 옆 공원에 사람이 가장 많은데 거기 다니시는 어르신이나 동네 사람들이 저희 찾아와서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 광장무 활만한 공간이 가장 필요하신 건가요?

- 그것도 그렇고 춤연습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연습할 곳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대림동에 공연 시설 같은 문화 공간이 없어요. 이런 공간이 많아야 동포들도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을 테고, 교류도 하고 좋은데 말이죠.

○ 대림동, 도림천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있으실까요?

- 주말 저녁에 보면 도림천에서 악기 연주하는 사람, 성악을 즐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서로 교류도 하고요.

○ 내용적으로는 어떤 걸 더 담으면 좋을까요? 중국 분들은 황금색, 붉은색을 좋아하신다 하여 그 부분을 고민하는 작가님도 계셨어요.

- 도림천에 문화 시설을 만들면 반드시 한국 스타일을 기초로 해서 해야 해요.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저희는 공간만 마련해주면 좋아요. 주말에는 미리 예약해서 공간을 쓸 수 있게 하고, 이용 후에는 직접 관리도 하도록 하고요.

4. 면접대상자 M (대림3동, 20대 남성)

○ 여기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 4살 때 왔어요. 딱 이사왔을 때 기억나는 건, 제가 소파 위에 앉아서 자고 일어나니 짜장면이 있었다는 것 정도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이 근처로 다녔어요.

○ 처음 이 동네에 왔던 기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른가요?

- 많이 바뀌었죠. 일단 가장 크게 기억 나는 건 신도림역 쪽부터예요. 신도림역 근처에 디큐브, 호텔까지 여러가지가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아무 것도 없고, 공영주차장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일자 형태로 상가가 있었는데 거기가 다 개발되었어요. 도림천 쪽도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은 곳으로 기억해요.

○ 대림동 인근에 오래 살았는데, 역사나 문화적으로 특별한 곳들이 있는지요?

- 택시 타면 가장 많이 들었던게 미원 공장 이야기였어요. 현대3차아파트 빗물펌프장 근처에 미원 공장이 있었다더라고요. 그 외에는 신도림역 정도. 제가 사는 동네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서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용한 동네죠. 있을 거 다 있는데 시끌벅적 하지 않아서 그런 면이 괜찮은 것 같아요.
-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이곳이 재밌는게 도로에서 보면요. 63빌딩이 보이고, 여의도 IFC 빌딩도 보여요. 뽕 뚫려 있어서 석양도 좋고. 여름에 바람도 많이 불죠.

○ 도림천에 어릴 때도 간 기억이 있나요?

- 집 바로 옆이었지만 자주 가거나 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근처에 빗물펌프장도 있었는데요. 도림천이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다보니 가는 거 자체를 꺼려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쯤 되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신도림역 쪽은 제가 초등학교 때 개발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때 즈음에는 빗물펌프장에도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트랙이 생기고 했죠.

○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는 도림천에 가셨나요?

-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지금과 도로 자체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서울대 입구, 보라매 지나서까지 갔다가 반대 쪽으로는 안양천 따라서 한강까지 가곤 했죠. 한강에는 지금도 자주 다니고 있어요.
- 거기가 의외로 동물이 많아요. 오리도 많고, 새끼 오리 데리고 다니는 것도 봤고요. 족제비도 본 적이 있고, 새들도 계속 날아다니고 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걸 보고, 퇴근할 때는 근처 야경도 보죠. 일단은 조용하니까 여러 생각하면서 걸을 수도 있고요.

○ 도림천이 구간에 따라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 같은 도림천이지만 영등포 쪽은 좀 괜찮은데요. 구로 쪽은 하수 배출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지 비가 오면 냄새나고 했어요. 작년에는 주로 보라매 쪽 길로만 다녀서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같은 도림천인데도 양 쪽 길이 차이가 있어요.

○ 도림천의 풍경이 학교 다닐 때랑 지금이 많이 달라졌나요?

-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근처는 지금도 비슷해요. 그냥 빌라가 많죠. 고등학교 근처도 거의 빌라였는데 다 재개발 됐어요. 취업하고 다시 가보니 그쪽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도림천도 최근에 나무를 심고 해서 많이 달라졌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던데 무슨 공사인가 보고 있어요. 내년 여름쯤 되면 그늘막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요.

○ 매일 도림천을 지나 출퇴근 하나요?

- 네. 비가 오지 않으면요. 대림2동에 중국인 분들이 많이 사셔서, 전에는 중국인 분들 모여서 같이 무용하는 것도 봤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차단되었죠.

○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 무용 하는 건 남에게 크게 피해만 안 주면 자유롭게 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 다른 면에서 개선 되었으면 하는 건 대림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노숙자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계시는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걱정이 되거든요.

○ 도림천 이용자 연령대가 좀 높지 않던가요?

- 젊은 사람들은 거의 그냥 운동하면서 지나가는 곳, 통행로 정도인 것 같아요. 다들 멈춰서 뭘 하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안양천 쪽에서 조금만 올라와도 바닥에 이끼가 잔뜩 끼었거든요. 수질도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좋을 텐데 말이죠. 가끔 물이 깨끗해지는데요. 예전에는 친구랑 들어가서 놀기도 했어요. 여름에는 물에서 침병거리기도 하고, 겨울에는 물이 퐁퐁 어니까 거기서 미끄럼도 타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러고 놀았어요.

○ 직장과 가까워서 도림천을 길로 이용할 뿐인가요? 특별히 좋은 건 없나요?

- 생각 많거나 할 때 다니긴 해요. 산책하는 분들과 비슷하겠죠. 그래도 도림천이 나름의 자랑거리기는 해요. 근처에 천도 흐르고 산책로도 되어 있다고, 동네를 지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곳이죠.

○ 무엇이 생기면 더 걷고 싶은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보라매공원이나 서울대입구 쪽은 길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 곳은 젊은 친구들도 와서 이용을 하는데요. 이쪽은 거의 산책 나가는 40~50대가 많죠. 만약 여기에 뭘 만든다면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 뭐가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 오지 않을까 싶어요.
- 일단 접근성도 썩 좋지 않잖아요. 신림은 주변에서 놀다가 바로 천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긴 도로로 막혀있어서요. 아파트도 있고요. 대림역 쪽도 큰 도로를 지나야 도림천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딱 바로 ‘아, 저기 천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극장, 갤러리 등 예술 프로젝트를 하면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 하지만 만든다고 해도 거길 사람들이 알고 이용을 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하더라고요. 딱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 도림천에 갤러리, 생태극장 등을 만드는 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 솔직히 도림천을 계속 지나 다니면서도 거길 이용해서 갤러리 같은 작업을 한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 그리고보니 가는 길 중간에 교량이 있는데요. 하천 안 쪽으로 다리를 받쳐주면서 흙이 쌓여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공간도 이용하면 어떨까 싶네요.
- 자전거만 탈 때는 거기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없었는데요. 요즘은 생각할 거리도 많고 해서 좀 걷고 있거든요. 안양천까지 가면 좀 강이 넓어져서 주위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악취 문제도 있고, 그늘도 없어서요. 처음에 나무 심는 걸 보고는 ‘아, 그래도 여기 뭔가 꾸미긴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나무가 생기면 그늘막도 생기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생태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 생태 관련 프로그램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도림천에 오리, 새들이 자주 다니고 물고기도 많으니까요. 아이들 데리고 다녀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족제비나 오리 노는 거 구경하고 있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엄마와 얘기할 게 있으면 같이 산책하자고 해서 안양천까지 다녀오기도 했어요. 운동 겸 대화죠.

○ ‘도림천 생태극장’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들려주세요.

- 대림역 인근은 중국 동포 분들이 사시는 동네라는 인식이 꽤 오래 되어서요. 생태극장의 방향성을 얘기한다면 중국 관련한 게 먼저 떠올라요. 색소폰이나 악기 연주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나가다 공터 공간에 노래 틀어놓고 무용하시는 것도 떠오르네요. 의외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걸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은 흔히 ‘인스타 감성’ 얘기하면서 사진 찍을만한 곳을 많이 찾아요. 도림천 쪽이 동굴처럼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밤에 보면 예뻐만 한 것들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겨울이라 백화점 같은 데엔 LED 전등도 달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이죠. 조금만 조광해도 저 같아도 거기서 사진 한 번 찍고 갈 것 같거든요. 불이 없거나 띄엄띄엄 있는 곳도 있어서요.
- 도림천이 조용한 곳이다 보니 오히려 생태만 조성이 잘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삼삼오오 앉아서 얘기도 하고요. 한강에서도 사람들이 조용한 곳 찾아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도림천변에서 직장인들도 퇴근하고 맥주 한 잔 하고 얘기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은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자가 있어도 솔직히 깨끗해 보이지는 않아서 말이죠.
-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길로 이용을 많이 하니까요. 국토종주 하면서 인증 도장 찍는 게 재밌었거든요. 도림천 길을 쪽 따라서 도림천만의 인증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5. 면접대상자 N (대림3동, 50대 여성)

○ 언제부터 여기에 사셨나요?

- 20년이 넘었어요. 1996년 큰아이의 입학도 임박하고 남편의 직장이 가까운 곳을 찾아 이사를 온다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 왜 이곳을 선택하셨나요?

- 이곳저곳 많이도 둘러보았지만, 앞뒤가 탁 트인 뷰와 교통이 가까운 이만한 곳이 없다고요. 그러나 막상 이사를 와 여름이 되고 보니 심한악취가 풍기는 유수지와 도림천이 바로 코앞이었어요. 다른 곳보다 돈을 더 주고 선택한 곳인데 너무 속이 상했어요, 천변을 이용하려 해도 진입로도 신도림교 하단과 대림역까지 가야해 너무 멀기도 하고 잡초도 무성해 사람 키를 넘을 정도로 자라고 모기때도 기승을 부리고요.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악취 나는 아파트에 사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지요.

○ 도림천이 변화한 건 언제쯤이었나요?

- 환경이 개선된 것은 주민들의 끝없는 민원과 2008년경 서울시 하천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서였어요. 하천에 커다란 돌들을 쌓아 강의 정확한 라인이 형성되고 강의 깊이도 깊어졌으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생기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때만 해도 그곳에는 삼과 족제비, 뱀, 두더지, 부전나비, 벌, 각종 잠자리 떼, 다양한 종류의 개미, 개구리, 맹꽁이, 두꺼비, 뽕 등을 종종 볼 수 있었고,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비둘기의 개체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도림천을 좋아하시나요?

- 제게 도림천은 숨통과 같은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겪는 엄마로서의 스트레스,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속상한 일들로 울화가 치밀 때나 우울증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귀찮아질 때, 혹은 문득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 때,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을 때, 지인과 친해지고 싶을 때, 혼자 울고 싶을 때, 강의를 앞두고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괜시리 센치해 질 때 도림천 변을 걸으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 이곳이 화려하거나 시설이 좋지는 않았지만, 봄이면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로 인해 문혀 있던 흠냄새가 나고 풀냄새가 나고, 졸졸 물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산책하며 열심히 팔을 앞뒤로 흔들며 걷는 아줌마들이나 몸이 좋지 못해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 늦게 들어오는 자식들을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어르신들의 유모차, 데이트하는 연인들, 전화통을 들고 큰 소리로 싸우기 위해 찾아온 사람, 몸매가 확실하게 들어 나는 색시한 옷을 입은 에스라인의 몸매 자랑 런웨이 코스, 퐁퐁퐁퐁 큰 퐁퐁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자전거, '훅' 무엇이 지나갔나 깜짝 놀라 쳐다보면 벌써 저만치 달려가는 젊은이의 트레이닝 코스, 영차영차 팔둘리

기 매달리기를 하며 운동하는 운동기구 이용자와 아예 돛자리를 들고 와 친구들과 여유를 즐기는 아주머니들, 우리 아들이 썩썩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출근길, 점심시간 짬을 내 운동하는 직장인들을 산책코스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사연을 가지고 찾는 곳으로 코로나19 이전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사람들의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붐볐던 곳이에요.

- 시시각각 달라지는 자연의 변화 모습에 감탄하며 ‘돈과 명예는 별것도 아닌데!!!’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미진 곳에 보일랑 말랑 열심히 꽃을 피우는 자연의 모습에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조금만 더 가면 더 넓은 안양천을 거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가슴이 확 터지는 한강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도림천입니다.

○ 도림천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천변과 산책로 사이가 좁아 생물의 종류는 다양하나 객체 수가 많지는 않아요. 늦여름부터 유난히 퍼지기 시작하는 환삼덩굴이 식물을 잠식합니다. 서양등골나물도 눈에 띄고요. 최근 우슬(쇠무릎)이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에는 하천 하류에 있던 기생식물인 실새삼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달 사이 대왕참나무가 많이 식재되었죠. 하지만 수는 적은 편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화단에 화려꽃들이 많이 심어져 자연적으로 자라난 풀이나 식물에 눈이 덜 가는 편이기도 해요.
- 교각의 숫자가 많죠. 일부 복개된 다리 하단이 비를 피할 수 있어 눈이나 비가 와도 이용할 수 있어요. 특정 교각 밑에서 시민들이 악기 연습을 하는 곳이 있고요. 대림역 하단 천변에는 조선족의 여가 공간이 형성되었죠. 분리된 느낌이 있다든가 불만을 표현하는 시민이 있어요. 대림역사 하단 하부 쪽과 현대2차아파트 진입로 쪽에 이름 없는 다리가 두 개나 있어요.
- 수심은 낮아요. 하지만 현대2차 아파트 앞 천변에는 봄에 큰 송어들이 올라와 여름까지 물고기들이 노니는 것을 쉽게 볼수 있어요. 천변의 중간에 인공적으로 만든 새들의 쉼터가 있어요.
- 지하철 소리가 커 대화를 나누기에 어려움이 많아요. 천변에 쉼 의자가 적은 것도 아쉬워요. 대림역에서 현대3차아파트 사이는 강폭이 좁아 장마철 갑자기 상류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매우 위험하다는 문제도 있어요.

○ ‘도림천 생태극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얼마전 도림천에 설치작업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방문객들이 좋아했어요. 그날 제가 시니어 센터와 연계해서 20명 정도 도림천 투어를 진행했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생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장마 같은 계절 요소도 고민해야 하고요. 올해는 징검다리 설치하는 등 공사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 시민들은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요. 나무에 이름표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식물의 분포나 생태 현상은 매일매일 달라지죠. 겨울에는 썰매나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다양하게 도림천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 저는 영등포문화재단 수변실험실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주민과 함께 춤을 배우고 취보는 댄스팀도 있었고 여의도 셋강 조사팀, 도림천 조명 전시팀도 있었어요. 풀놀이는 어린이, 가족 단위나 시니어 참여로 5팀 정도 진행 했어요.

6. 면접대상자 O (신대방1동, 30대 남성)

○ 도림천 인근 어디에 사셨어요?

- 신림역 근처 주거지에서 태어나 6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신대방1동에 살았어요.

○ 도림천에 자주 가셨나요?

- 도림천 하천에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도림천 주변을 많이 지나다니기는 했어요. 보라매 공원에 자주 갔는데 도림천 인근이기도 하고요. 어릴 때는 문창초등학교에 다녔는데 도림천 바로 옆에 있어서 학교에 가려면 도림천변을 지나갔었죠. 중·고등학교 때는 신대방역을 지나서 난곡사거리까지 씨디(CD) 사러 다니곤 했어요. 신대방역 근처에 책방이 있어서 자주 가기도 했고요.

○ 그때 도림천은 어땠나요?

- 느낌이 좋지는 않았어요. 도림천 근처에는 집값이 싸고 원룸이나 고시원이 많은데
요. 흔히 달동네라고 하는 곳도 봉천동 쪽에 많았거든요. 도림천에는 아무래도 불
빛도 별로 없고 어두컴컴하다보니 동네에서도 좀 무서운 형들이 자주 모여서 놀았
던 것 같아요. 봉림교 아래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시끄럽게 굴던 사람들도 있
었던 걸로 기억해요.

○ 도림천의 수변환경은 어땠나요?

- 그때 도림천은 그냥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곳이었어요. 시골가면 있는 동네 개천
같은 느낌이었죠. 그땐 포장된 곳은 있어도 산책로는 없었던 것 같고요. 나무, 풀도
별로 없었는데 모래가 많았던 기억이 나요.
- 도림천에는 평소엔 물이 아주 적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가득 찼어요. 그렇다고 밖
으로 넘칠 정도로 왔던 건 아닌데 물이 불어나는 모습이 꽤 무섭기는 했죠. 비가
오면 정말 도림천 아래를 걸었던 기억은 없어요. 특별히 내려갈 일도 없고, 분위기
가 무서워서요.

○ 그 이후로는 도림천에 간 적은 없으신가요?

- 5년 전 쯤에 한번 갔어요. 구로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도림천을 따라 걸어서
보라매 공원에도 가보고, 신림동까지 갔었죠.

○ 느낌이 어떠셨어요?

-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깔끔해지고 조명도 생기고요. 옛날에는 조명
같은게 없었거든요. 일단 사람이 산책도 하고 다닐 수 있는 느낌이 되었죠. 자전거
길도 생기고요.

○ 도림천에 또 가실 건가요?

- 도림천 인근에 살면 자주 갈 것 같아요. 자전거 타러 가기도 할 것 같고요.